

CHUNGNAM CULTURAL MAGAZINE No.14

충청남도 문화



한국문화연합회 충청남도지회



충남도민의 사랑 속에서
문화예술이 풍성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삶 전반에
영향력을 갖는 문화의 세기가 도래하고 있는 이 때,
충청남도 문화예술의 다채로운 소식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문화”는 활발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원 활동 소식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문화인들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 충남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방문화원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원천으로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충남도연합회 주관의 각종 사업과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예술인과
기관, 단체 그리고 지역민들 간의 조화와 협력의 기회로 삼고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의 시대에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지방문화원 운영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원장님들과,
문화원 가족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충남도민의 사랑 속에서 문화예술이 풍성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 12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장 정정희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

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향유 욕구와 문화소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은 지역에 활력을 심어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지역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문화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오늘날 지역개발의 핵심키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문화에 대한 시각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 충청남도는 문화분야의 도정을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으로 정하고 다양한 문화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함께 충남문화재단 설립,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충남 옛길프로젝트 사업,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충청남도는 백제문화의 본고장이며, 기호유교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서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내포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해안과 금강을 따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충절와 선비의 정신이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지역의 잠재된 문화자원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가치를 높여나갈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동안 지방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문화의 중심에서서 향토문화축제의 개최, 향토민속 발굴,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강좌, 전통문화 체험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족여러분이 민선5기 문화정책에 대한 성원과 발전적인 의견을 모아주시고 충남문화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충남문화 14호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충남문화가족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0. 12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지역문화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

지역 문화의 지킴이 「충남문화」의 열네 번째 발간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문화의 버팀목으로 도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가꿔주고 계시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정정희’ 지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발전 없이 개인의 삶도 국가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보통신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지역 문화는 서울이라는 중앙 문화와 외국 문화에 점차 그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서는 지역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의 개성과 독창성이 세계화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꾸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1400년 전 찬란하고 융성했던 백제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빛나는 백제문화는 지역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밑거름이자 자랑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가 이러한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문화의 파수꾼으로서 지역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200만 도민들에게 삶을 더욱 풍부하게 가꾸는데 지역 문화인들께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문화」가 지역 문화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충남 문화」발간에 애써 주신 관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와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0. 12



충청남도의회위원장 유병기



발행일자 : 2010. 12.
 발행인 : 정 정 희
 기획 : 윤준웅, 임영이
 편집인 : 정제상, 김정현
 발행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0-6
 Tel. 041) 354-2367, 357-2367
 Fax. 041) 356-3850
 표지설명 : 산수산경 무늬벽돌 (보물제343호, 국립부여박물관)
 충남문화 제14호는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003 권두언

정정희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004 축간사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유병기 (충청남도의회회장)

008 문화칼럼

김호택 (금산문화원장)

010 충남의 인물

명재 윤증/아계 이산해/채제공/500년 전통의 가문(家門)을 만나다

018 충남의 민속

벚가리대 놀이-이원면

020 충남의 전설

머느리 바위/묘순이 바위 전설

024 충남의 문화재

문헌서원/광덕사 노사나불괘불탱/위충암/몽산리석가여래좌상

030 충남의 향토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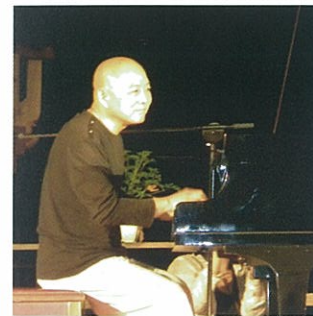
금산인삼축제/도원문화제/예산백제부흥군위령제/2010강경발효젓갈축제

040 충남의 문화사업

053 문화원 단신

055 2010년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058 2010년도 도내문화원 활동상황(가나다순)



공주문화원 060

금산문화원 062

논산문화원 066

당진문화원 070

대천문화원 074

부여문화원 078

서산문화원 082

서천문화원 088

성환문화원 090

아우내문화원 093

연기문화원 095

예산문화원 101

온양문화원 104

청양문화원 106

태안문화원 111

홍성문화원 116

각 문화원 홈페이지 소개 및 문화원 현황 122

contents



문화란 무엇인가?

박물관 전시실 안에 갇힌 전통이 아니라 당장 꺼내 먹을 수 있는 냉장고 속의 차가운 맥주



금산문화원장 김호택

인문학계통의 글을 쓰는 작가 중에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진 탁석산 박사의 데뷔작이자 출세작인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책은 시작부터 독자의 흥미를 끌어당기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 그 책의 시작 부분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 '한국'의 국민인 '만득이'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사업차 방문하는데, 그 나라는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리의 거의 모든 건물이 '한옥'으로 지어져 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한 단어라도 더 배우려고 미주치는 한국인에게 한국말로 말을 거는 사람들이 넘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있다.

만득이는 생각한다. '이 나라에도 고유의 문화라는 것이 있을 터인데, 어째서 이 나라 사람들은 한국인지 아프리카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한국 문화를 추종하는 것일까?〉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가 마음은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문화에 흠뻑 젖어 살고 있는 모습을 패러디한 모습이다. 거리의 풍경만 본다면 미국과 한국의 모습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미국 사람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만은 변치 않고 간직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전통이 무엇이며 고유한 것은 또 어떠한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금산문화원장으로 일을 시작한 지가 6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이다. '금산만의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임기를 시작했던 때가 떠오르고, 지난 6년간 과연 나는 아직도 초심을 간직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몇 가지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일들을 시도하고 또 성취했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딱 맞는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

'문화란 무엇인가?' 하는 진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남은 2년 여의 임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의 상념 끝에 얻은 생각은 문화란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굳이 영어의 Culture라는 단어가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에서 어원을 찾는다는 진부한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화란 사람이 사람과 만나 무언가를 만들고 만든 그 무엇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함께 하는 정신이 문화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나 혼자 구상하고 만들어내는 창작활동이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지 못해 대중의 외면을 받은 천재 예술가의 얘기는 금산문화원을 비롯한 지역 문화원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문화로 이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혼자 구상하고 만들어내는 창작활동이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지 못해 대중의 외면을 받은 천재 예술가의 얘기는 금산문화원을 비롯한 지역 문화원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문화로 이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산문화원은 내가 문화원장으로 일을 시작하기 10여 년 전부터 이미 다양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시도들을 해왔고, 일정 부분 상당한 성취가 있는 문화원이라고 나는 자부하고 있다.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주체들은 많이 있다. 그 중 지역문화원만이 갖는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지역 문화원 자체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전제 조건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가 고조선 시대부터 면면히 흘러 내려왔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런 전통만 유지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것이다. 나는 전통이란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상의 슬기를 이어 받아 전통을 지켜 나가면서도 간단없이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박물관 전시실 안에 갇힌 전통이 아니라 당장 꺼내 먹을 수 있는 냉장고 속의 차가운 맥주와 같이 현실에 적응시키고 또 변하는 세상과 소통하는 문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문화와 전통의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시대정신과 소통하고 세상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과 다양한 방안을 아우르는 공부이다.

삶이 살아 숨 쉬는 전통, 미래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산으로서의 전통을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지역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의 방향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 지역의 문화원들부터 서로 소통하고 잘 운영되고 좋은 소재를 개발하는 문화원을 서로 칭찬해주는 풍토는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남지회는 이런 활동에서 합격점을 받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역문화 발달을 위해 노력하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은 '금산문화원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또 다시 던지는 질문은 '문화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추구하면서 역지사지의 정신을 지켜 나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 본다.



'보광동류전'에서

People

Folklore

Legend

Cultural Assets

Festival



명재윤증선생초상

명재 “윤증”의 생애와 사상

비는 인욕으로 파악하고 매사에 의리 시
비를 분별하여 추사한다면 인욕은 물러
가고 천리가 유행될 것이라고 보았다.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유봉마을에 명재의 영당과 그가 강학하던 건물이 있다. 그 마을 뒷산을 유봉(酉峯)이라고 부르는데 작고 부드러운 봉우리이다. 명재의 다른 호가 바로 유봉(酉峯)이며 이곳에서 평생을 학문하며 보냈다. 명재의 아버지는 노서(魯西) 윤선거(尹宣擧)이고 할아버지는 팔송(八松) 윤황(尹煌)이다. 윤증(尹拯)은 노성으로 입향한 윤돈(尹墩)의 고손이 된다. 윤돈의 아들인 윤창세(尹昌世)가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현달 하였다. 장남 윤수는 식년과에 급제하고, 차남 윤황은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에게 배우고 성혼의 사위가 되었으며 알성문과에 급제하고, 삼남 윤전은 형과 함께 우계에게 수학하고 식년과에 급제하고, 사남 윤흠은 진사에 급제하고 한성서윤을 지냈으며, 오남 윤희는 부모를 모시고 고향에서 살았다. 이들 오형제의 자손을 말할 때에는 오방파(五房派)라고 부른다. 여기서부터 노성 윤씨들이 번창하기 시작하여 오방파 아들 대에 가서는 21명이 되었고 손자 대에 가서는 51명에 이르렀다.

명재의 수학은 일찍이 연산 양성당에서 신독재 김집에게 배웠고 금산 산천재에서 시남 유계에게 배웠고, 탄원 권시, 동춘당 송준길, 우암 송시열, 백호 윤휴, 초려 이유테에게도 배웠다. 그러나 기본적인 학문은 우계 성혼의 학문과 사상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이어져 내려온 가학적 전통으로 이어 받게 되었다. 그래서 명재는 자신의 학문적 연원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자신은 송시열에게서 배웠던 사제관계가 아니라 우암에게서는 주희의 글만 받았을 뿐이며 사계와 신독재 부자가 학문을 전해 주었듯이, 자신도 아버지인 노서 윤선거의 학문을 사사 받은 가전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명재의 내실적 학문관은 초학화일지도(1682)와 위학지방도에 잘 나타나 있다. 초학화일도는 충도와 지신, 독서, 응사, 접물에 대한 도식과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도는 숙흥과 야매 사이에 일용을 두고 일용 아래 다시 지신, 독서, 응사, 접물 4항목을 두고 있다. 배우는 사람의 일용은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이 네 가지를 넘어서지 않는다. 각각에 해당하는 도식을 아래에 그린다. 그 이치를 진실로 알아서 실천해갈 수 있다면 위로는 성인이 될 수 있고 다음으로 현자가 될 수 있다. '지신'에는 다시 구용, 지경, 사물의 조목들을, '독서'에는 독서지, 독서지서, 독서지법을 두고 있다. 명재는 주자의 독서를 통한 궁리를 강조하며 독서의 방법으로 명재가 실심이 서지 못하면 실공에 나아가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실심으로 하는 독서를 통해서 실심을 세우고 실공에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명재가 실심으로의 독서를 통하여 추구하는 궁극적 도달점은 실공에 있으며,

실공이 있으면 실덕이 있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응사'는 의리와 시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의와 시는 천리이고, 의와 비는 인욕으로 파악하고 매사에 의리 시비를 분별하여 취사한다면 인욕은 물러가고 천리가 유행될 것이라고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명재의 초화화일지도는 학문하는 구체적 세목이 제시되어 있다면, 위학지방도에는 명재학의 강령이자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위학지방도에 제시된 강령은 입지와 무실을 전제로 한 지경, 강학, 성찰이다. 학문에서 실천적인 면을 궁구한 것이 예학이기에 명재는 예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생 연구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례문답'이고 단편적인 글을 모은 '상례유서'와 '제례유서' 등이 있다. 연보에 의하면 30세 때 부친을 도와 '가례원류'를 수정 하였고 32세 때에 권시, 유계, 이유태, 등과 서신으로 예송을 논하면서 서인의 예설을 지지 하였다. 44세 때에 사계의 '상례비요'를 교정하여 중간 하였고, 50세 때에 '가례원류'를 교정하였다. 52세 때에 박세채와 '국홀중사례사의(國恤中禮私議)'를 서신 왕복하며 교정하여 저술 하였고, 66세 때에는 신독재의 '의례문해속'을 교정하여 발문을 지었다. 85세 때에는 유상기(兪相基)와 가례원류에 대해 논하였고, 86세 때에는 장손 동원에게 구술하여 '상례유서', '제례유서'를 만들었다.

이러한 예학에 대한 관심은 학문으로만 그치지 않고 생활에까지 미쳤으니, 명재가의 제사 음식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는 일찍이 제사상 준비에는 낭비가 많으니 음식을 많이 차리지 말고 일거리가 많은 유밀과와 기름이 들어간 전도 올리지 말고 엄정하되 간소하게 하라고 하였다. 그 한 예로 제물 가운데 한 가지를 든다면 한 접시에 새우젓과 조기 반 마리를 올리는 것이다. 회니시비는 우암 송시열의 윤선거의 비문 문제로 나타났지만 실은 그 이전에 윤선거 생전에 강화도 수난과 윤휴의 사정(邪正) 문제로 시비가 있었으나 서로 의절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윤선거가 세상을 떠나자 제문을 보내어 조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서로 학문적 입장의 차이와 예론의 다른 견해에서 비롯되어 교류하는 부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항상 마찰을 빚었고 신유의서 문제로 결국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되고 윤증은 소론의 영수가 되었다. 명재가 소론의 영수가 된 것은 그만큼 학문적 위상이나 학자로서의 위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평생 출사치 않았으나 나라에서 계속하여 벼슬을 내리니 1709년에는 우의정까지 제수 받았으나 모두 사양하고 선비로서의 지조를 지켰다. 1714년 유봉에서 별세하니 그의 묘에는 묘표만을 세우고 비에 '유명조선정사파평윤공휘증지묘' (有明朝鮮徵士坡平尹公諱承之墓)라고 새기어 벼슬길에 나가지 않은 선비임을 나타내었다. 홍주의 용계서원, 노성의 노강서원, 영광의 용암서원에 제향 되었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윤중고택

중학당

자료제공 논산문화원이사 조 중 현



아계 이산해 영정

아계 “이산해” 유적

이렇게 출생한 아들이 아계이고 꿈꾼 장소의 이름을 따라 '산해'라고 지었다. 이 설화는 재미있는 옛날이야기가 아니고 국내에서 발행된 유명한 사전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충남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에는 아계 이산해의 유적지가 있고 문화재로 내려오고 있다.

이산해(李山海 1539~1609)조선 중기 문신. 자는 여수(汝受), 호는 아계(鰲溪). 본관은 한산(韓山). 1561년(명종 16) 식년문과에 급제, 이듬해 홍문관정자가 되었다. 그 뒤 부수찬·병조좌랑 등을 거쳐 사헌부집의·동부승지·대사성 등을 지냈다. 1578년(선조 11) 대사간으로 서인 윤두수(尹斗壽)·윤근수(尹根壽) 등을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대사헌·우찬성·병조판서 등을 거쳐 1588년 우의정이 되었는데, 이때 동인이 남인·북인으로 갈라지자 북인의 영수로 정권을 잡았다. 1590년 영의정이 되었으며, 종계변무(宗系辨誦)의 공으로 광국공신 3등에 녹훈되고 아성부원군(鰲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이듬해 정철(鄭澈)이 건저문제(建儲問題)를 일으키자 아들 경전(慶全)으로 하여금 정철을 탄핵하게 하여 유배시켰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하여 개성(開城)에 이르렀을 때 양사(兩司)로부터 나라를 그르치고 왜적을 침입하게 했다는 탄핵을 받고 파면되었다. 그 뒤 풀려나와 1595년 영돈녕부사가 되었는데 북인이 다시 분당되자 이이첨(李爾瞻)·정인홍(鄭仁弘) 등과 대북파가 되었다. 1599년 영의정에 올랐으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1601년 다시 부원군에 봉해졌고, 선조가 즉자 원상(院相)으로 국정을 맡았다. 서화와 문장에 뛰어났으며, 선조조 문장팔가의 한 사람이다. 저서로 아계집(鰲溪集)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이산해 불천지위사당

아계 이산해의 영정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97호이고 충남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불천지위사당에 모셔져 있으며 묘소와 함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아계 선생의 탄생 비화

그의 아버지인 이지번이 명나라 사신으로 산해관에 유숙할 때 하루는 집에 있는 부인과 동침하는 꿈을 꾸었다. 공교롭게 도수 천리 집 밖에 있는 부인도 같은날 남편과 운우지정을 나누는 꿈을 꾸고 수태하게 된다.

집안에서는 여자 혼자 아이를 가졌다 하여 부인을 내치려 했으나 시동생인 토정 이지함의 만류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 당시 중국을 다녀오려면 몇 달에서 1년 이상을 걸릴 때였다. 이지번이 귀국하여 꿈꾼 사실을 말하고 날짜까지 일치하게 되자 결백은 입증되었다. 이렇게 출생한 아들이 아계이고 꿈꾼 장소의 이름을 따라 '산해'라고 지었다.

이 설화는 재미있는 옛날이야기가 아니고 국내에서 발행된 유명한 사전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삼신도(三神島)

이산해의 무덤이 있는 마을 입구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는 흙으로 만든 3개의 작은 섬이 있으며 그 위에 나무 한그루씩이 자라고 있다.

이산해의 글 가운데 '선경을 동경하는 글'이 많아서 삼신도를 만들었다고 한다. 흔히 이것을 삼신도라 하여 도가의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풍수학적 안목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 풍수무전미(風水無全美)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흠없는 명당은 없다는 뜻이라 한다.

이곳 역시 흠이 적지 않은 곳이라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삼신도를 세웠다 한다. 산시도 옆에는 아계의 신도비가 있는데 번암 채제공이 찬하고 석봉 한호가 글을 썼다고 한다.



삼신도(三神島)

자료제공 예산 정재봉 기자

채제공 선생

소재지: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146
지정번호: 보물 제1477-2호 (2006.12.29)

금관조복 영정은 그리 많지 않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영정의 우편상에는 묵서기록이 있는데, 병조판서 관위에 오른 번암의 65세때 진영이다.



채제공 선생 영정

화성면 소재지에서 북동쪽으로 약2km 정도의 거리에 구재리 동두말 마을이 있다. 이 마을 남쪽에 표고 106m의 아산이 있는데, 이 산 남향사면 하단부에 채제공 선생 영정을 모신 상의사가 있다.

유학 채제공(1720~1799)은 영·정조의 명신으로 영의정에까지 이르렀다. 번암 채제공은 홍주 구봉산하 어재동, 즉 지금의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어재동에서 출생하였다. 채제공 선생의 영정은 1792년(정조8년) 병조판서 관위에 오른 번암(樊巖)의 65세때 진영이다. 영정은 후손이 1824년에 그 출생지인 화성면 구재리에 영당을 건립하여 상의당이라 하고 영정을 봉안하여 오다가 중간에 황폐되었다. 그 후 1989년에 화성면 구재리에 다시 영당인 상의사를 재건하고 영정을 봉안하였는데, 2006년 12월 29일 보물 제1477-2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영정은 금관조복(金冠朝服)을 한 정면관조의 좌상의 자세를 하고 있다. 오양관(五梁冠)·적초의(赤衣)·적상(赤裳)·폐슬(蔽膝)·운학금 후수(雲鶴金 後綬)·서대(犀帶)·패옥(佩玉)·아홀(牙笏)·흑피혜(黑皮鞋)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안면은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 왼편의 이타(耳朶)가 완전히 들어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 수척한 얼굴, 흰수염을 보이는 노옹재상(老翁宰相)의 영상(影像)이다. 금관조복 영정은 그리 많지 않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영정의 우편상에는 묵서기록이 있는데, 병조판서 관위에 오른 번암의 65세때 진영이다. 작자는 도화서(圖畫署)의 화원(畫員)인 이명기(李命基)의 그림으로 전해오고 있다.

자료제공 청양문화원



500년 전통의 가문(家門)을 만나다

구형면 내현리 거북이 마을은 보개산 속에 폭 파묻혀있다. 마을 이름은 마을이 거북이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보개산에 신자해 있는 대부분의 전설과 문화유적들은 거북이마을과 뒷산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거북이 마을은 보개산 문화유적의 산실이나 마찬가지이다.

거북이 마을은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 마을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문화적인 가치가 더욱 높다. 거북이 마을은 예부터 전해 오는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특히 담양전씨 문중의 문화유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석천한유도(石泉閑遊圖)-김희겸(金喜謙)작

한 집안 일곱 장수가 태어난 유래

거북이 마을에는 담양전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옛날에 담양전씨 집안 3대에 걸쳐서 일곱 명의 장수가 탄생한 전설이 재미있게 전하고 있다. 옛날에 담양전씨 선조 중에서 홍주영장을 지낸 분이 있었다. 이분의 부인은 토정비결로 유명한 토정 이지함의 6세손인 한산 이씨였다. 한산이씨는 이곳으로 시집와서 여러 해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여 친정으로 쫓겨 갈 상황에 처해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으니 친정으로 돌려보내야하겠다는 의사를 한산이씨의 부모에게 전했다. 친정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내딸아이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시집갈 때 보낸 혼수품을 한번 살펴보시지요."하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한산이씨의 혼수품을 살펴보았다. 혼수품 가운데에는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놓은 밥그릇이 하나 있었다. 밥그릇은 보통사람들의 밥그릇보다도 몇배는 더 들어가는 큰 양푼이었다. "이게 웬 밥그릇이냐?"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한산이씨에게 물었다. 한산이씨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못했다.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다 그쳐 묻은 후에야 간신히 대답했다. 한산이씨는 여자 몸이지만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좋았다. 우람한 체구를 유지하려면 섭취해야 할 음식도 상당한 양이 필요했다. 하지만 가난한 벼슬아치에게 시집와서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집안 어른들을 봉양하고 나면 며느리가 먹을 음식은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였다.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보내 준 큰 밥그릇을 꺼내놓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결국 한산이씨가 임신 못하는 이유는 영양실조인 셈이었다. 사정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며느리가 배를 굶지 않도록 배려했다. 그 후 한산이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첫째 아들을 낳았다. 한산이씨가 큰아들을 낳고 나서 나라에 큰 흉년과 기근이 들었다.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살기 어려운 시절이 닥쳐왔다. 자연히 한산이씨도 배를 굶으며 하루하루 버텼다. 영양실조로 인해 또 임신이 되지 않았다. 지난 경험으로 보아 영양 섭취만 된다면 임신이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한산이씨는 다시 임신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밤마다 집 뒤 밀밭으로 나갔다. 넓은 밭에서는 푸릇푸릇한 밀이 이삭을 내밀고 통통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밀이 완전하게 익으려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둘째 아이를 갖겠다는 한산이씨

의 마음은 하루가 급했다. 익지 않은 풋밀의 이삭을 따서 양손바닥으로 비비기 시작했다. 밀 이삭에 붙은 끼떡을 입으로 붙여 내고 알곡을 골라내었다. 영근 밀밭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이렇게 허기를 면하는 데는 밀 한 고랑이 모두 없어졌다. 한산이씨는 그 뒤로도 밤마다 밀 한 고랑씩을 먹었다. 그 효험으로 둘째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한산이씨가 낳은 아들은 4형제였다. 4형제 모두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었다. 아마도 한산이씨의 체형을 타고난 모양이었다. 큰아들 전운상은 삼도통어사 겸 경기수군절도사를 지냈고 둘째 아들 전일상은 경상좌도병마절도사를 지냈으며 넷째 아들 전천상은 여주목사 겸 광주진영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셋째아들은 단명하여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들 4형제가 낳은 아들들 세 명도 직위가 높은 무관을 지냈다고 한다.

전일상 장군과 석천한유도(石泉閑遊圖)

전일상 장군은 어려서부터 담력이 세고 힘이 세었다고 한다. 전일상 장군이 1741년에 삼화방어사로 부임할 때의 재미있는 일화 하나가 전한다. 삼화방어사는 모두가 부임하기를 꺼려하는 자리였다. 부임하는 수령들마다 번번이 죽는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이었다. 밤마다 요괴가 장난을 하고 심술을 부려서 일어나는 사고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무예와 담력이 뛰어난 장군을 특별히 발탁하여 보낸 것이었다.

전일상 장군은 부임하는 첫날부터 관사의 모든 시종꾼들을 물리쳤다. 혼자 태연자약하게 책을 읽으며 밤을 보냈다. 몇날 며칠이 지나도록 주변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사람들은 장군의 담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야 귀신출몰이 뜬 소문임을 알고 안심하며 일을 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전일상 장군의 담력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일화이다.

전일상 장군과 관련하여 영정이 전하고 있다. 전일상 장군의 영정은 조선시대의 화가 김희겸(金喜謙)이 그렸다고 한다. 충청남도 문화재 제127호이다. 한편 거북이마을 담양전씨 문중에는 '석천한유도(石泉閑遊圖)'가 전하고 있다. 석천한유도는 석천 전일상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그림이다. 넓은 정자에서 호기를 자랑하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경을 표현한 그림이다. 장군의 무인다운 우람한 체구와 호방한 기질이 한눈에 보이는 듯하다. 누마루가 있는 정자에서 한가롭게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 사생적인 필치로 표현되어 있다. 한복 차림으로 앉아서 패도(佩刀)를 가슴에 걸어놓고 매를 손등에 올려놓은 채 여인들의 시중을 받고 있다.

누마루로 오르는 두 여인이 술병과 과일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으며 정자마루에서는 두 여인이 거문고와 연주를 올리는 모습도 보인다. 정자 아래에서는 개 두 마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마루 위를 올려다보고 있다. 정자 지붕 위로 늘어진 버드나무와 오동나무 가지가 각각 운치를 더하고 있으며 정자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있다. 석천한유도의 중요한 의미는 등장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당시의 복식사와 양반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석천한유도는 풍속도 중에서도 매우 오래된 작품으로서 당시의 문화사나 무반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풍속화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제작연대와 대상인물의 신원이 확실하여 풍속화의 정확한 출현시기와 성격 등을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자료제공 홍성 김정현 (동화작가)

이원면 벧가리대 놀이

한편 농악대 (두레군)들은 벧가리대를 세우는데 마을 샘 부근에 자리를 정하고 뒷산에 가서 소나무 또는 대나무 를 길이 8m정도를 베어서 상순까지 한마디를 자르고 짚으로 동아줄을 다리는데 사슬을 달아 디린다.



禾竿祭(벧가리대놀이)의 유래

옛부터 지방곳곳에 전승(傳承)되어오는 향토민속(鄕土民俗) 으로 농가에서 정월 14일이 되면 소나무를 베어다가 마당 한복판에 세우고 그 위에 짚을 묶어서 쌓아 기장(麒麟) 을 만든 다음 벧.조.피.기장 등의 이삭을 꽂아 두고 장간(長竿)위에 목화(木花) 를 늘어놓는데 이것을 벧가리대 또는 난가리대 라고 부른다. 이렇게 쌓은 난가리대는 두었다가 2월 1일 아침 일찍 철거하는데 난알이 이렇게 많도록 풍년이 들라는 기원이다. 난가리대를 헐기에 앞서 섬이나 가마니 같은 것을 가져다 곡물을 넣는 시늉을 하면서 큰소리로 " 벧가 몇 만 석이요 " " 조가 몇 천 석이요 " " 콩이 몇 백 석이요 "하고 소리쳐 마치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멋대로 외친다.그러면 그 해에 풍년이 들어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고 한다. 난가리대를 만들어 놓는 날에는 키가 작은 사람은 남의 집 방문을 삼가야 한다. 왜냐하면 난가리대를 만든 14일에 찾아오는 손님의 키가 작고 크고에 따라서 당년 농작물의 성장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즉 키가 큰 손님이 오면 오곡이 모두 크게 잘 자라지만 키가 작은 손님이 오면,곡물도 왜소해서 자라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날 여인이 아침 일찍 찾아오면 재수가, 없다고 전하므로 여인의 외출은 금기도 되어 있다.

현재(現在) 태안군 이원면에도 매년(每年) 행사(行事) 를 하고 있다. 이 놀이는 그해의 농사가 시작되기 전 (음 1.14) 에 마을 입구에 모닥불을 피워 1년 액운(厄運) 을 몰아내고 논둑 밭둑에 지불을 놓아 1년 농사에 병충해를 없애며 지붕에는 노래기 침이라고 솔가지를 켜어 두고 지신밧기로 집 주위를 밟고 내 땅늘리기 땅찍기 라고 하여 막대로 땅을 그려 나가면서 " 이것도 내땅 " 이라고 소리친다.

한편 아이들은 초저녁부터 띄우는 연을 내보낸다. 즉 액운(厄運)을 띄워내 보낸다는 뜻이다. 또는 메텔이로 땅을 쳐나간다. 뒤제기 방지책으로 겨울철에 팽창되었던 땅이 녹으면서 들떠있는 땅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다.한편 농악대 (두레군)들은 벧가리대를 세우는데 마을 샘 부근에 자리를 정하고 뒷산에 가서 소나무 또는 대나무 를 길이 8m정도를 베어서 상순까지 한마디를 자르고 짚으로 동아줄을 다리는데 사슬을 달아 디린다.

동아줄은 삼방(三方)으로 매어 세우고 말뚝을 치고 맨다.

단단히 매고 창호지로 오곡(五穀) 을 한 주먹씩 싸서 벧가리대위에다 달아 매어둔다. 이리하여 벧가리대는 세워진다 2월 1일은 천상에서 영등할머니가 하강(下降) 하는 날이다. 영등 할머니는 조화가 무궁무진하다하여 소원성취의 제를 지낸다. 2월 1일은 머슴에 생일 (머슴의 날)이라고도 한다.

주인들은 머슴의 사기를 돌아주고 동민(洞民)들의 화합과 단결(團結)을 위하여 각 가정에 술과 음식(飮食)을 차려 내준다. 농부들은 풍장을 치며 대샘으로 가서 흥겹게 샘쪽에 서서 풍장을 한참친다.상쇠가 큰소리로 " 물주시오 " " 물주시오 " 하면 전원 합창으로 " 뚫어라 " 뚫어라 " 한 다음 다시 풍장을 흥겹게 춤추며 벧가리대 주위를 돌면서 흥을 돋군다.



한편, 벧가리대 밑에 자리를 깔고 잿상을 차린 다음 헌관은 네에 고령자나 혹은 이장(里長) 이나 제주(祭主)가 되고 목욕재개하고 집사(執事) 2인, 축관(祝官) 1인이 제를 지낸다. 제주(祭主)분향(焚香)하고 제주(祭主) 일배(一盃)를 올리고 전원(全員) 부복(俯伏) 하고 독축(讀祝) 한다. 농악대원이 후열에 서면 독축을 읽고 일어나서 재배(再拜) 한다.단배 (單盃) 로 제가 끝이 나면 집사(執事) 1인이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바가지에 담아서 동서남북(東西南北)으로 회식하는데 집사가 큰소리로 "고수래 " "고수래 " "오고가는 객귀객신은 다 먹고 물러가거라 " 하며 사방으로 바가지에 든 제물을 던져준다. 이어서 음복을 하며 각 음식을 나누어 먹고 나서 흥겨운 농사(農事) 놀이를 한다. 한편에서는 벧가리대를 높히고 오곡(五穀) 주머니를 풀어본다.

무슨 곡식이 싹이 많이 났나를 보고 그해 농사에 풍흉(豐凶)을 짐작한다. 동아줄은 작두로 잘라서 섬에다 담아서 각자 가져간다. 액운도 없어지고 농사에 풍작 한다고 해서 서로 나누어 가져가는데 섬에 담은 동아줄은 집안으로 가지고 간다. 이리하여 화간(禾竿) 제는 끝이 나고 농악대는 집집마다 다니며 지신 밟고 덕담(德談) 꽃반을 요구하는 가정을 돌게 된다. 각 가정에서는 음식을 내놓고 현금도 쌀도 준다 밤새도록 즐기.

며 걸립(乞粒) 하여 번 돈과 쌀은 비로 쓰여 진다. 꽃반하는 식은상에다 쌀을 수북이 담고 그 쌀 위에다 대주(大主) 의 식기에 쌀을 담아 쌀 위에다 얹어 놓고 초를 켜고 불을 켜고 수저를 켜고 실을 한타래 감아놓고 현금도 놓아주고 정화수 한잔을 올리고 대청이나 마루위에 차려 놓은 후 농악대원이 앞에 늘어서서 상쇠가 덕담을 외우며 상옆에는 여자나 남자가 두사람이 박자에 맞추어 춤을 춘다. 이리하여 꽃반이 끝이 나면 돈과 쌀을 가져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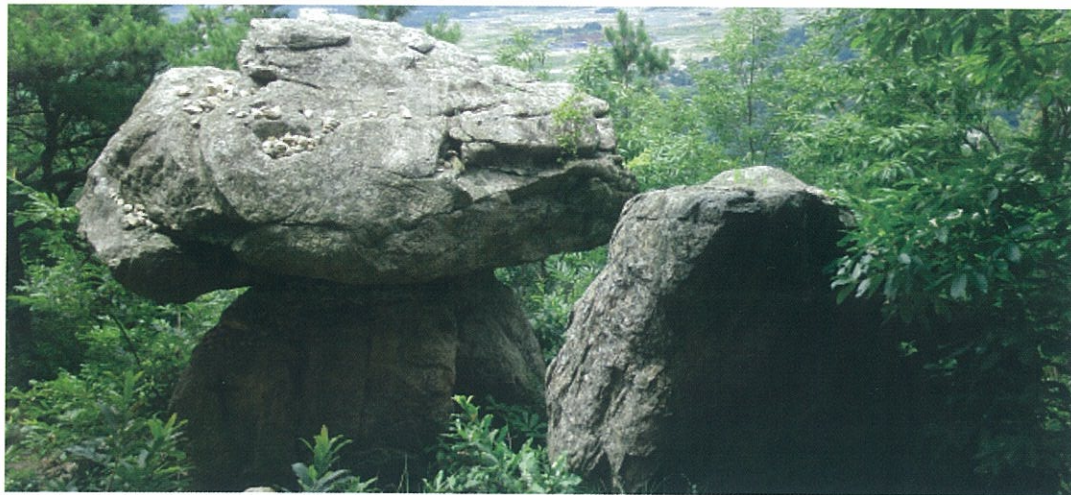
자료제공 태안문화원

태안군 이원면 관리에서는 매년 벧가리대 놀이가 시연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소 태안군 이원면 관리 1구 노인회관
일시 매년 음력 2월 1일 11:00경



며느리 바위

훗날 사람들은 이 바위를 며느리 바위라고 부르면서 이루지 못한 일이 있으면 며느리 바위 밑에 와서 촛불을 켜놓고 정성을 다하여 치성을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연기군 남면 양화리는 부안 임씨들이 오래전부터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는 마을로서, 마을 앞에는 금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다. 마을 뒷산은 전월산이라 불리고 있는데 전월산을 먼곳에서 바라보면 마치 한자의 수풀림(林)자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한다. 이 곳 산중턱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바위가 있는데 여인이 뒤돌아 보는 모습으로 일명 머느리 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이 머느리 바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해 온다.

이주 먼 옛날 이 곳에는 “장지소”라는 연못이 있었다. 연못 옆에는 큰 부자집이 있었는데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한 부자집이었고 동네사람 대부분이 부자집 논밭을 경작하며 세경을 바치면서 살아가는데 해마다 부자집의 곡간은 쌀 가마가 그득히 쌓여 재산은 날이 갈수록 불어 났다. 그런데 부자집 인심은 고약하여 소문이 날 정도였다. 부자집 식구 모두가 욕심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주인대감만이 유독 욕심이 많았다. 부엌에서 하인들이 밥을 지을 때 먹나, 안 먹나를 감시하고 심지어는 소작농의 논과 밭에 가서 농작물의수확상태를 점검하여 가을걷이 후 세경이 적으면 호통을 치면서 더 내놓도록 하는 소문난 구두쇠였다.

구두쇠 부자집에 경사가 났다. 이웃 마을에서 새색시가 들어온 것이다. 며느리는 소문난 효녀였다. 집안이 가난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소작농가였지만 천성이 착하여 다들 며느리 감으로 탐을 내던 터에 부모가 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하나 약을 구할 돈이 없다 중매장이의 소개로 부자집에 딸을 시집보내고 양식과 돈을 얻어 아버지 병도 고치고 생활을 조금은 풍족하게 할 수 있었다.

착한 며느리는 시댁에 들어와 이랫사람들을 위해 베풀었다. 시아버지 몰래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일에 부딪치면 슬기롭게 해결해 주는 고마운 상전이였다. 어느 날 이곳에 스님 한분이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하기를 권했다. 낮잠을 자던 주인대감은 목탁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무슨 일냐고 물었다. 하인이 두엄을 치다가 말고 웬 스님이 시주하기를 권한다고 이르자 주인 대감은 두엄을 치는 하인의 쇠스랑을 뺏더니 두엄을 한 삽 떠서 스님의 바지가랑이에 넣어주었다.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던 며느리는 기겁을 하며 숨었다가 스님이 마을을 벗어나려 할 때 쌀 한 되박을 들고 쫓아가서 시아버지의 행동에 사과를 하였다. 스님은 며느리의 기특한 행동에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내일 모래 뒷산 전월산에 올라가 정상까지 가 보시오. 가는 도중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아니됩니다. 어떠한 소리가 나더라도 앞만 보며 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스님은 어데론가 사라졌다. 며느리는 기이한 일이라면서 스님이 가 르쳐 준 날에 전월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은 높고 가파랐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산을 오르려는데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천둥번개가 치는 것이었다.

며느리가 오르는 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소리로 보아 산 아래 마을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듯 했다. 며느리는 불안하 였다. 산 아래 마을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며 집은 무사한가 당장 뒤돌아 확인하고 싶었지만 스님이 한말이 생각 나서 한발 한발 산 정상상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산 중턱에 올랐을 때 이번에는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는 이 비명소리가 분명 마을 시택 쪽에서 났기 때문에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마을이 온통 물속에 잠기어 마치 넓은 바다의 작은 섬에 와 있는 것처럼 많은 비가 내려서 마을과 시택은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뒤돌아 본 며느리의 모습이 바위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스님의 말을 거역하여 바위로 변해 그 자리에 우뚝 솟아 있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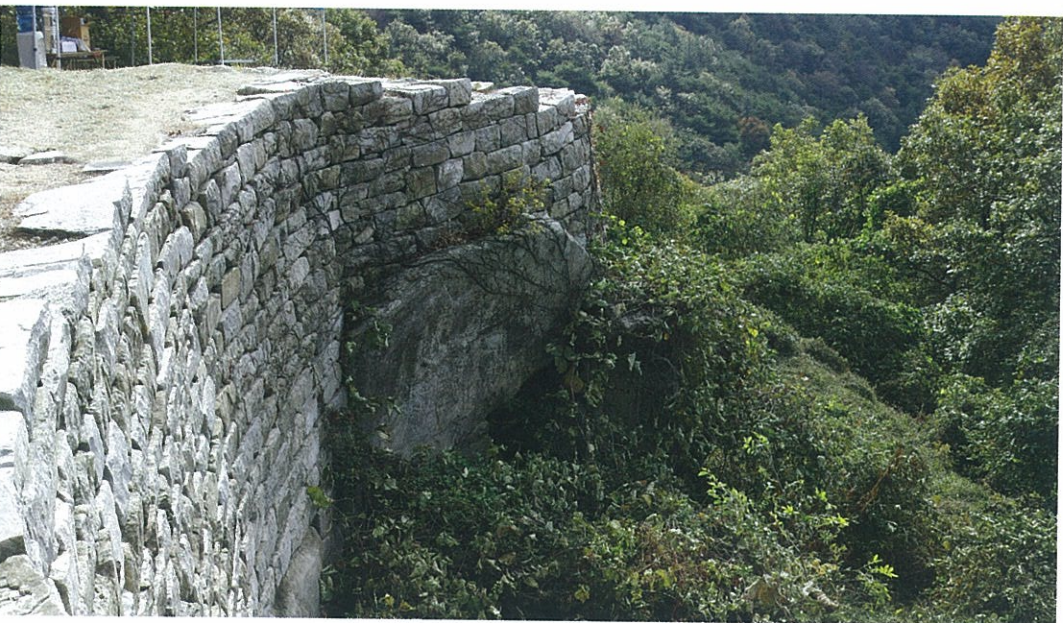
훗날 사람들은 이 바위를 머느리 바위라고 부르면서 이루지 못한 일이 있으면 머느리 바위 밑에 와서 촛불을 켜놓고 정성을 다하여 치성을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며느리 바위

[illegible]

묘순이 바위 전설

지금도 묘순이 바위에 가서 돌로 이바위를 두드리며 “묘순아.”하고 부르
면 묘순이가 “네”하고 대답을 하며 “종콩밥이 원수지?”하면 바위에서
“네”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한다.



충남 예산군 대흥면과 광시면 일대에 있는 봉수산 정상에는 임존성이 위치하고 있다. 이 임존성 중간지점에 묘순이 바위라는 거대한 바위가 있다.

옛날 이 근처에 힘이 장사인 묘순이와 갈동이란 남매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남매지간으로서 힘이 장사였으므로, 항상 힘 자랑하는 일만을 하면서 자라고 있었다. 갈동이 산에 가서 통나무를 잘라서 한꺼번에 메고 돌아오면, 묘순이도 갈동과 똑같은 일을 해냈다. 장난기가 심한 갈동이 하루는 썰가마 두 짝을 어깨 거드랑이에 끼고 백리 길을 달려왔을 때에도 묘순이는 똑같은 일을 능히 해냈다. 그들이 힘자랑을 하면서 자라는데, 조금도 양보심이 없이 서로 힘만을 자랑하자, 어머니는 그들에게 내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다. 내기란 갈동이는 쇠나막신을 신고 한양을 다녀오는 것이고, 묘순이는 갈동이와 쇠나막신을 신고 한양을 다녀오는 동안 성을 쌓는 일이었다.

어머니가 내기를 제안하자, 묘순이가 말하기를 이번 내기에서 지는 편은 죽어야 한다고 극단적인 말을 하자, 갈동이 좋다고 함으로써 그들의 생사를 건 내기는 시작되었다. 내기가 시작되던 날 갈동이는 목직한 쇠나막신을 신고 여장을 차린 채 나왔으며, 묘순이는 성벽쌓기에 마땅한 옷차림으로 널찍한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그들은 어머니의 신호에 따라 일제히 내기를 시작하였다. 갈동이는 무거운 쇠나막신을 신고 서서히 한양쪽으로 달려 갔으며, 묘순이는 부지런하게 돌을 날라 성을 쌓기 시작했다. 갈동이는 한양까지 가는 동안 한번도 잠자리에 들지 않고 서서 잠을 자며 걸었다. 묘순이는 성벽을 빨리 쌓기 위해서 큰 돌만 골라서 앞치마에 날랐으며, 땀이 많이 흘러도 물도 마시지 않고 일만 했다. 갈동이는 걸으면서 생각하기를 자기가 아무리 장사지만 어렵없지 하고 생각하였으며, 묘순이는 묘순이대로 “홍, 제가 나를 이겨, 어렵도 없지. 아마 수원쯤 갔을까? 흥 두고보라지.”이렇게 생각하며 성을 쌓아 나갔다. 성을 쌓는 묘순의 힘은 정말 장사였다. 큰 돌을 한꺼번에 번쩍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곱게 성을 쌓아 나갔다. 그때 어머니는 남매중에서 누구 하나가 죽어야 하는데,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은근히 걱정이 생겼다. 아들보다는 딸이 죽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며 성벽을 바라보았다.

성을 벌써 많이 쌓아져 있었다. 갈동이는 한양을 돌아서 귀로에 올랐다. 갈동이는 뛰기 시작했다. 이렇게 늦게 건다가는 묘순이에게 저서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묘순이는 성벽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양에서 내려오는 길을 바라보았다. 아직 그길엔 갈동이 보이지 않았다. 이때 어머니는 성벽이 다 쌓아지는 것을 보고 놀랜 나머지, 갈동에게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묘순이가 좋아하는 종콩밥을 만들어서 묘순이를 불렀다. “묘순아, 그만 쉬어가

며 하거라. 갈동이는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도 성을 다 싸놓고 쉬어야지요.” 묘순은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일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때 어머니는, “묘순아, 네가 좋아하는 종콩밥을 했다. 먹고 해가지.”하고 소리치자, 묘순이는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종콩밥이에요, 그럼 먹어야지.”하고 산을 내려왔다. 묘순이는 산을 내려와서 물올한모금 마시고 종콩밥을 먹기 시작했다. 묘순이가 종콩밥을 맛있게 먹고 거의 사발이 비어갈 때 갈동이는 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이때 묘순이는 그 쪽을 바라보고 “어머!”하고 사발을 내던지고 마지막 하나 남은 돌을 쌓기 위하여, 아래에서 큰 돌을 치마에 안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갈동이 약속한 지점에 거의 도착할 때, 묘순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뎈 그 돌에 깔려 죽고 말았다. 그래서 내기는 갈동이 이겼다. 어머니는 슬퍼하면서 묘순이를 성벽쌓던 곳에 파묻었다. 지금도 묘순이 바위에 가서 돌로 이바위를 두드리며 “묘순아.”하고 부르면 묘순이가 “네”하고 대답을 하며 “종콩밥이 원수지?”하면 바위에서 “네”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한다.

묘순이가 마지막 성벽을 쌓기 위하여 들고 가던 바위를 “묘순이 바위”라 부른다.

자료제공 예산문화원

문헌서원



가정 이곡(1298~1351)과 목은 이색(1328~1396)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이 서원은 고려말의 대학자 가정(稼亨) 이곡(李穀)과 목은(牧隱) 이색(李穡) 두 분을 배향(配享)하기 위하여 조선 선조(宣祖) 27년(1594)에 이곳에 건립되었다. 이곡은 고려 후기 학자로서 이색의 아버지이다. 원나라의 과거에 급제하여 실력을 인정 받았고, 문명을 떨쳤다. 이색은 고려 후기 문신이며 학자이다. 원·명교체기에 친명정책을 지지하였고, 유교의 입장에서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의 문하에서 권근, 김종직, 변계량 등을 배출하여 조선 성리학의 주류를 이루게 하였다. 문헌서원은 선조 27년(1594)에 세웠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다. 그 뒤 광해군 2년(1610)에 한산고촌으로 옮겨 다시 세웠다. 이듬해에 나라에서 문헌이라는 현판을 받아 사액서원이 되고 인재 이종학·음애 이자·배옥현 이개 등을 추가로 모시게 되었다. 고종 8년(1871)에는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폐쇄되었다.

그 후에도 처음 문헌서원이 있던 곳에 단(壇)을 만들고 분향해 오다가 1969년 지금 있는 자리에 다시 짓고 문양공 이종덕 한 분을 더하여 여섯 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해마다 음력 3월과 9월에 제사를 올리고 있다.

자료제공 서천문화원



문화재자료 125호

소재지: 충남 서천군 기산면 영모리 10

지정일: 1984. 5. 17

광덕사 노사나불괘불탱 (廣德寺 蘆舍那佛掛佛幀)



보물: 제1261호
명칭: 광덕사노사나불괘불탱(廣德寺蘆舍那佛掛佛幀)
분류: 유물 / 불교회화 / 탕화 / 불도
수량/면적: 1폭
지정일: 1997.08.08
소재지: 충남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640 광덕사
시대: 조선시대
소유자: 광덕사
관리자: 광덕사
광덕사 노사나불괘불탱(廣德寺 蘆舍那佛掛佛幀)

괘불이란 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열 때 법당 앞에 걸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대형 불화를 말한다. 광덕사의 이 괘불은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그린 것으로, 전체적인 구도는 본존인 노사나불을 다른 형상보다 크게 그려 중앙에 배치하고, 좌우에 2대 보살, 2대 제자, 사천왕을 그려 넣었다. 붉은색과 녹색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배경에는 군데군데 구름을 그려 넣어 밝고 선명한 채색과 더불어 화려함을 더해준다.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이대보살·이대제자·사천왕, 화불로 구성된 군도형식이다. 본존의 형상은 타원형 얼굴에 과거칠불 상징의 화불이 있는 화관을 쓰고 있는데 화불로 인해 머리가 무거워 보이고 생동감이 뒤떨어져 도식적이다.

원형의 광배에 신광을 생략하고 두손은 어깨 부근에서 설법인의 수인을 하였으며 넓게 파여진 가슴에는「만(卍)」자가 크게 묘사되었다. 그리고 승가리에는 금니를 묘사하였는데 적색의 가사와 매듭, 옷깃의 겹등근 문양 등과 어우러져 화려함이 돋보인다. 이대보살 중 문수보살은 경책을 엮은 여의(如意)를, 보현보살은 연꽃을 들고 있는 전형적인 도상으로 역시 생동감이 없는 도식적인 모습이다. 이대제자인 아난과 가섭존자는 원형두광에 변형된 설법인과 지권인의 수인을 취하였다.

제석과 범천이 생략된 좌우대칭의 비교적 간략한 구도로 하단에는 사천왕이 배치되고 상단의 시방제불은 서운(瑞雲) 사이 좌우로 각각 5구씩 배치되어 있다. 본존의 형상은 마곡사 석가모니괘불탱(1687년작, 보물 제1260호), 장곡사 미륵불괘불탱(1673년작, 국보 제300호)과 같은 과거칠불을 상징하는 화불을 안치한 보관을 썼지만 수덕사 영산회괘불탱(1673년작, 보물 제1263호), 신원사 노사나불괘불탱(1644년작, 국보 제299호)과 같은 설법인을 취한 모습의 도상으로 보아 노사나불임을 알 수 있다. 채색은 짙은 홍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녹색·회색·백색 등 원색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금색의 사용으로 인해 화려함을 더해 준다. 공간처리에 있어서도 곳곳에 서운을 배치하여 밝고 선명한 채색과 더불어 화려함을 더해준다.

문화재청 자료참고 編集: 法泉 許靑堉 沙門

자료제공 아우내문화원

위충암(衛忠岩)

당시 아산지역의 선비들이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이 비석을 세웠다 한다.



우리 아산은 임진왜란 당시 구국의 명장 이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배출한 성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매년 탄신일인 4월 28일을 전후하여[아산성웅이순신축제]라는 행사를 개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가 하면 순천향 대학교에는[이순신 연구소]라는 연구단체까지 있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많은 결과물들이 발간되어 있다. 이와 함께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된 많은 유적 유물들이 국보·보물 등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 이순신 장군이 노랑해전에서 숨을 거두신 후(1598년 11월 19일(음)) 남해 충렬사 뒤편으로 옮겨졌다가 당시 삼도수군 통제영이 있던 고금도에 모셨고, 1599년 2월 11일 아산으로 모셨다는 기록은 관련 문헌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산으로 옮겨진 유해를 모셔 장례를 치렀다는 위충암(衛忠岩)에 대하여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덕수 이씨 후손이신 이종국씨(현재는 작고 하셨습니다)가 소장한 이순신 세가라는 기록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충무공 이순신 관련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아산으로 옮겨진 이순신 장군의 유해를 모셔 장례를 치렀다는 위충암(衛忠岩)! 그 바위가 바로 우리 아산 음봉면 산정리에 있다. 방송작가 이진이씨(이순신을 찾아 떠난 여행)이라는 인물 유적 답사기를 읽던 중 난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랐다. 어찌 이것을 여태껏 모르고 있는가?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2010년 7월 2일 장마가 시작되었다는 일기 예보와 함께 아침부터 비가 내린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위충암(衛忠岩)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꽉 차있었다.

이곳저곳 위치를 알만한 덕수이씨 후손되시는 분들께 전화를 한 후에야 가까스로 대략 위치를 알 수 있었다.

은양온천에서 45번 국도를 따라 음봉쪽으로 약 9.8km정도 가다보면 음봉 교차로가 나온다. 이곳에서 아산 온천로 이충무공묘소 방향으로 좌회전 하여 약 500m 정도 가면 둔포-영인 방면 아산온천 입구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좌회전 350m 정도 가서 산정리 11번길 방향으로 다시 우회전, 세멘포장 농로 길을 따라 약 220m. [음봉면 산정리 41-3번지와 41-1번지, 논의 둔덕! 길옆에 외로이 서있는 작은 바위하나]바로 위충암(衛忠岩)이다.

몽산리석가여래좌상 (夢山里釋迦如來坐像)

통일신라(統一新羅) 때의 작품



이 불상(佛像)은 몽산리의 몽산포해수욕장 부근, 태안군(泰安郡) 남면(南面) 몽산리(夢山里) 산 182번지 청계산 기슭에 죽사(竹寺/일명, 대절사)라는 옛 사지(寺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불상의 정확한 조성. 시기는 분명치 않으며 조성 수법(手法),이나 양식(樣式)으로 보아 약 7세기 이후인 통일신라(統一新羅) 때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상의 형태(形態)는 결가부좌(結跏趺坐) 한 항마인(降魔印)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얼굴이 훼손되어 있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며 통견(通肩)으로 된 법의(法衣)가 양어깨에서 배쪽으로 “U”자형인 형태로 늘어뜨려져 있다. 광배(光背)가 일부 손상되어 있으나 문양(紋樣)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보주형(寶珠形)인 광배에는 두광(頭光)을 양각(陽刻)하였으며 가운데는 원형(圓形)으로 8엽의 연화문(蓮花紋)을 새겨 넣었고 주위를 당초문(唐草紋)으로 장식하였다.

두광외의 신광(身光) 안에는 양쪽의 운문(雲文) 위에 앉아있는 비천상을 중심으로 다시 문문과 당초문으로 꾸미고 있다. 대좌(臺座)인 앙련좌(仰蓮座)에는 희미한 연꽃 무늬를 볼 수 있으며 일부가 손상되어 있다. 복련좌(覆蓮座)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중대석(中臺石)은 8각으로 각면(各面)에 안상(眼象)이 조각되어 있다.

특히 광배(光背)와 연화좌(蓮華坐)의 조각기법(雕刻技法)이 섬세함은 통일신라(統一新羅)시대의 수법(手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료제공 태안문화원



구분: 유형문화재 제122호 (1986. 11. 19. 도지정)
분류: 유물/불교조각/석조/불상
소재지: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 산 182
시대: 통일신라
규모: 화강석 높이: 103cm, 어깨폭: 53cm, 좌(坐) 폭: 83cm
수량: 1구, 소유자: 태안군, 관리자: 태안군

당시 아산지역의 선비들이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이 비석을 세웠다 한다. 비석은 화강암인데 원래 그곳에 있던 바위는 아닌 듯 하고 어느 곳에서 떼 낸 돌을 가져다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 하였다. 가장 높은 곳의 높이는 약 1.3m정도, 폭은 가장 넓은 곳이 1.6m정도이며, 두께는 가장 두꺼운 곳이 약 28cm정도였다.

길옆에 외로이 서있는 비석에는 세월의 무심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어른 손가락 굵기 만한 담쟁이 넝쿨과 이름 모를 잡초로 온통 뒤덮여 찾아내기조차 힘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잊혀진 흔적! 우린 이 바위를 찾기 위해 몇 번이나 그 부근을 헤메야만 했다. 비석은 낡았고 새겨진 글씨는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때 이 비석을 세우던 우리 아산의 백성들은 무척이나 애통해 했을 것이다.

이순신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조카 李舜(이분)이 쓴 [이충무공 행록]에는 당시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영구는 고금도에서 떠나 아산으로 돌아왔다. 연로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통곡하며 뒤를 따랐다. 선비들은 제물을 차리고 제문을 지어 곡하며 마치 친척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 했다.”(이충무공 행록) 이진이 작가의 -[이순신을 찾아 떠난 여행]에서 옮겨쓴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어머니와 상봉했다는 인주면 해암리 [계 바위]는 이미 널리 알려져 문화재 자료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산에서 장례를 치를 곳 위충암(衛忠岩)이곳은 이렇게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잔뜩 찌푸렸던 하늘에서 후두둑,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 위치를 찾는데 도움을 주신 덕수이씨 후손 이종우, 이재왕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제공 온양문화원



제30회 향토문화축제

금산인삼축제



제I장 축제 기본개요 및 성과

1. 2010년도 축제개요

- 축제명 : 제30회 금산인삼축제 -일시 : 2010년9월3일 (금)~9월12일(일)/10일간
- 장 소 :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 주 제 :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

2. 관광객 방문 성과

- 총75만명 (2009년 대비2%증가)
- 2008년(98만명)→2009년(73만명)→2010년 (75만명)

3. 경제적 파급효과

- 93,523백만원 (2009년 대비4%증가) - 인삼교역전 및 기타 : 16,000백만원
- 인삼약초판매 : 65,498백만원 - 숙박 및 식음비 등 : 12,023백만원
- 2008년(800억원)→2009년 (903억원)→2010년 (935억원)

4. 홍보결과 및 효과 (200억 이상의 홍보효과)

- 인터넷(178건)→신문(316건)→지역지(166건)→방송매체(30건)→해외매체(15건)

5. 예산절감 수범사례

- 운영대행사를 선정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기획, 운영 및 섭외
- 180,000천원의 예산에서 지출 90,205천원, 수입12,517천원(체험비) 총102,311천원예산절약

제III장 축제 주요지표 분석

1. 1인당 소비지출액 분석 (단위 :원)

- 1인당 평균소비지출액이 전체평균 89,620원 전년대비3,664원 증가(4.3%)
- 제30회 금산인삼축제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비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쇼핑비 48,152원, 교통비 17,862원, 식음료비17,379원, 숙박비 2,525원,유흥비2,363원(인삼약초류 구매가 중요한 지출항목)

2. 축제장 동반형태 분석 (단위 :1%)

- 방문객들의 동반형태 분석한 결과 가족단위 방문객이 전체51.4%로 핵심방문객층 형성
- 다음으로 친구와 함께26.7%, 단체와 함께가 16.4% 순으로 조사

3. 방문객 정보접촉 매체분석(단위 :%)

- TV가 38.7%, 친구 및 친척 구전이 24.5%, 인터넷이 12.3%이 주도매체
- TV매체중심의 홍보마케팅 매체전략이 중요하고 축제장 방문객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은대하여 재방문 또는 추천방문이 이루어 지도록 응대 필요

4. 방문객 거주지 분석 (단위:%)

- 대전지역이 37.7%로 핵심방문객시장으로 파악
- 다음으로 충남이16.1%, 기타지역 10.9%, 전북과 금산이 각각9.4% 전년 대비 서울/경기 지역이 감소한 요인으로 축제기간 서울지역 집중호우 환경요인 영향

제III장 축제의 성공요인 10가지

1. 안정된 행사장 구성

- 이벤트공간, 건강체험공간,공연공간, 휴식공간, 쇼핑공간, 전시공간 등으로 공간셋팅화
- ▶공간이용의 효율성과 연계성이 뛰어난 관람객 동선이 최적화 됨
- 메인 출입구 쪽에 인삼약초 토피어리르 설치하여 축제장과 인삼시장이 자연스럽게 연계

2. 업그레이드된 행사 구조를 설치

- 주무대의 구조 보완 : 초대형 트러스구조물 설치로 다양한 조면 연출가능
- 휴게시설 증대로 관람객 편의 도모 (원두막 쉼터)
- 텐트식 초대형 출입구 설치 :디자인적 차별화와 우천을 대비할 수 있는 안네테스트 셋팅가능

3. 자원봉사자와 지역기업/단체/기관이 주체가 되는 협력시스템

- 42개단체 2,700여명 자원봉사자의 부문별 헌신적 봉사활동
- 관내 시내버스, 택스,관광버스,화물차 등의 전면적 홍보협조
- (주)선양, 농협금산군지부, 한국타이어 등 기업지원
- 금수회, 의용소방대, 시각 장애인협회, 이장단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홍보지원

4. 타겟 및 지역별 철저한 홍보마케팅 전개

- 권역별 스포츠광고와 뉴스,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로 방송홍보 지원
- ▶ 충청권 (대전 KBS, 대전MBC, TJB, CMB 등)/영남권 (부산MBC, 부산방송, 울산MBC) 전국권 (YTN, CON, MBC, SBS드라마, MBC드라마 등)
-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로 홍보 및 모객효과 창출
- 지역지, 지방지, 중앙지, 잡지, 인터넷, 해외매체 등 총체적 매체전략 전개 (총700여건보도)

5. 다양한 먹거리 체험 및 판매코너 운영

- 인삼약초요리만들어먹기 : 인삼수수부꾸미, 홍삼편빔, 인삼약초전 등 추억의 전통음식과 인삼라떼, 인삼쉐이크 등 현대적인 인삼음료를 메뉴로 가미
- ▶ 다양한 계층 (어린이, 워킹인, 주부) 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와 휴식공간 제공
- 음식부스 : 전면적 카드수납과 메뉴/가격의 상세한 안내로 이용한 선택의 편의제공

6. 인삼과 건강의 테마가 반영된 킬러콘텐츠 개발

- 인삼정원, 인삼민속촌, 인삼떡메쇼, 인삼마당극 등 입구쪽부터 강한 인삼테마성 체험 유도
- 氣찬 생기하우스, 생명주배 미니올림픽, 건강소원의 벽 등 건강에 대한 경험을 다양한 형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

7. 금산의 자랑스런 전통문화가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운영

- 금산농악, 송계대방지게놀이, 농바우끄시기, 디딜방아뽕아놀이, 물페기놀이
- ▶ 금산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문화공연
- 금산인삼문화예술제를 통한 지역민의 문화역량 가능성 확인 및 향토문화의 재발견
- ▶ 풍각쟁이 판소리, 주부난타, 색스폰동호회, 소년소녀합창단 강처사 음악극 등

8. “축제의 성공”이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마케팅전략

- 국제인삼교역전 무역상담 및 시장개척, 현장판매
- ▶ 14개국 42명의 해외비이어 참가
- ▶ 무역효과(상담, 계약, 샘플구매) 13,042천달러/시장개척 1,400천달러/판매 785백만원
- 관광버스의 데이터 누적관리로 정확한 타겟마케팅 실시 : 재방문 유도와 인삼대량 구매
- 야간공연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으로 관광객 체류효과와 축제장 및 지역식당가 호황

9.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전 계층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 다양한 계층 대상의 각종 공연 및 경연이벤트 개최로 모객과 홍보 성공
- ▶ 토티페스타, 직장인밴드경연, 전국 주부가요제, 은빛한마음축제, 대학생인삼가요제 전국주니어니칭페스티벌, 전국 어린이 동요페스티벌, 전국건강댄스경연대회 등
- 스트레스제로관 및 생명주배 미니올림픽

- ▶ 부모와 동반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10. 해마다 질적/양적 완성도를 높여가는 읍면의 날 행사

- 각 읍면의 특성을 살리는 길놀이 프로그램 기획(특산물, 관광지 등)
- 오전부터 점심시간까지 인삼축제 분위기 성공적으로 조성 (인원과 호응)
- 신명의 살이있는 각종 무대공연 연출 (공연자와 출연자가 동시에 즐기는 무대)

▶ 향후 계획 및 방향

2011년 축제는 논산시 전역으로 축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내 관광지에서의 문화 예술 행사 강화 등 산업형 축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문화예술축제를 가미된 행사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한다. 논산명재 고택음악회, 산사음악회 등 관광 명소를 적극 활용한 문화 행사 부분이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이즘마 김치 담그기 대회, 어린이 축구대회, 소원 등 제작 등 젓갈 구매의 주 고객인 40~50대 주부와 미래 고객인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감성과 추억을 상기시키고, 시민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영 될 계획이라고 한다.

산업형 축제인 만큼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민간주체에서 일부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형태로 매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읍면동의 시민 참여율을 확대해 나가 축제의 독립성을 좌우하는 민간 주체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금산문화원

도원문화제(Dowon Cultural Festival)

도원문화제는 지역특산물인 복숭아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향토축제입니다.



(가) 도원문화제의 유래

문헌상 신라시대부터 복숭아 재배가 전래된 이후 우리 군은 1908년부터 복숭아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토질이 황토질로 복숭아 재배에 적합하여 당도가 높은 우수 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다. 도원문화제는 관내 문인들이 복숭아꽃이 만발한 아홉거리에서 시와 소설을 주제로 한 야유회 형식의 모임을 계기로 지역특산물인 복숭아의 꽃을 테마로 한 도원문화제가 탄생하여 매년 복사꽃이 만개한 4월에 향토축제로 자리하게 됐다.

(나) 년도별 추진상황

- 1985년 4월 : 제1회 도화문화제 개최(21년의 전충)
- 1986년 10월 : 도원문화제, 군민의 날 기념행사, 군민체육대회 병행 개최
- 1993년 4월 : 도원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병행 개최
- 2004년도 도원문화제(4. 17 ~ 4. 21 5일간)
- 2005년도 도원문화제(4. 15 ~ 4. 17 3일간)
- 2006년도 도원문화제(10.13 ~ 10.14 2일간)
- 경축 및 문화·예술행사로 가을예술제와 병행 실시
- 2007년도 제23회 도원문화제 (4. 20(금) 1일간)
- 전 군민과 함께 다양하고 내실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 2008년도 제24회 도원문화제 (4. 18(금)~19(토) 2일간)연기사랑스케치회
- 도원문화제 및 왕의 물 축제 병행 개최
- 2009년도 제25회 도원문화제 (4. 17(금)~18(토) 2일간)
- 도원문화제 및 왕의 물 축제 병행 개최



(다) 행사내용

문화제 태동에서 비암사의 백제대제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기에 백제를 시작으로 개막전날 전야제를 개최한다. 다음날 행사로는 복사꽃아가씨 선발대회가 개최된다. 군내에서 거주하는 여성들로 18세 이상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진, 선, 미, 정, 숙, 현, 인기, 포토제닉을 뽑는다. 이들은 일년 동안 연기군 미의 사절단으로 연기복숭아를 홍보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한다. 다음날에는 백수문학 주관 사생, 글짓기 대회가 아홉거리를 중심으로 복숭아밭에서 개최되고 각종 전시회가 군민회관과 문예회관에서 개최된다. 또 초청공연이나 국악공연이 개최되고 원조회 주관으로 걷기대회도 개최된다. 행사기간 중 일요일을 선택하여 아침 9시에 조치원역 광장에 각 읍면 상징조형물과 체육대회 참가 선수들이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한다. 또한 10시에 운동장에 도착하면 개회사에 이어 체육대회, 민속경기, 농악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로 하루 종일 축제를 연다.

1) 일시 : 복사꽃이 만개한 4월 중순

2) 장소 : 연기군 일원

(라)분야별 행사계획

행 사 명	내 용	장 소	주 관 단 체
도 전 골든벨	연기군과 관련된 문제와 일반상식문제 (군민누구나)	문예회관(주무대)	조치원청년회의소
연기군내 직장인 노래자랑	연기군내 기관, 기업내 직장인들을 위한 노래자랑	문예회관(주무대)	읍.면 (재 무 과)
군민화합 한마당	초청 연예인과 군민 한마당 잔치. KBS와 함께	문예회관(주무대)	도원문화제추진위원회
불꽃놀이	연기군내 기관, 기업내 직장인들을 위한 노래자랑	문예회관(주무대)	연기문화원
도원배 도민바둑대회	독동호인 친선 바둑경연대회	군민회관(전시실)	조치원바둑교실
백제대제	제 역대왕과 충령을 위한 제례	비암사	연기문화원
왕의 물 기원제 및 채수	○왕의 물 기원제 ○채수	전의면 관정리 (전의초수)	왕의 물 선양위원회

행사명	내용	장소	주관단체
군민사진촬영대회	복사꽃 및 도원문화제 행사장면	연기군 일원	연기사진작가회
열린문화체험 한마당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체험	문예회관(광장)	(사)한국청소년 마을연기군지회
왕의 물 어가가장 행렬	어가가장 행렬	조치원 역(광장)	왕의 물 선양위원회
“복사꽃” 한마음 축제	○군민과 함께 오픈 ○먹거리 장터 운영 등	문예회관(광장)	조치원청년회의소
백일장 개최	초,중,고학생 및 일반참여	문예회관(광장)	연기문학 동인회
사생대회 개최	초,중,고학생 및 일반참여	문예회관(광장)	연기사랑스케치회
길놀이 외 사물놀이 공연	길놀이 후 테이프 커팅	문예회관(광장입구)	조치원청년회의소
왕의 물 진상 재현(연극)	전의초수에서 채수한 왕의 물 진상 재현	문예회관(주무대)	왕의 물 선양위원회
복사꽃아가씨 선발대회 (충남)	진, 선, 미, 정, 숙, 현 선발	문예회관(대강장)	연기문화원
으뜸숨씨경연대회	관내 어르신 취미 동아리 경연	문예회관(주무대)	(사)한국청소년 마을연기군지회
관내청소년동아리 장기경연대회	관내 중,고,대학생 동아리공연	문예회관(주무대)	왕의 물 선양위원회
영어야 놀자 잉글리쉬페스티벌	초등학생 참여 영어 경연(24개팀)	문예회관(대강장)	연기교육청



자료제공 연기문화원

예산 백제 부흥군 위령제

잊혀져갈 뻔 했던 위령제를 완벽히 재현하고 발굴해낸 자료를 비롯하여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꾸준히 찾아간다는 입장이다.



2010.10.31 백제 부흥군 위령제가 열리는 날이다. 찬란한 백제문화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반
쳤던 흑치상지 장군의 얼을 받들고 부흥군의 나라사랑을 기리기 위해 이곳까지 직접 참석해주신 최승우 예산군수를 비롯
하여 예산지역의 많은 식구들이 임존성 위령제 및 등반대회에 참석해 주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 협조해 주신 분들 가운데에는 숙명여대의 정재만 교수가 돋보인다. 부흥군의 넋을 달래기 위한 살풀이
를 맡아 주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지역의 사물놀이 때도 참가하여 참 뜻깊은 하루를 지역주
민들과 함께 보내었다.참석한 등반객들에게는 도시락과 떡 음료등을 배풀어주어 보람있는 하루가 되었다는 평이 있었다.
예산문화원은 과거 진행해오다가 잠시 잊혀져갈 뻔 했던 위령제를 완벽히 재현하고 발굴해낸 자료를 비롯하여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꾸준히 찾아간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들 또한 우리 백제가 이렇게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어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며 임존성이 이렇게 완벽히 복원되어가는 것을 볼 때에 백제인으로서의 문화자부심을 느
낀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었다.전날은 연기문화원에서 답사를 와서 하루 동안 이곳을 방문하였다. 수십여명의 인원
들과 연기문화원 사무국장은 백제의 성 유래지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의 임존성같이 훌륭한 성을 방문할 수 있
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씀도 계셨다.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여준 예산문화원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발굴에 앞장서줄 것
을 부탁하였다.

자료제공 예산문화원

2010 강경발효젓갈축제

2011년 축제는 논산시 전역으로 축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내 관광지에서의 문화 예술 행사 강화 등 산업형 축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문화예술축제를 가미된 행사로



1) 강경의 지역적 특성

강경의 지명은 '강경포'에서 유래되었는데 금강을 낀 포구의 이름이 이 지방의 지명으로 대표하게 되었다. 동국여지승람에 은진현 '강경호'가 있으며 미내교비에도 '강경촌'이라는 지명이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오래전부터 지어내려온 지명인 것 같다. 1914년 연산, 노성, 은진군이 합해져 논산군으로 재편성 되면서 강경에 있던 은진군청이 폐지되었고 현 취암동에 논산군청이 들어섰으나 법원 지원, 검찰 지청, 경찰서, 세무서 등은 그대로 강경에 있었다. 주요 통신, 금융기관들도 거의 강경에 있었다. 1931년 강경읍으로 승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주변 유적지로는 임리정, 팔괘정, 죽림서원 등이 있으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중앙초등학교의 강당, 북옥감리교회, 강경상고 교장관사, 강경노동조합, 한일은행 강경지점, 남일당 한약방, 화교학교 등 등록문화재 7곳이 남아있다. 또한 논산8경 중 7경인 옥녀봉은 금강을 한눈에 바라 볼 수 있어 정경이 수려하다. 옥녀봉 전설이 전해오고 있으며 이곳 주변에는 옥녀봉, 해조문 등 암각이 새겨져 있다. 공원에는 1919년 3월 1일 강경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이를 기념하는 기념비도 세워져 있다.

2) 강경젓갈축제의 출발

강경(江景)은 조선 후기 평양, 대구와 함께 전국 3대 시장의 하나였으며 1920년대에 1원산 2강경이라 할 정도로 이름난 농수산물 집산지 포구로 불리었다. 그러나 철도, 도로의 개통과 금강 하구둑 완공으로 강경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위기감속에서 강경을 번영회가 중심이 되어 '강경되살리기운동'이 일어났다. 그 일환으로 축제만큼 지역 홍보에 효과가 좋은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산시의 가세는 젓갈축제에 충력을 다하게 된다. 제1회는 1997년 10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강경여중 운동장에서 열렸다. 철도청의 협조로 젓갈 열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관광객의 증가로 더욱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다. 2002년부터는 정비된 강경포구와 옥녀봉 일대에서 축제를 열게 되었고, 문화관광 지정 육성 축제가 되었다. 4년 만에 우수축제로 도약하였으며 2004년부터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전국 10대 향토축제로 진입하게 되었다.



3) 2010 강경발효젓갈축제

2010 강경발효젓갈축제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동안 강경포구, 젓갈시장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200년 전통의 젓갈, 강경포구로의 초대 라는 주제로 논산시가 주최하고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5개분야 39개 행사가 펼쳐졌다. 추정인원 47만명이 다녀갔으며 395억원의 경제효과를 이뤄냈다. 금년 축제는 제3회 충남문화예술제와 연계하여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산업형 축제라는 한계를 벗어나 지역문화예술을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논산전통시장, 논산역, 강경역, 문화예술회관, 백제병원, 탐정저수지 수변생태공원 등에서 폭넓게 문화예술행사를 가짐으로써 논산시 전역의 축제분위기 제고와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에게 지역예술과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논산문화원은 축제기간 중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연계관광을 시도하여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고객을 확보하였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축제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근대 문화재를 도보 답사 하였고, 관측사, 논산명재고택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버스 관광을 추진하였다. 또한 자유롭게 강경 문화재를 도보로 탐방하고, 스탬프를 받아오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는 큰 인기를 얻었다.

4) 향후 계획 및 방향

2011년 축제는 논산시 전역으로 축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내 관광지에서의 문화 예술 행사 강화 등 산업형 축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문화예술축제를 가미된 행사로추진될 계획이라고 한다.

논산명재 고택음악회, 산사음악회 등 관광 명소를 적극 활용한 문화 행사 부분이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아줌마 김치 담그기 대회, 어린이 축구대회, 소인 등 제작 등 젓갈 구매의 주 고객인 40~50대 주부와 미래 고객인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감성과 추억을 상기시키고, 시민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영 될 계획이라고 한다. 산업형 축제인 만큼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민간주체에서 일부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형태로 매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읍면동의 시민 참여율을 확대해 나가 축제의 독립성을 좌우하는 민간 주체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논산문화원



충남문화사업

공주문화예술인(예인촌) 정기공연

공주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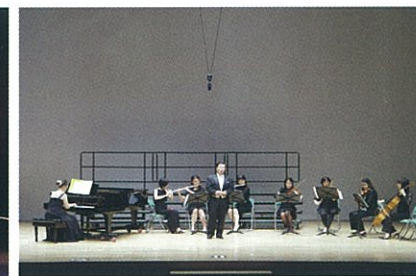
공주문화예술인(예인촌)정기공연은 침체되어 있는 공연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선도하며 문화의 세기에 걸 맞는 대중화 문화를 제시하고 예술인들의 화합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공연장을 제시함으로써, 공주문예의 가치 있는 예술문화로 승화시켜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예술인들에게는 발표의 기회로 삼아 항상 문화원을 찾아 활용함으로 공주문화의 전당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내 예술인들의 모임인 예술하는 공주사람들 "예인촌" 은 예술인 초청으로 분기별 1회씩 정기공연을 개최하여 예술인들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2월부터 12월 31일(총 4회 예정)까지 공주문화원 강당과 야외무대 또는 공주문예회관에서 펼쳐진다.

소리(민요, 타령), 국악(풍물, 판소리), 양악(성악, 기곡), 무용(고전무용, 현대무용), 연극 등 다양한 분야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예인촌 신두번째 정기공연으로 "낙서금지"(연극)를 2월 5일, 6일(총3회)에 걸쳐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공연했으며, 신세번째 정기공연으로 "정안천 꽃길 걷기행사"를 4월 22일 금강둔지에서 했으며, 신세번째 정기공연으로 "이광형 금강의 노래"를 9월 17일 공주대학교 컨벤션홀에서 하였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정기공연을 계획중에 있다.



충남문화사업

“보광風流展”



금산문화원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그저 놀기만 하면 되는 것을.....”

논다는 것은 삶을 흐르게 두는 것이며 바람과 하나 되는 숨결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풍류로구나.“

금산의 명산 진악산 자락에 살포시 자리 잡은 보광사는 속세의 때가 붙어있지 못하고 저절로 사라지는 마음을 느끼게 하는 명찰(名刹)이다. 이 아름다운 사찰에서 8월 28일 주말 고즈넉한 여름밤에 수많은 관객들이 모여 당대의 풍류객이며 천재적인 음악가로 평가받는 임동창 선생의 입담과 어울 어진 최고 수준의 예술가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선율의 향연이 펼쳐졌다.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 고유의 현묘한 도이며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흐르듯 사는 삶 자체라고 하는 풍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첼따라 산 좋고 물 좋은 경관을 노닐며 자연과 살아있음의 흥을 노래하고 표현하는 풍류전을 개최하여 풍류문화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특히 시간과 공간의 그물망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은 절대자유의 음악 “허튼가락”이라는 새로운 풍류문화를 진작시켜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21세기형 관광의 형태인 생태문화관광행사로 육성하기위해 금산문화원에서 기획된 “보광풍류전”이다.

올해로 3회째 열리는 “보광풍류전”은 <임동창 풍류, 너도 좋고 나도 좋아 흥아라>라는 신명의 한판으로 이루어졌는데 출연진은 피아노 임동창을 비롯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이신 이생강, 소리꾼 전인삼, ‘향수’로 유명한 시로 노래하는 가수 이동원, 테너 송건우, 타악그룹 동남풍, 팝&재즈 가수 유미경등으로 금산문화의 장점인 다양성과 전통과 현대의 만남, 대중성과 전문성을 보여줄 출연진으로 구성되었다. 행사 전 옅은 가랑비 속에 행사장에 하늘의 조화로 무지개가 쌍으로 나란히 떠서 행사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가운데 식전행사인 ‘헌다례’와 사물놀이 동남풍의 신명난 ‘여는마당’으로 시작된 풍류전은 1부 놀이 I에서 테너 송건우, 재즈보컬 유미경, 가수 이동원의 감미로운 무대가 펼쳐졌고, 이어진 2부 놀이 II 임동창과 함께에서는 “동창아 동창아 뭐하니?”라는 주제로 임동창의 피아노와 동남풍의 타악이 어울린 흥겨운 하모니의 열정적인 무대, 간들 어진 산조 송도영의 무대에 이어 동서양을 아우르는 신들린 대금과 피리연주를 보여준 이생강 선생의 애절한 한과 슬픔을 포함한 경쾌함과 즐거운 한마당, 탁월한 소리꾼 전인삼의 ‘목으로 우기기 소리’라는 동편제의 매력 그대 로 살아있는 꾸밈없고 우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임동창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전 출연진, 관객이 하나 되어 ‘아리랑’을 합창하며 풍류전은 모두가 하나 된 속에서 어두 어진 여름밤을 뒤로 하고 막을 내렸다.

비속에서도 수많은 관객이 함께 한 제3회 “보광풍류전”은 “허튼가락” 마당으로 신평류문화의 창출과,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금산읍 읍지리는 진악산권역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은 마을로 문화를 주제로 한 지역 개발에도 일익을 담당하리라 판단되며, 전국적으로 모인 관객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금산의 특장문화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이라는 금산의 이미지 선양에도 일조하였다고 하겠다.

“보광풍류전”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하여 금산문화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관객들의 ‘눈’과 ‘귀’를 열어줄 금산문화의 하나의 커다란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충남문화사업

예학의 고장! 논산의 뿌리를 찾아서



논산문화원

논산은 예학과 충절의 고장이다. 조선 예학의 종장인 사계 김장생선생, 백의정승으로 추앙받는 명재 윤증 선생 등 조선시대 사상과 학문에 영향을 미친 훌륭한 대 선비들이 활동했던 곳이다. 논산은 가는 곳마다 유교 문화유산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향교나 서원, 정려가 많고 관련 유·무형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고장의 유서 깊은 유적지나 관련 역사를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 논산문화원에서는 2003년부터 ‘내 고장 문화유적 답사’

라는 프로그램으로 논산 시민을 대상으로 논산문화 8선을 선정, 유적지를 답사 하고 있다. 조선 기호유학의 중심지이며 예학의 1번지 논산의 선현들께서 남긴 발자취를 찾아보고, 고장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고장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고취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연20회 정도 실시하면서 800여명 가까이 해마다 참가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예학의 고장! 논산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문화원 대상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실시하고 있다.

논산시민의 참가 신청을 받아 일정을 정한 뒤 참가자들에게 논산 문화의 이해를 돕는 대학 교수나 향토사가의 특강을 받는다. 이론 수업을 받고, 해당 유적지를 버스로 이동한다. 첫 코스로 조선후기 평양, 대구와 더불어 3대시장의 하나였던 강경으로 향한다. 강경의 임리정, 팔괘정, 죽림서원, 옥녀봉, 젓갈전시관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오전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임리정은 사계 김장생 선생이 정자를 짓고, 시문하며 제자들에게 강학하던 곳으로 이곳에서 100m정도 떨어진 곳에 스승을 사모한 우암 송시열 선생이 지은 팔괘정도 자리하고 있다. 그 중간에는 죽림서원이 있다. 인조4년(1626)에 창건되어 현종6년(1665) 죽림서원으로 사액 받은 서원으로 고종8년 서원 철폐령에 의해 폐철된 후 1965년 복원되었다. 문묘에 배향된 정암 조광조,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우계 성혼,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선생이 배향되어 ‘육현서원(六賢書院)’이라고도 한다. 오후에는 연산과 노성 일대를 답사한다. 연산 돈암서원은 1634년(인조12)에 창건되어 효종10년(1659)에 사액 된 서원으로 사계 김장생 선생이 주벽으로 모셔져 있고 그의 아들 신독재 김집과 동춘당 송준길, 우암 송시열 선생이 배향되어 있으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때도 온전하게 보전된 유서 깊은 서원이다. 조선시대 소론세력이 노강서원을 중심으로 활동 하였다면 돈암서원은 처음 서인 세력들의 중심이었다가 후에는 노론의 정치적, 학문적 본산이기도 했던 곳이다. 노성의 종학당은 동토 윤순거 선생이 1640년에 건립한 파평윤씨 노종파 문중서당인데 이곳에서 42명의 대과 급제자를 배출한 교육시설로 병사저수지를 앞에 하고 전체적 지형지세가 안온한 느낌을 주어 오늘날도 교육여건이 좋은 곳이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논산명재고택은 조선시대 충청지방의 상류 양반가정의 구조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건물이다. 명재 윤증선생은 임금께서 무려 17 번이나 벼슬을 내렸으나 한 번도 나아가지 않았으며 우의정까지도 사양하여 사회 일반에스는 백의정승이라 일컫는다. 고택에서는 ‘큰택어울’ 국악단의 공연도 관람하고, 전통차를 음미하기도 하는 답사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노성에서 나오며 노강서원을 들린다. 1675년(숙종1)에 창건되어 팔송 윤희, 노서 윤선거 선생을 배향하다가 숙종8년 사액과 더불어 석호 윤문거 선생을, 1723년(경종3)명재 윤증 선생을 추배하였다. 노강서원은 대원군의 철폐령에도 온전히 보전된 곳으로 당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실감케 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제고하기 위해 논산문화관광해설사가 버스에 동승하여 가는 곳마다 유적지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재미있는 논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또한 답사자료를 미리 제작하여 이해를 돕고,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참가자에게 나눠주고 있다. 본 프로그램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논산이 이렇게 역사가 깊고 관련된 아름다운 유적지가 많은 줄은 미처 몰랐다’는 의견과 ‘재밌게 알게 되어 고맙다’고 표하는 참가자, 그리고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는 참가자가 많았다. 내년부터는 문화원장이 직접 문화유적 탐방을 진행하는 ‘문화원장과 함께하는 문화 유적 탐방’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문화사업

당진출향문화예술인대회

당진문화원



충남 당진에는 많은 문화예술인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후진양성에 각별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과 더불어 다양한 영역에서 출향문화예술인들이 당진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고 있는데 당진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그들을 접할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당진문화원에서는 당진군민에게 출향문화예술인과 그들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지역의 작가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당진출향문화예술인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사업의 진행은 출향예술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출향예술인들과 함께 공연을 기획하고 전시회를 준비하였다. 당진군의 각별한 지원과 한국예총 당진지부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진행된 이번 사업은 2010년 3월 6일 전시회 오픈 및 공연행사에 1,0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찾아주었고 전시회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당진출향문화예술인들의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우선 주안점은 출향예술인들의 조사와 그들의 예술작품을 안전하게 운반하여 전시하는 것이었는데 다양한 방면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출향예술인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셨다.

20여분의 출향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약 40여점의 예술작품 전시 및 뮤지컬 갈라쇼, 연극, 국악 등 다양한 공연으로 준비된 제 1회 당진출향문화예술인대회는 많은 찬사와 박수 속에 마무리되었고 제 2회 행사에 많은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향후 사업 진행 목표는 보다 많은 출향문화예술인들이 지역의 작가들과 함께 준비하여 당진의 대표문화예술제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으로 당진으로 엮인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마당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시회 작품출품

구본창, 권석봉, 김경인, 김근희, 김지원, 서복례, 서재흥, 이강식, 이근배, 이상용, 이재진, 전영희, 전용섭, 정영모, 정한만, 차상권, 한윤기



공연 준비

시낭송 : 이근배, 이은옥, 최제형, 류제희, 정호돈
뮤지컬 갈라쇼 : 박계배
연극 : 민윤영
국악 : 신태양
가요 : 김정안

충남문화사업

용대기놀이 시연

서산문화원



2010 세계대백제전을 맞이하여 시군참여프로그램으로 서산에 전해지는 용대기놀이라는 민속놀이를 시연하여 지역전통문화를 알리고 보존코자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2010년 9월 ~ 10월에 걸쳐 장동, 덕지천동, 문화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용대기놀이의 원형 발굴과 연구실시

-장동과 덕지천동 주민 15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용대기”를 두고 펼치는

마을간 실랑이와 화합을 주제로 시연하고 한달간 집중 연습

-세계대백제전 행사 기간 중 10월 10일, 11일 양일에 걸쳐 공주 고마나루

행사장과 부여 구드레 마당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연

잊혀져가던 민속놀이를 이번 행사를 통해 재발굴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용대기놀이의 지속적인 보전과 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장동과 덕지천동의 지속적인 연습과 보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향후 한국민속문화예술제에 출전하여 충남민속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며 지역대표축제인 해미읍성 축제에 매년 참가하여 지역주민들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문화사업

학술연구사업



서천문화원

서천문화원에서는 2006년 석복 신평수의 삶과 문학세계, 2007년도 1380년 진포구 대첩, 2008년도 권헌 진명의 화론과 문학론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어 학술적인 재평가와 재조명을 하였고 그에 따른 자료집을 집대성하여 보유하고 있는바 앞으로 서천의 역사 및 인물 등을 발굴하여 문학기행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지역적 역할을 지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평수의 '석복집', 신평하의 '진택집', 권헌의 '진명집'을 자료집으로서만을 보유한다면 서천군에서만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후세들에게 그의 학문, 사상, 철학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조상들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굴해야 하는 사명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의 학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번역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석복일가 신평하 선생 문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서천의 대표적인 문인의 일가를 이룬 석복일가 중에서 신평하의 문집인 "진택집"은 현재 서천문화원에서 표점 방점작업을 마쳤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진택집"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 많아 번역하기가 까다롭지만 학문하는 자로서는 "진택집"을 번역하는 것이 일생 일대의 큰 일이고 보람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진택집" 분량이 137,000자 정도 되는 바 '부분 문 시집 국역사업'으로 시 부분을 제외한 문 부분만 하더라도 권 10, 권 11, 권 12 등 3권으로 되어 있어 충남대학교 한문학과 박우훈교수(한자문화연구소)에 용역사업으로 의뢰하였다. 교정 및 교열은 정만호, 이관성, 이재숙, 김진웅이 맡아서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가능한 일하기에 이를 추진하고 있는 서천문화원장의 의지가 이 일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서천의 수준있는 문학가를 발굴하여 그의 학문, 사상, 철학을 알리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진택집은 위대한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문집으로 학문하는 자들의 연구에 활용가치가 무한하다. 진택집을 번역함으로 그시대의 역사적인면과 철학적인면들을 발견하여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술적인 가치를 공유, 공감하여 전국에 있는 한문학자들과 우리에게 역사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길이 빛나는 옛 문헌의 자료로써 활용도가 크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사업진행은 전문적인 지식인이 필요하고 사업확대를 위해서는 연구진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자체 뿐만 아니라 도,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협조가 요구되며 지속적으로 번역사업이 이루어져 그 자료집을 집대성 하고 보급함으로써 그의 학문과 그의 철학을 이어받아 한 차원 높은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선양사업이 이루어져서 후세들에게 그의 학문을 전할 수 있도록 학문 연구에 이바지 하고 논문자료로 활용하여 많은 학자들을 배출해야 한다.

충남문화사업

단오절민속놀이 경연대회



아우내문화원

1974년 당시 사라져가는 민속놀이의 계승을 위해 척사대회와 줄다리기대회, 그네대회를 열면서 출발하게 된 아우내문화원의 단오절민속놀이 경연대회는 올해로써 26번째를 지낸 대표적인 지역축제이다. 아우내端午祭는 현대회의 물결 속에 점차적으로 사라져가는 민속문화를 계승하여 주민들의 친목과 관객의 유치를 도모하여 전통시장의 번영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단오는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설, 추석과 더불어 3대 명절의 하나였다. 단오는 중추절이라고도하였으며 우리선조들은 양의 기운이 최상으로 거듭되는 5월5일을 숭상하였다. 災厄(재액)을 豫防(예방)하여 健康(건강)을 위한 여러 행사를 하였고 조상의 숭배와 所願(소원)을 비는, 祭祀(제사) 등의 節俗(절속)이 행하여졌다. 음력 5월 5일이 단오에 맞추어 개최되는 단오절민속놀이 경연대회는 올해 6월 10일 목요일에 진행되었다. 매년 2,000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이니 만큼 올해도 관내단체, 문화가족, 지역주민, 관광객 등 약 3,0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올해 제26회 단오절민속놀이 경연대회로 살펴보자면 식전공연으로 단오제례를 지내고 난 후에 각 지역의 주민들의 밸리댄스, 스포츠댄스 등 솜씨를 뽐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천안시 시립풍물단은 신명나는 풍물소리로 행사주변을 돌아 행사장까지 흥겹게 행사를 알리기도 했다. 관내 위치한 해양경찰학교에서 협조를 받아 해양경찰청 공연악단이 행사장을 압도하는 능률한 연주를 보여주기도 했다. 행사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리고 개회식을 시작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민속행사인 만큼 뿌리는 같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민족의 모습을 느껴보기 위하여 평양예술단을 초청하였다. 옛 분위기에 향수를 느끼고 우리 것이지만 신기하고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었던 평양예술단의 이색적인 공연에 공연장이 한껏 축제분위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오전은 행사의 시작을 맘껏 알리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시간으로 마련되었고, 오후에는 본격적인 단오절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시작되었다. 민속놀이 경연대회는 8개읍·면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단오절 민속놀이 대회인 만큼 그네타기, 씨름, 널뛰기, 팔씨름, 줄다리기로 구성되었다. 모든 대회는 행사장으로 이용되는 유명한 아우내장터 내에서 이루어진다. 한 경기 한 경기 따로 진행되지 않고 행사장에 미리 마련된 각 대회 장소에서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광경이 동시에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대회이다. 하지만 줄다리기는 예외로 모든 대회가 끝나고 각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모두 모여 지역 간의 대결로 벌어지는 마지막 가장 큰 경기가 된다. 지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대회 참여하는 선수들은 남·여를 구분 짓지 않는다. 보통 남자, 여자는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어르신들과 관객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로 마련된 투호대회를 마련했다. 모든 축제는 참여하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과 또 하나 먹는 즐거움이 빠질 수 없다. 각 지역에서 마련한 음식들은 누구나 무료로 먹을 수 있어 행사의 3박자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아우내문화원 단오절 민속놀이 경연대회는 전통민속놀이 계승을 목표로 하여 열리는 행사이지만 고무적인 방식을 떠나 현대와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충남문화사업

전통놀이로 우리 얼 살리기

연기문화원



목적/기획의도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우리 언어문화와 함께 고유의 놀이문화가 모두 없어지면서 현재에는 전통놀이로 알고 있는 놀이들이 일반 서민들이 놀던 놀이뿐이거나 아니면 일제 통치하에서 새로 생겨난 놀이가 둔갑하여 우리의 전통놀이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통놀이를 바로 알리고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놀이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놀이를 알리고자 한다. 예를 들어 양반놀이인 승경도 놀이는 청소년들이 옛 관직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사라져가는 한자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여러 놀이를 통해 개인주의에 빠지기 쉬운 정서에서 함께 "타협" "양보"를 배우게 될 것이다.

사업기간: 2010년 6월 ~ 12월, 사업대상: 남녀노소 모든 사람

진행과정 (자세한 활동내용 포함)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보조를 받아 강사 자격증반 대상자 모집하여 3개월간의 교육 후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러 70점 이상을 받은 수강생들에게 민간자격증인 박물관 자격증을 부여한다. 이후 자격증을 수여 받은 사람은 강사 전문화과정 심화학습을 2개월과정 교육을 수료 후 각종 노인정, 유치원, 장애인 시설, 초, 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역사와 놀이공부를 병행하여 교육하고 있다.

기대효과

사업의 효과, 성과목표 등을 정성, 정량적으로 기재 - 양반전통놀이의 재현으로 우리놀이 우수성과 조상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정체성 찾기에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들과의 놀이문화가 없어지면서 서로간의 대화가 없어졌다. 그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쉽게 익힐 수 있는 전통놀이를 가정에 보급 하면 가족들과의 연대가 고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퇴폐적 폭력적 놀이문화에 젖어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조상의 얼과 아름다운 정서를 심어줄 수 있다.

우리조상의 관직에 대해 몰랐던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조상들의 관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 한자에 대한 어려움도 놀이문화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승경도놀이는 학생들에게 공부와 연관해 놀이를 개발 할 수 있다(예: 세계나라이름으로 만들어 응용, 직업으로도 응용)

향후계획

우리지역에서 전통놀이를 재정립하고 교육을 통하여 전국으로 확산 시킨다.

충남문화사업

"예산문화원은 예산의 친구입니다."

예산문화원



서예의 거장 추사김정희 선생의 고장 충남 예산문화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학교 강좌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많은 서예인을 배출한 월요, 화요, 수요일서예가 장수문화학교로서 수십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화반에서는 훌륭한 강사님과 열정적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수차례의 전시회와 함께 군의 지원을 받아오고 있으며 이곳 문화원의 자랑인 전용국 부원장님께서 친히 한학반을 운영하고 있어 과거 옛 선조들이 말하는 "사람의 근본 도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가르쳐 주어 배우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감탄과 존경을 받고 있다.

예부터 지형의 좋은 쓰임새를 알고 활용할 줄 알았던 것을 조상들의 슬기로운 문화를 배우기 위하여 예산문화원에서는 일찍이 풍수지리 강좌반을 운영하고 있다. 강사님의 지혜있는 교수법으로 제자들이 풍수지리법에 대한 수업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고 타 동료 수강자들도 이끌어 오고 있어 지금은 계속 인원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또 각 문화원에서는 빼놓을수 없는 국악관련 풍물강습강좌가 운영되어 오고 있다. 직장인 동아리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퇴근후 저녁시간때를 활용하여 농악에 지역주민 욕구충족에 큰 의지가 되고 있다. 각계 각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월요, 목요 주부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하여 어린이 발레교실도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올해의 문화사업으로 요가, 발리댄스, 오카리나과목도 신설되어 지역주민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더욱더 성장하는 문화학교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많은 강좌를 개설하는 데 앞서 군수님의 개강식 참여도 부탁할 예정에 있으며 종강식도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 문화원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에 있다.

앞으로 우리 예산문화원은 "예산의 친구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더욱더 주민들이 드나드시기 편안한 쉼터의 공간으로 서 해마다 변창하는 문화원이 될 것을 다짐해보며 이만 글을 줄인다.



충남문화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짚풀 문화학교



운양문화원

문화로부터 소외된 지역 노인들에게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통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전통공예문화 보급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하여 기획하게 되었다.

2010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아산가정복지대학외 2개소에서 운영된 어르신대상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주요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사업 주요 내용

짚풀 특유의 전통 향을 맡으며(후각 : 향수(鄉愁)),

귀로 듣고(청각 : 이론),

눈으로 보고(시각 : 작품),

손으로 만들고(촉각 :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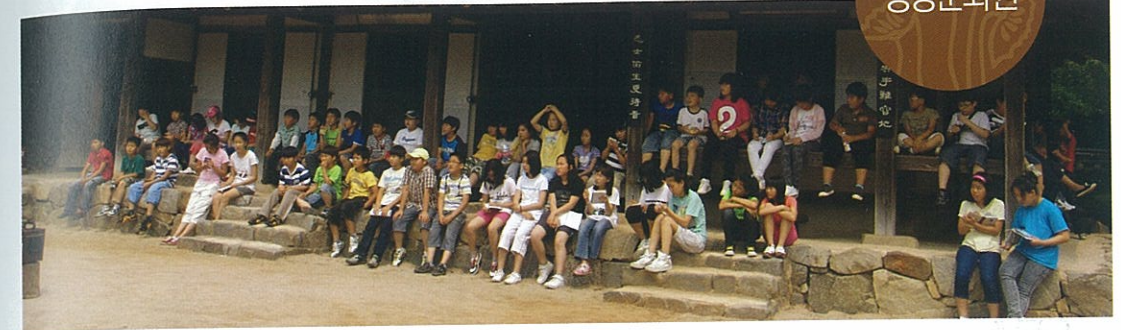
입으로 맛보는(미각 : 계란꾸러미 만들기체험 중 계란) 오감체험.

본 사업을 통하여 짚풀공예 참가자들에게는 공예분야에 숨겨진 재능과 특기를 개발하여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더불어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여 전문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충남문화사업

청소년 역사체험순례



청양문화원

충남권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지 및 충의시설 탐방을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민족정기 선양과 호국정신을 함양하고자 [역사체험순례] 사업을 기획하였다. 올해 2010년 6월 ~ 7월사이에 관내의 청소년(초, 중, 고)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았다.

역사체험순례 학교 선정 ⇒ 각 학교(3개교) 업무협조 공문 발송 ⇒ 참가자 명단확인 ⇒ 문화유적지 및 충의시설 탐방 (충의사, 운산 마애삼존불, 해미읍성, 간월도간월암, 김좌진 장군 생가, 한용운선생 생가 및 사당) ⇒ 기행문 쓰기를 통해 다시한번 우리 역사 의식을 고취 ⇒ 심사위원을 위촉해 공정한 심사 ⇒ 시상

이 사업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호국정신을 심어줄 수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와 업무협조를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유도하도록 할 것이다.



충남문화사업

“알록달록 물들이는 고을고을 사랑방이야기”

태안문화원



뭔가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시작될 듯 하다.

지방문화원 특성화사업공모가 시작된 2008년부터 태안문화원은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사업으로 방향을 잡았다.

2007년 상상지도 못했던 ‘검은재앙’ 기름유출 사고가 태안을 뒤덮었다.

바다를 자원으로 관광과 어업으로 생활하던 주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실의와 막막함이 현실이었고 생활터전을 잃어 가족과 고향을 등지는 이들이 점차 늘면서 경제적 침체, 삭막한 지역분위기는 사람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이에 지역문화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그마한 움직임으로 태안문화원은 “공공환경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2008년도 바닷가 인근의 분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사업은 2009년 폐교위기의 작은학교, 2010년 시골마을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확산되어갔다.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공공환경미술’ 프로젝트는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 창조임이 분명하다. 학생에게는 별도의 미술강습이 어려운 환경과 어른들에게는 생활에 묻혀 있고 있던 문화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상징 콘크리트벽.

사람들간의 관계마저 삭막하게 만드는 빗바랜 회색공간에 예술에 기운을 불어넣기 시작한 것이다. 분홍날개를 가진 잠자리, 파랑색 해바라기꽃..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예술작품들이다. 사랑방이야기가 도라도란 피어나는 마을회관에 알록달록 추억에 시간들이 묻어나는 순간들이다. 찾아주는 이가 있어 반갑고 나이 들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출세했다며 행복한 웃음을 지으시며 잡아주시던 거칠고 뭉뚱한 어르신들 손의 온기는 아직도 우리들에 가슴속에 남아있다.

사람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사람을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작은 움직임들이 화려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태안문화원의 작은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 문화원상 대상에 연기문화원 수상

연기문화원(원장 임영이)이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린 2010년 대한민국 문화원상 종합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였다. 전국 227개 문화원 중 상위 15%에 해당하는 문화원에서 종합경영부문 대상 1곳, 우수상 3곳이 선정된 가운데 10월 8일 2010 대한민국 문화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상을 수여받았다.

그동안 연기문화원은 예술교육 및 문화컨텐츠 개발사업,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연기사예단, 풍물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풍물단 “두드림” 전국농업인풍물경연대회 금상 수상

제15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2010년 11월 6일(토) 남산 한옥마을 광장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추천의 전국의 전통 풍물팀이 참가한 “전국 농업인 풍물경연대회”를 개최되었다.

충청남도를 대표하여 온양문화원에서 추천한 두드림 풍물단이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장복연 단장을 비롯하여 5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두드림 풍물단은 2004년 1월 13일 창단하여 주위에 각종 행사 공연에서 신명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순수 문화나눔 봉사단이다.



향토사연구 활성화 사업 연구논문 공모전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지회장 정정희)에서 주최한 “2010 향토사연구 활성화사업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서산문화원 전 사무국장 한기홍씨가 「서산 명종태봉에 관한 일고찰」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에는 “홍주지방의 장시분포와 변동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한 전용택 홍성문화원장이, 장려상에는 “홍성지역 향토사 연구 현황과 활용방안” 관련 연구를 한 홍성문화원 전용식 사무국장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2월 8일 홍성문화원에서 충청남도 문화원 직원 및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열렸다.



제3회 충남문화예술제 [도지사 표창]

10월 20일부터 5일간 강경발효젓갈축제와 함께하는 충남문화예술제가 개최되었다. 충남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충남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한 8명에 대한 도지사 표창이 있었다. 충청남도내 문화원에서는 예산문화원 사무국장 박세진, 서천문화원 직원 권해경, 대천문화원 직원 이성천, 공주문화원 직원 김민영 이상 4명이 표창을 받았다.

서천문화원 백혜승 원장 취임

2010년 2월 10일 서천문화원에서 제 14대 백혜승원장의 취임식과 제 13대 유성열원장의 이임식이 있었다. 유성열 전 원장은 “지난 4년 동안 향토사 연구와 지역문화 진흥에 노력하였으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천의 문화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으며 백혜승 취임원장은 서천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서천문화원 부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취임사로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과 향토사 연구에 전념하고 주인이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서천문화원 원장 이·취임

이임원장 유성열(13대) - 취임원장 백혜승(14대)



태안문화원 김한국 원장 취임

8월 14일 태안 동문예식장에서 문화원 가족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문화원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제 4대 명수남 이임원장은 신임원장에게 태안군 문화발전에 노고를 부탁하였으며 제 5대 김한국 취임 원장은 취임사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맑은 임기동안 태안군 향토사 발간,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 : 2010년 9월 14일 11:00 장소 : 동문예식장

태안문화원장 이·취임

이임 제4대 명수남 취임 제5대 김한국



논산문화원 류제협 원장 취임

8월 9일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기관단체장 및 문화원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8대·19대 논산문화원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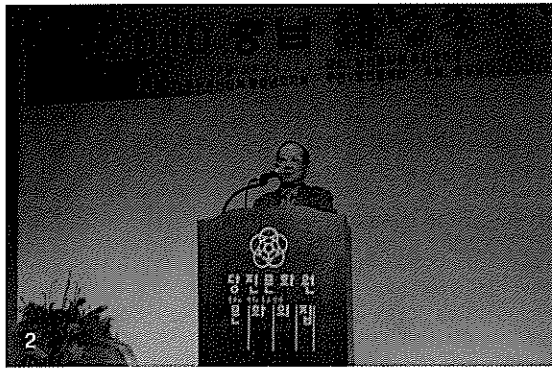
제 18대 박웅진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난 8년간 보람찬 논산문화 여정을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신임 원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논산 문화 창달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으며 류제협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전임 원장들의 노고로 논산문화의 기틀이 다져졌다고 전한 뒤 앞으로 모든 시민이 문화를 소유할 수는 없으나 향유케 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지회

충청남도지회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정기총회	일시 : 2010. 2. 3 대상 : 도내 문화원장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산의 승인
2 운영위원회의, 월례회의	일시 : 수시 대상 : 도내 문화원장	도내 문화원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교류, 충남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 토의
3 충남문화 제 14호	기간 : 2010. 1월~12월 참여 : 도내 문화원	충청남도지회 및 도내 16개 문화원의 활동상황, 향토문화에 대한 조사·발굴, 문화행사 등을 수록 배포
4 사무직원 위탁교육	일시 : 2010. 9. 1 ~ 2 장소 : 덕산 리솜스파캐슬 대상 : 도내문화원직원	개인 및 조직의 의식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업체 「유담」의 교육과 「장상호 한국문화원연합회 총무국장」, 「류재현 상상공장대표」를 강사로 초대하여 실무교육 실시
5 충남문화예술제	일시 : 2010. 10. 20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참여인원 : 500여명	충청남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경젓갈축제」와 함께하는 문화예술제를 주최, 「뮤지컬 갈라쇼」, 「논산시립합창단」 공연등의 개막식과 다채로운 전시, 공연등을 준비
6 충남시낭송의 밤	일시 : 2010. 11. 26 장소 : 당진문화원 참여인원 : 150여명	시낭송과 음악을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며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 도내 문화원 추천 시낭송가의 시낭송 및 「나태주」 시인과의 만남 등 준비.
7 향토사연구 활성화 사업	일시 : 2010. 9월 ~ 12월 (논문접수, 심사 및 시상) 대상 : 문화원 및 향토사연구소 회원 등	문화원부설 향토사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사연구 자료 공모전을 진행.
8 지방문화원운영 활성화 워크숍	일시 : 2010. 12. 8 장소 : 홍성문화원 대상 : 도내 문화원장, 사무국장 및 담당 공무원	문화원 직원과 시·군 담당 공무원의 협조 및 교류와 지방문화원의 발전을 도모, 충청남도 문화발전의 방향을 모색하여 보는 자리를 준비.



1. 월례회의
2. 충남시낭송의 밤
3. 제3회충남문화예술제
4. 사무직원위탁교육

공주문화원

2010년 도내문화원 활동상황 (기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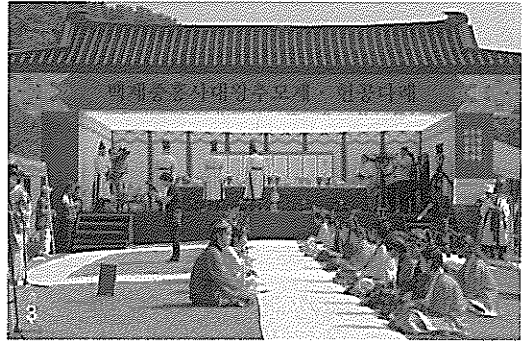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국내 및 해외의 출향인사, 전국문화원, 유관기관단체, 지역인사, 문화가족대상으로 지역소식수록 발간 배포	발행일 : 1~12월 발행부수 : 2,500부 (격월간 연 6회 발간)	「公州文化」 발간	1
공주관내 읍·면·동의 토속적인 풍경이 살아있는 18개 전통마을 선정	발행일 : 12월 중 발행부수 : 1,000부	향토민속발굴사업 「공주의 전통마을」지 발간	2
공주를 텃줄로 하는 저명성씨들의 고향바로 알기사업 학술세미나-유적답사-성씨별 책자발간	일시 : 동북오씨세미나(11월 6일) 장기정씨세미나 (11월20일)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외 참석 : 500여명	우리조상알기사업 (뿌리찾기사업)	3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의 장 국선도, 풍물, 민요, 한구무용, 문예창작, 다도, 서예 생활중국어, 생활일본어, 오키리나, 사진, 가곡, 닥종이, 요가, 댄스스포츠 등 17개 강좌 운영	일시 : 3월~12월 장소 : 공주문화원 강좌수 : 16개 과목 참석 : 600여명	지역문화학교 운영	4
공주시민대상 전국의 문화유적지 답사 (나주, 통영, 담양)	일시 : 4월~9월 장소 : 나주, 통영, 담양 참석 : 300여명	청소년 및 시민문화유적답사	5
공주문화예술인을 정기적으로 초청 (년4회 정기공연)	일시 : 1월~12월 장소 : 공주문화원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6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우리의 전통문화체험 (각급 학교 및 복지시설 4~5곳 방문)	일시 : 11월12, 15, 16일 장소 : 귀산초, 정명학교, 신관초 참석 : 1,000여명	찾아가는 우리문화 순회공연	7
호를 주제로 공주시 초·중·고학생 백일장	일시 : 6월 10일 장소 : 공산성 쌍수정광장 참석 : 600여명	효사상선양 학생백일장	8

공주문화원

공주문화원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9 향토작가 초대전	일시 : 10월, 11월 장소 : 공주문화원 전시실	공주출신 향토작가 초청 전시회(2회 개최)
10 충남민속대제전 참가	일시 : 6월 17일 장소 : 천안삼거리공원 참 석 : 50명	씨름, 줄다리기, 널뛰기, 제기차기 등 공주대표로 출전 충남도민 화합의 장 마련
11 문화원특성화사업 (공주인물지발간)	발행일 : 11월 중 발행부수 : 1,000부	공주문화원물발굴 선양사업
12 명사와 함께하는 공주여행	일시 : 5월~10월 장소 : 공주문화원 참석 : 1,000여명	2010대충청방문의 해 기념
13 어르신문화학교 운영	일시 : 10. 08. 14시 장소 : 서울 동작문화원 참여인원 : 40명 대상 : 전국 문화원 회원	전통문화공연단 「논두렁밭두렁」 동아리운영 각종 축제참가 및 학교방문
14 2010남아공월드컵 응원전	일시 : 6월(3차례) 장소 : 공주 금강둔치 참 석 : 3만여명	2010남아공월드컵 대한민국 예선경기중계행사
15 대백제전 백제촌 불채화-봉송-합화	일시 : 9월 16일 장소 : 연미산 및 공주시일원	2010세계대백제전 서막을 알리는 백제촌불채화-봉송-합화
16 대백제전 사대왕추모제	일시 : 9월 18일 장소 : 공주 송산리고분군	백제중흥사왕추모제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불우이웃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	일 시 : 10월 20일 장 소 : 공주문화원 수혜자 : 30명	제14회 만희복지 생활지원사업



- 1. 명사와함께하는 공주여행
- 2. 만희복지생활지원사업
- 3. 사대왕추모제
- 4. 향토작가초대전
- 5. 효사상선양백일장대회



금산문화원

금산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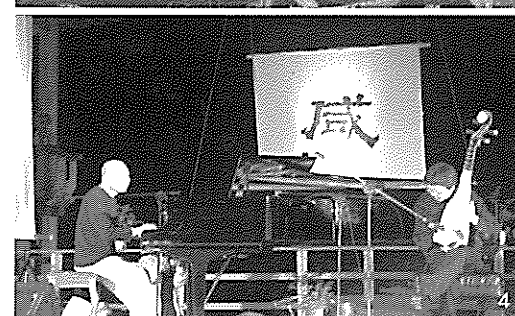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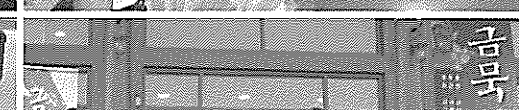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금산의 민속발굴	금산의 마을지 발간비용 통하여 문화 와 민속의 자원조사 조사지역 : 금산의 전지역 일시 : 1~12월 금산문화원형체험사업	금산의 마을지 발간 금산문화원형체험 사업
2 문화학교운영	일시 : 3~8월 장소 : 금산문화원 강좌수 : 4개강좌	문예창작, 서예강좌(기초), 한국화(기초), 판소리(기초)강좌를 통해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3 금곡서회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서예동호인단체, 금곡서회회원 참여인원 : 25명	문화학교 초급반을 이수한 회 원들로 구성된 고급과정 서예 전시회 개최
4 창현회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한국화 동호인 단체, 창현회원 참여인원 : 20명	문화학교 초급과정을 이수한 회원 으로 구성된 고급 과정 한국화 전시회 개최
5 풍각쟁이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판소리,민요 동호인 단체 참여인원 : 20명	금산문화예술제 노래모임 풍각쟁 이의 국악공연
6 장동달맞이축제	일시 : 2월 27일 (1일간) 장소 : 금산읍 양지리 장동마을 참여 : 20,000명	달과 볼 그리고 풍물을 주로 하여 한 국을 대표하는 전통마을축제로 육성 인삼, 약초와 연계 겨울 관광문화 축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7 비단골산꽃축제	일시 : 4.17~18일(2일간) 장소 : 군북면 산안리 참여인원 : 30,000명	100여만평의 산벚꽃자생단지에서 꽃길여행, 민속공연 등 자연친화적인 축제 구성
8 금강민속축제	일시 : 7.31~8.1일 장소 : 부리면 평촌리(금강놀이마당) 참여인원 : 20,000명	금산농악판국, 물페기농요, 농바우끄시 기 등 공연 금산의 민속체험 마당 가족과 함께 하는 추억만들기 마당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금산농악 매굿과 큰가을리기, 제야의 종소리, 촛불켜기, 불꽃놀이, 초청공연 등	일시 : 12월31일 장소 : 금산군 신대리 인삼광장 주관 : 금산농악보존회 참여인원 : 20,000명	9 금산풍물축제
예술인들과 마을 주민이 하나가 되어 신명나는 풍류마당	일시 : 3~12월 장소 : 금산군 일원 참여인원 : 200명	10 삶꽃문화사랑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21세기형 관광의 형태인 생태문화 관광문화 행사육성	일시 : 8월28일 장소 : 금산읍 (보광사) 참여인원 : 20,000명	11 보광풍류전
문화의 달을 기념하는 금산문화예술제로 미술, 서예전시회 및 출판기념회 개최	일시 : 11.19 ~ 23일 장소:금산다락원생명의집(소공연정), 청산아트홀 참여인원 : 800명	12 금산문화예술축제
- 정기연주회 개최 - 군민의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	일시 : 12.14일 장소 : 금산다락원생명의집 (대공연장) 참여인원: 800명	13 금산인삼골합창단
연 띄우기, 연만들기 체험교실운영, 연 전시회 등 연의 축제	일시 : 1월~12월 장소 : 장동달맞이축제 기타 축제의 현장, 금산문화를 홍보 하는 장소 참여인원 : 20명	14 금산민속연보존회
농바우끄시기보존회 공연	일시 : 1월 ~ 12월 대상 : 농바우끄시기보존회	15 농바우끄시기보존
물페기농요보존회 공연	일시 : 1월~12월 대상 : 물페기농요보존회	16 물페기농요보존

금산문화원

금산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7 산꽃시 시사랑	산꽃시동인지 작품 및 특집 수록	산꽃시동인지 발간사업
18 좌도시동인지 발간사업	좌도시동인지 작품 및 특집 수록	좌도시동인지 발간사업
19 실용음악 보급사업	실용음악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가 문화 창출	그룹사운드 「파랑새」
20 금산주부풍물 보급사업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나야내풍물단 참여인원 : 40명	각종축제 금산풍물굿공연 금산문화원학교 초급과정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 고급반 과정
21 토리풍류 보급사업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참여 : 20명	사물놀이 토리페
22 청소년토리풍물단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참여 : 30명	매주 오후 토리페 풍물단 운영 및 지도
23 문화소모임 (동아리)활동	일시 : 1 ~ 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참여인원 : 200명	군민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을 통하여 문화향수권신장
24 전시회	일시 : 11.19~23일 장소 : 청산아트홀 전시장	금동인(미술), 금목회(서예)전시회



1. 메아리합창강좌
2. 서예강좌
3. 청소년토리페주부난타공연
4. 보광풍류전

5. 도자기강좌
6. 읍시랑강좌
7. 금동인금목회 전시회
8. 국악관현악단 공연

논산문화원

논산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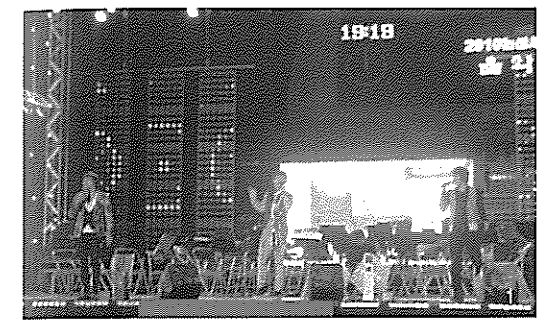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2010신년교례회	일시 : 1월 2일 14:00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참석 : 약200명	논산시 기관, 단체장과 시민이 참석하여 한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 다과회 및 선물추첨식
2 여성 방한민 선생 공훈선양 학술강연회	일시 : 1월 15일 14:00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참석 : 약200명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기념패 봉정, 강연회(전명혁 한국외대 역사학교수), 축하공연 및 다과회
3 예학의 고장 논산의 뿌리를 찾아서	기간 : 연중 장소 : 돈암서원, 논산영재고택, 종학원 등 참석 : 약1,000명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아름답고 유서 깊은 문화유적지를 답사하여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고취함.
4 제8회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축제	일시 : 2월 27일 14:00 장소 : 논산천둔치 참석 : 약600명	논산시 줄다리기 및 제기차기, 연날리기 대회 개최, 가족단위의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팽이치기, 투호, 윷놀이, 소원 빌기, 가훈 써 주기, 고구마와 가래떡 구어 먹기, 달집태우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계승하는 계기가 됨.
5 제4회 논산시 가족백일장	일시 : 5월 15일 14:00 장소 : 건양대 캠퍼스 참석 : 약200명	온 가족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가족백일장을 마련한 가운데 시낭송, 백일장을 실시하여 심사 및 시상.
6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자리	일시 : 6월 28일 19:00 장소 : 논산영재고택 참석 : 약200명	논산시낭송인회 주관으로 국악실내악, 색소폰연주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시낭송 개최.
7 2010어르신문화학교 '위풍당당 어르신 한지 공예'가 파견	기간 : 4월~11월 장소 : 뽕밭요양원 외 위로시설 참석 : 약200명	어르신 한지공예 강사가 위로시설에 찾아가 직접 수업 진행, 강경발효젓갈축제, 남부평생학습축제 등 참가.
8 '논산정신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영상제작	기간 : 4월 ~ 9월 장소 : 문화원, 건양대 등 참석 : 약100명	향토사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참가하여 논산시 유교, 불교 문화 유적지 영상제작, 각급 학교에 배포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읍,면,동 어르신 선수 60여명이 출전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고 시상.	일시 : 7월 6일 09:00 장소 : 놀미새마을금고 4층 참석 : 약100명	제11회 논산시 읍면동 어르신 장기대회 9
논산시 호 글짓기 공모, 문화재 그림 입상작 전시회, 청소년을 위한 푸른 음악회 '국악아 놀자', 학생들의 재능을 발휘하는 무대로 '내 마음의 푸른 꿈' 등 개최하고 시상.	기간 : 7월 14일~30일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참여인원 : 약1,500명	제5회 청소년문화제 10
충남교향악단 주관으로 논산시민 대상 테너, 소프라노 출연 등 한여름밤 음악회 개최	일시 : 7월 22일 19:30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참석 : 약600명	논산 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선율 11
독서의 달 가을을 맞이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공모하여 심사,시상.	기간 : 9월~10월 참석 : 약100명	독서의 달 행사 12
논산시서예협회 주관으로 학생, 일반인이 참가하여 서예의 기량을 발휘하고 서예작품 전시 및 시상.	일시 : 9월25일 10:00~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참석 : 150명	제21 논산시 서예회화대회 13
일본 도치기현 도자기 마을을 방문 현지 민간교류협의회와 오리엔테이션, 문화예술공연, 한지공예전시 등 교류.	기간 : 9월4일~8일 참석 : 10명	한일문화교류사업 14
논산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멘토오케스트라 연주회, 김덕수 사물, 초청가수 공연 등 개최.	일시 : 10월 8일 18:30~ 장소 : 논산공설운동장 참석 : 약5,000명	논산 시민의 날 음악회 15
2010강경발효젓갈 축제 기간 동안 강경 문화제 탐방, 문화유적 버스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등룡문화재 탐방 실시	기간 : 10월 20일 ~ 24일 장소 : 강경을 일원 참석 : 약300명	강경 문화재 관광 16

논산문화원

논산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7 가을 군악 연주회	일시 : 10월 28일 19:00~ 장소 : 건양대학교 참석 : 약1,300명	육군훈련소 군악대와 논산, 계룡 시립합창단 협연, 초청가수,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 개최
18 박범신과 함께 하는 문학기행	일시 : 12월 3일 10:00~ 장소 : 연무, 강경 일원 참석 : 약500명	박범신 소설가 초청강연, 생가지, 문학비 등 답사
19 계간지 논산문화	봄-발행일:1월 1일 부수:1,000부 여름-발행일:7월 1일 부수:1,000부 가을-발행일:10월1일 부수:1,000부 겨울-발행일:2011년1월1일 부수:1,000부	2003년 봄호부터 새롭게 창간 된 논산문화는 논산의 문화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으며 연4회 계간지로 발간하여, 각 기관 및 단체, 학교, 도서관,전국의 문화원, 문화원 회원 등 배포
20 논산문에 제18집	발 행 일 : 10월 발행부수 : 500부	제25회 청소년 백일장 공모전의 입상작들을 엮어 발간 및 배포
21 조선왕조실록-논산	발 행 일 : 12월 발행부수 : 500부	조선왕조실록의 논산편을 수집, 원문을 번역하고 실록의 이야기 를 담아 발간 및 배포.
22 읍,면,동지	발 행 일 : 12월 발행부수 : 300부×3곳	2005년~2006년에 걸쳐 15개 읍,면,동의 자료수집 및 사진촬영 등을 모두 마치고 읍면동별 발간.



- 1. 논산시민의날음악회
- 2. 논산시읍면동아르산장기대회
- 3. 예학의고장 논산의 뿌리를 찾아서
- 4. 한여름밤의선율 음악회



당진문화원

당진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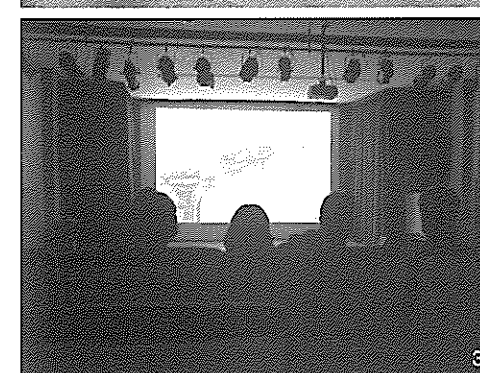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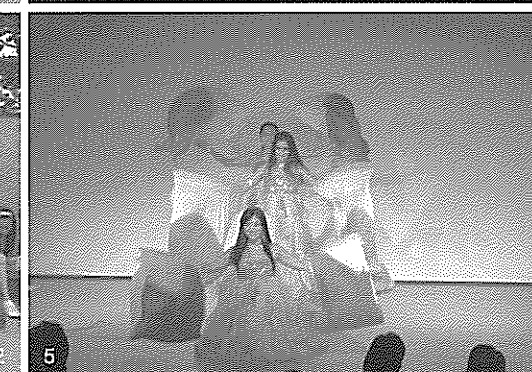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2010 정기총회	일 시 : 2. 24 장 소 : 당진문화원 공연장 대 상 : 문화원 회원	2009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세입세출결산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2 대보름 민속행사	일 시 : 2. 24 장 소 : 당진문화원 대 상 : 당진군민 참여인원 : 400여명	정기총회 후 율놀이, 투호 등 대보름행사로 민속놀이를 재현하고 지역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 마련
3 당진출향 문화예술인대회	일 시 : 3. 6 장 소 : 문예의 전당 대 상 : 당진군민 참여인원 : 2,000명	당진출신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지역민에게 소개하고 지역의 작가들과 친교의 자리를 마련함.
4 대백제전 탐방	일 시 : 10. 5 장 소 : 부여지역 대 상 : 당진군민 참여인원 : 40명	충청남도 대표 문화축제를 탐방하고 체험
5 1차 향토문화유적 탐방	일 시 : 3. 23 장 소 : 담양지역 대 상 : 문화원 회원 참여인원 : 45명	관내,외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체험
6 2차 향토문화유적 탐방	일 시 : 4. 20 장 소 : 영월지역 대 상 : 문화원 회원 참여인원 : 45명	관내,외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체험
7 3차 향토문화유적 탐방	일 시 : 6. 9 장 소 : 부안지역 대 상 : 문화원 회원 참여인원 : 45명	관내,외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체험
8 4차 향토문화유적 탐방	일 시 : 6. 11 장 소 : 단양지역 대 상 : 문화원 회원 참여인원 : 45명	관내,외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체험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관내,외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체험	일시 : 11. 4 장소 : 남원지역 대상 : 문화원 회원 참여인원 : 45명	9 5차 향토문화유적 탐방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랑스런 지역의 문화유산을 교육함.	일시 : 6월~11월 장소 : 당진지역 대상 : 당진지역 초등학교 참여인원 : 300여명	10 내고장역사문화 바로알기
당진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조사하여 데이터작업화	일시 : 6월~12월 장소 : 당진지역	11 예술인조사
남이흥 장군의 애국 애족과 살신위국을 본받는 백일장 시상 (대상1, 금상1, 은상2, 동상3, 장려상6)	일시 : 10. 24 장소 : 충장사 참여인원 : 300여명	12 남이흥장군 학생 백일장 대회
늘 푸른약단이 문화나눔 봉사단으로서 다양한 행사에서 음악나눔을 실천함.	일시 : 연중 참여인원 : 10,000원	13 어른신 문화나눔봉사단 늘푸른 약단
노래교실, 생활영어, 일본어, 수채화, 유화, 문인화, 연필인물화, 고전무용, 댄스스포츠, 단전호흡, 건강택견, 민요장구,민속놀이, 종이접기, 풍수지리, 시낭송, 오키리나, 한글교실	일시 : 연중 대상 : 당진군민 장소 : 당진문화원 강좌수 : 18개	14 문화예술 강좌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전시 행사 (유화, 수채화, 연필인물화, 문인화)	일시 : 11. 23 오후 2시 장소 : 당진문화원 대상 : 당진군민 참여인원 : 400명	15 수강생 작품발표회
문화원 소식 및 지역문화소식과 정보를 수록 발행	일시 : 8. 25 발행부수 : 2,000부	16 당진문화 33호

당진문화원

당진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7 당진문화 34호	일 시 : 12. 30 발행부수 : 2,000부	문화원 소식 및 지역문화소식과 정보를 수록 발행
18 명사시낭송회	일 시 : 12. 14 오후 4시 장 소 : 당진문화원 공연장 대 상 : 당진군민 참여인원 : 200명	지역의 기관장 및 기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민을 위하여 시를 읊고 2010년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함.
19 작은 음악회	일 시 : 12. 18 오후 4시 장 소 : 당진문화원 공연장 대 상 : 당진군민 참여인원 : 200명	지역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향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음악회
20 아주 특별한 만남	일 시 : 11. 19 오후 3시 장 소 : 당진문화원 공연장 참여인원 : 200명	2008년 자매결연을 맺은 강북문화원과 함께 준비한 문화예술교류 공연.
21 여름방학영화상영회	일 시 : 7월~8월 장 소 : 당진문화원 공연장 대 상 : 당진군민 참여인원 : 400여명	소외 계층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영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함.



1. 남이흥장군학생백일장대회
2. 네고장 역사문화바로알기
3. 여름방학 영화상영회
4. 당진출향문화예술인대회
5. 아주 특별한 만남-강북문화원 문화예술교류
6. 문화탐방

대천문화원

대천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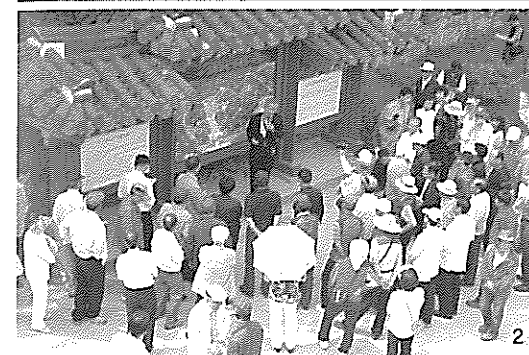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해맞이	일시 : 01. 01. 07:00 장소 : 성주산 일출전망대 참석 : 2,000명	다사다난 했던 2009년을 마감하고 2010년 첫 날을 여는 장엄한 순간을 시민들과 함께하며,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고 행복한 보령시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 (화롯불 지피기, 대지소생 농악놀이, 새해인사, 소망기원춧불정화, 축시낭송, 신년메세지, 복선을 나눠주기, 새해소원종선날리기, 축하음악)
2 신년하례회	일시 : 01. 04. 11:00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참석 : 300명	2010년을 맞이하여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화합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보령건설을 다짐하는 신년하례회 개최 (신년사, 책자배부, 경품추첨 및 다과)
3 정기총회	일시 : 02. 09. 11:00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참석 : 282명	2009년 결산 승인 및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4 제91주년 3.1만세 항일애국지사 추모 기념식	일시 : 03. 16. 10:30 장소 : 주산면사무소 광장 및 시가지 참석 : 500명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높였던 우리고장 항일 애국지사의 거룩한 희생과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기념식 거행(헌화, 3.1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추모사, 3.1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시가행진 및 재현)
5 충청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석	일시 : 06. 17. 10:00 장소 : 천안삼거리공원 참석 : 1,000명	도민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고유의 전통 문화 유산 전승 보존을 위하여 민속대제전 참가(씨름, 줄다리기, 줄넘기, 힘자랑, 제기차기, 널뛰기 등 선수 60명)
6 명사초청강연회	일시 : 10. 21. 19:00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참석 : 200명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조재훈 박사 초청 강연회 개최. 주제 : 『말과 글, 그 드러내기』
7 보령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일시 : 3월~12월 장소 : 대천문화원 2층 강의실 참석 : 500명	문학, 역사, 미술, 음악 등 교양 있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방면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민의식수준을 두 세 단계 높이는 효과를 거둠
8 추석맞이 전통민속 체험	일시 : 09. 17. 16:00 장소 : 보령원 참석 : 60명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전통 민속 예절교육 및 체험행사를 사회 적응능력을 제고(전통예절교육, 차례 상 진열 및 차례 법 교육, 송편 빚기)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우리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민속축제로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화합축제(시가행진, 교신제, 무속행사, 줄다리기, 가정행렬, 국악한마당)	일시 : 10. 01. 14:00 장소 : 대천천 한내돌다리현장 참석 : 1,000명	9 한내돌다리밟기 민속행사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화합 도모(고창음성, 서정주 시문학관, 판소리기념관)	일시 : 06. 24 장소 : 전북 부안 · 고창지역 참석 : 150명	10 문화가족 문화유적답사
시민들에게 우리고장 향토문화를 바로 알리고 애항심을 고취 시키고자 강의 및 답사(강사:향토사학자 황의호, 황의천 선생, 오석민 충남역사박물관장, 양승률 대전시립박물관 학예사 특별강연, 답사지: 강령도 강동 굴산사,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영월 범종사, 장릉, 청령포)	일시 : 3월 ~ 12월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및 문화유적답사지 참석 : 2,000명	11 우리고장바로알기 교양강좌
주부들에게 지역사회의 문화유적을 비롯하여 전국의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애항심을 고취 (순천 송광사, 서산 · 예산지역, 영주 부석사)	일시 : 4월~12월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및 문화유적답사지 참석 : 400명	12 역사바로알기 보령주부모임 강의 및 답사
평소 문화소외계층 주민에게 우리고장 문화유적 답사 기회를 제공(세계대백제전 관람)	일시 : 10. 06. 장소 : 공주 · 부여 일원 참석 : 45명	13 지역주민 우리고장 문화유적답사
백야 김좌진장군의 애국충절 정신을 후손들이 깊이 추모하고애국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모제향 지엄 (제례의식, 추모행사)	일시 : 10. 01. 11:00 장소 : 청라면 라원리 장군 묘역 참석 : 400명	14 김좌진 장군 추모제향
고려 말 전라도 도만호 김성우 장군의 애국충절 정신을 후손들이 깊이깊이 추모하고 애국충성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추모제향을 지엄 (제례의식, 추모행사)	일시 : 10. 01. 11:00 장소 : 청라면 라원리 장군 묘역 참석 : 400명	15 김성우 장군 추모제향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전래되어오는 미풍양속의 충효사상을 일깨우고, 창의적인 예술적 감성과 미적체험을 진작시키며, 지역 미술 서예, 백일장 문화발전을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특선, 입선, 지도교사상 시상)	일시 : 11. 10~11. 30 접수 : 문화원 사무국 대상 : 관내 초·중·고 학생	16 제35회 청소년 미술·서예, 백일장 공모전

대천문화원

대천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7 문화학교 회원 작품전시회	일시 : 11. 11~11. 12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참석 : 200명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조성과 우리 지역의 재능 있는 예술인의 발굴 육성을 도모(서예 21점, 한국화 11점, 서각 9점, 사진 8점)
18 마을단위 전통민속행사	일시 : 음력 1월 15일 전후 장소 : 관내 마을 참석 : 300명	우리고장의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 민속을 발굴보존하고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행사(산신제, 다리제, 고목제 등)
19 제3회 충남문화예술제 참석	일시 : 10. 20. 15:00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충남문화예술인들이 지역간·장르간 다채로운 발표의 장을 마련해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향토문화 전승과 예술창작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문화의 중심, 명품 충남' 으로 도약하기 위해 열리는 충남문화예술제에 참석하여 부응
20 한여승람 발간	발행일 : 03. 01. 발행부수 : 700부	조선한여승람 보령편을 인쇄 보급하여 지역사회 의 향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 제공
21 애항지 발간	발행일 : 11. 20. 발행부수 : 1,200부	대천문화원이 한 해 동안 벌인 사업을 총정리하여 문화원 회원 및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여 애항정신을 고취
22 금석문대계 발간	발행일 : 11. 30. 발행부수 : 500부	대남해화상백원보광탑비(국보8호) 등 많은 금석문 자료를 찾아 번역 탁본 정리하여 향토사학 자료로 활용하고 기록 보존
23 사진집 발간	발행일 : 11. 30. 발행부수 : 800부	보령시 40년의 역사 자료를 사진집으로 발간하여 역사 연구 자료로 활용(대전시가지, 성주 광산촌, 성주사지, 보령댐, 대천해수욕장, 대천항, 무창포해수욕장, 오천항, 호도, 녹도, 외연도 등)
24 문화학교 운영	과목 : 가야금, 일본어, 서각, 서예, 사진, 한국화, 풍수지리 횟수 : 년 중 주 1회 참여 : 2,000명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강좌 운영



1. 신년하례회
2. 문화유적답사
3. 한내물다리밟기
4. 역사 바로알기 주부모임 답사
5. 3.1운동기
6. 해맞이 행사

부여문화원

부여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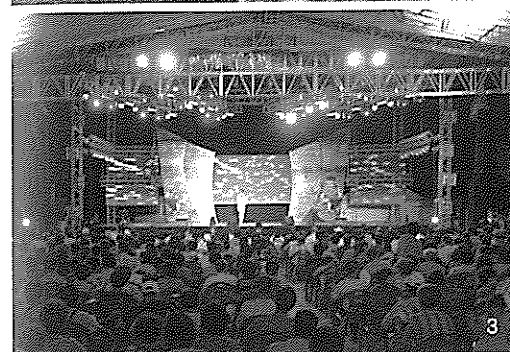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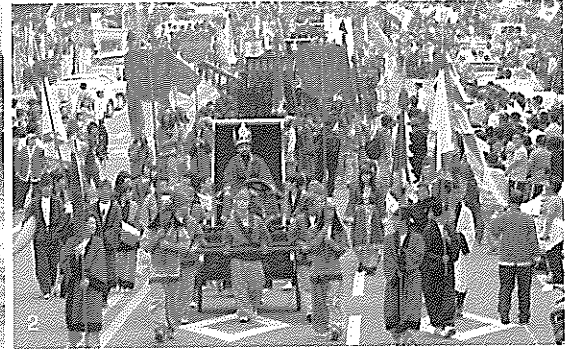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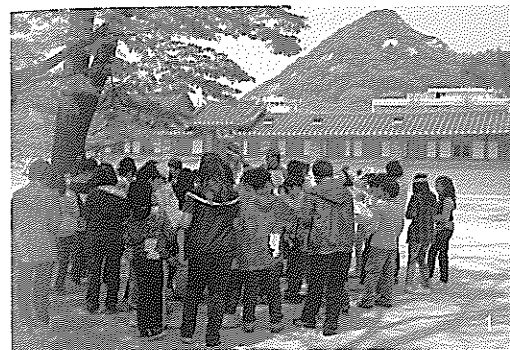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전국 백제토기 물레경연대회	기간 : 2010. 10. 9~10. 10 장소 : 구드래광장 참여인원 : 100여명	전국 도자(도예)관련 전공 대학생 백제토기 물레경연대회 실시
2 어린이 역사교실	기간 : 2010. 4. 25~11. 13 장소 : 전국 주요 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100여명 소요예산 : 5,600천원	군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월1회 사적 답사 및 문화체험
3 제8회 시인 신동엽 추모백일장	기간 : 2010. 4. 20(화) 장소 : 구드래 조각공원 참여인원 : 400 여명 소요예산 : 6,100천원	우리고장 출신인 신동엽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충남도내 청소년 대상 백일장
4 교사를 위한 문화유산순례강좌	기간 : 2010. 1. 7~1. 8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40여명 소요예산 : 4,200천원	군내 초·중·고 교사의 향토사 연구를 위한 문화유적 현장 답사
5 문화현장탐방교육	기간 : 2010. 7. 30~12. 30 장소 : 전국문화현장 참여인원 : 360명 소요예산 : 7,100천원	문화원 회원의 교양증진을 위한 안면도꽃박람회, 서울종묘,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인천대교, 광화문광장, 국립중앙박물관 등 답사
6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한아름교실 (우리는 문화가족)	기간 : 2010. 5. 16~12. 30 장소 : 전국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240여명 소요예산 : 3,700천원	가족단위 사적답사, 자연체험, 전통민속놀이, 각종 공연 등 문화체험 활동 전개
7 명사와함께하는 부여답사	기간 : 2010. 4. 24~11. 27 장소 : 전국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710명 소요예산 : 40,000천원	2010 대충청방문의해를 맞이하여 유홍준 교수, 도종환 시인, 신광섭 관장, 김용택 시인 등 문화예술계 명사초청 유적답사
8 향토민속발굴사업	기간 : 2010. 4. 1~11. 30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1만여명 소요예산 : 18,100천원	부여 석성면 봉정리에 전해오는 산신제에 대한 조사보고서 발간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우리고장 출신인 중앙부처 공무원과 우리군과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관내 문화유적 답사	기간 : 2009. 7. 11 장소 : 부여군 문화유적 참여인원 : 50여명 소요예산 : 19,000천원	백제역사문화탐방 9
서동탄생설화가 있는 궁남지에 연꽃축제를 개최함으로 관광객을 증진하는 관광문화축제 메인프로그램 3중, 공연프로그램 7중, 경연프로그램 3중, 상설프로그램 24중(전시, 체험) 등 다채롭게 운영함.	일시 : 2010. 7. 22~7. 25 장소 : 궁남지(사적135호) 참여인원 : 50만여명 소요예산 : 600,000천원	제8회 부여·서동 연꽃축제 10
고려시대 왜적격퇴의 3대 승리인 홍산대첩 관련행사, 최영장군 관련행사, 진동문화행사, 보부상관련행사 등	기간 : 2010. 4. 28(수) 장소 : 홍산면 태봉산성 참여인원 : 2천 여명 소요예산 : 11,000천원	제8회 홍산대첩 문화제 11
새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촛불기원, 새해소망 기원제, 소원지 풍선날리기, 새해운수보기 등 실시	기간 : 2010. 1. 1. 장소 : 임천면 성흥산성 참여인원 : 4,000명 소요예산 : 20,000천원	제11회 성흥산 해맞이축제 12
축제·관광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포지움을 개최 「부여 서동·연꽃 축제」 활성화를 모색코자 함.	기간 : 2010. 1. 26(화) 장소 : 여성문화회관 대강당 참여인원 : 200명 소요예산 : 15,000천원	부여서동연꽃축제 활성화를위한 심포지움 13
매주 일요일 짝수 토요일에 정례적으로 투어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백제왕도 이미지를 부각함.	기간 : 2010. 3. 7~11.28 장소 : 부여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71회(2,250명) 소요예산 : 20,000천원	2010 백제역사 문화탐방 시티투어 14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언어문제, 생활습관 및 문화적 이질감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어 나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교실, 문화유산체험 등의 교육 실시	기간 : 2010. 4. 26~12. 27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40명 소요예산 : 5,000천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우리문화 한아름 교실 15
2003년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이 추서되고 2005년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었던 신동엽 시인의 41주기를 맞아 그의 문학정신과 삶을 추모하는 기념행사 문학의 밤, 문학기행, 추모제 등 다채롭게 운영함.	기간 : 2010. 4. 17~4. 30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1000명 소요예산 : 38,000천원	2010 시인 신동엽 추모문학제 16

부여문화원

부여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7 백제역사문화탐방	기간 : 2010. 7. 22~10. 10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80명 소요예산 : 19,000천원	부여군출신 출향인사 초청 관내 유적견학 및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군정을 홍보하고 협력 증진의 계기 마련
18 제3회 부여군평생학습&주민자치발표회	기간 : 2010. 10. 5~10. 6 장소 : 구드래 광장 참여인원 : 2,000여명 소요예산 : 20,000천원	부여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과를 발표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평생학습 분위기조성 및 자긍심 고취
19 신년교례회	기간 : 2010. 1. 4. 장소 : 청소년수련관 참여인원 : 500여명 소요예산 : 13,251천원	최망천 새해를 맞아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신년세배, 축하행사, 신년교례회 명부등 발간
20 시인 신동엽 흉상 건립기금	기간 : 2010. 1. 2~12. 30 간접장소 : 신동엽문학관 소요예산 : 10,000천원	정부로부터 2005년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신동엽 시인의 문학관에 세울 흉상 건립기금 모금운동 전개
21 관광정보센터운영	기간 : 2009. 1. 1~12. 31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8,000여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에게 관광정보 제공, 유적지 현장설명 등 실시



- 1. 어린이역사교실
- 2. 2010년 세계백제대전
- 3. 제8회 부여서동연꽃축제
- 4. 우리는문화가족
- 5. 전국백제토기물레경연대회

서산문화원

서산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창리영신제 조사연구	연구자: 이필영 분량: 150페이지	서산시에 전해지는 민속문화 중 창리영신제의 체계적인 자료 정립
2 독립운동가 한월당 문집발간	발행일: 8. 5 발행부수: 500부	서산출신의 애국지사 한월당 김상정의 유고를 재발간
3 문화가족 한마당	일시: 11. 24 장소: 서산문화원 대상: 문화원 회원, 문화가족	문화원 회원 및 문화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문화공연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
4 문화유적현장학습	일시: 11.11~14 장소: 중국 단둥,대련,집안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고구려 문화유적의 현장을 답사
5 서산문화대상 시상	수상자: 1명(미정) 일 시: 11. 24 장 소: 서산문화원	향토문화 예술진흥에 공이 많은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
6 청소년문화상 시상	수상자: 3명 일시: 11.24 장소: 서산문화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예행,선행을 실천한 학생을 선발하여 시상
7 서산의 문화인물 기념행사	일시: 5.19 장소: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해미읍성, 경순왕후 생가 인원: 40명	서산을 연고로 하는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한 문화탐방 실시
8 지역문화학교운영	상반기: 3~6월 하반기: 9~11월 인원: 1,000여명 대상: 아동,청소년,성인	평생교육도시 육성에 동참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교양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성년이 되는 통과례로 신체적 정신적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통성년례 실시	일시: 5. 17 대상: 만20세 (육군1789부대 장병) 장소: 중앙효수공원 광장	성년례 9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제고를 위해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문화특강 개최	일시: 10. 6 장소: 서산시문화회관 강사: 이애란 대상: 서산시민	명사초청강연회 10
공주와 부여 일대에서 개최한 2010 세계대백제전 관람을 통해 서산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백제의 후손으로서 긍지 고취	일시: 10. 14 장소: 세계대백제전 행사장 공주, 부여 대상: 서산시민 인원: 40명	세계대백제전탐방 11
문화원의 소식지로 회원 및 출향인사 전국 문화원등에 배포	일시: 연중 발행부수: 월 2,200부	스산의 숨결발간 12
지역의 유물과 향토자료를 전시하여 지역 역사교육의 싹교육장으로 운영	일시: 연중 장소: 서산향토사료관	향토사료관 운영 13
자라나는 청소년의 문학적 정서 함양을 위해 백일장 개최	일시: 4. 10 장소: 서산문화원 대상: 서산시 초,중,고 학생 인원: 600명 수상자: 69명	청소년문학제 14
여성의 사회참여와 문화활동 기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일시: 3~6월 장소: 서산문화원 대상: 성인 여성 과목: 메이크업, 피부미용 인원: 40명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15
충남도지사배민속대제전 시,군별 전통민속경기 대항에 참여	일시: 6. 17 장소: 천안삼거리공원 출전인원: 40명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16

서산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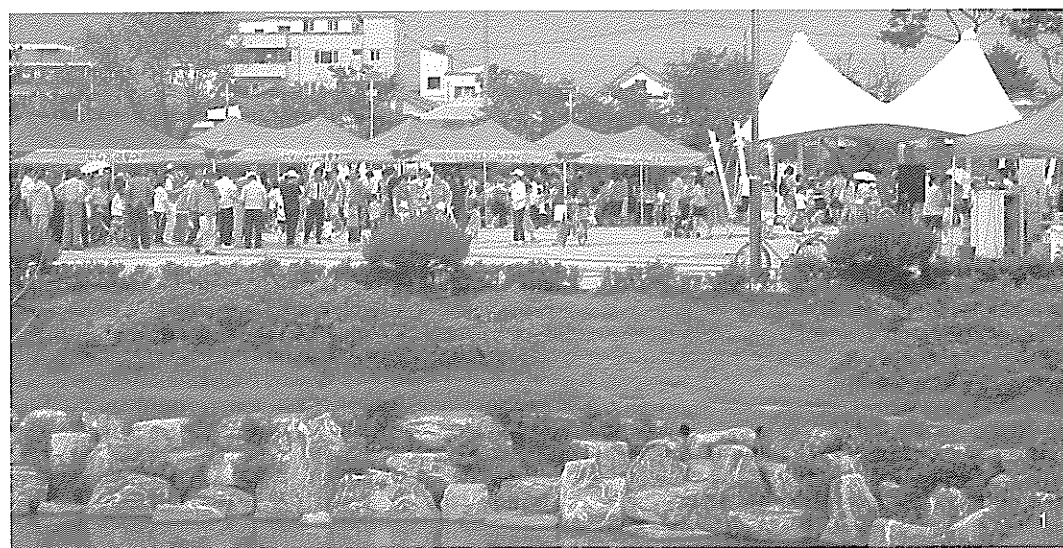
서산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7 단오한마당	일시: 6. 13 장소: 중앙호수공원 광장 인원: 600명 대상: 서산 시민	전통 민속인 단오절을 맞이하여 문화공연과 여름맞이 문화체험행사 개최
18 전통음식만들기	일시: 5. 28~7. 2 장소: 서산문화원 대상: 엄마와 아동 내용: 원소병, 대추초, 구절판 만들기	엄마와 아이가 함께 전통음식을 만들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족간 친밀감을 높임
19 가족문화유적답사	일시: 5. 2, 10. 31 장소: 경기도 국악당 인원: 120명 대상: 부모와 아동	가족과 함께 전통문화 공연장과 체험장을 방문하여 가족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전통문화를 친숙하게 접하게 함
20 노인일자리사업	일시: 3월~9월 인원: 30명 대상: 65세 이상 노인 장소: 노인대학,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서산문화원	65세 이상의 노인을 선발하여 문화소외지역에서 문화교육 강사로 활동
21 어르신문화학교	일시: 3~12월 인원: 30명 대상: 60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의 여가활용 및 문화생산자로서 전통무용 학습과 봉사활동을 통해 자부심 고취
22 찾아가는 다도교실	일시: 6~7월 대상: 초등학생 장소: 부성초, 가사초, 운신초, 성연초 병설유치원	찾아가는 다도교육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에게 우리의 전통 차문화 알리는 기회를 가짐
23 지방문화원 특성화사업	일시: 6~7월 대상: 학생 장소: 서산서림유치원, 부석초, 음암초, 대산중, 성연초, 인지초 인원: 850명	서산의 도지정무형문화재인 서산박첨지놀이 전통인형극을 청소년을 찾아가 공연하고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알림
24 여성인적자원 개발프로그램	일시: 3~9월 대상: 성인 여성 인원: 200명	여성의 전문성 신장과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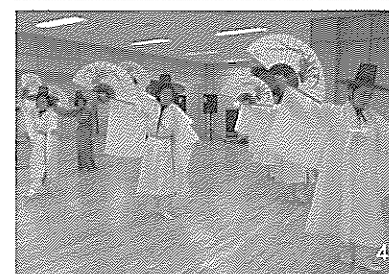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전통공예의 대중화를 위해 서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일시: 9~11월 대상: 서산시민 인원: 80명 내용: 자수공예, 규방공예, 한지공예, 도자공예	25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학습효과 제고	일시: 1~2월 대상: 저소득층 학생 인원: 60명 내용: 어린이 북아트, 다도	26 희망세상 만들기
세계대백제전 시군참여프로그램 참여로 장동과 덕지천동에서 행해지던 용대기놀이를 발굴하여 시연	일시: 10. 10~11 장소: 세계대백제전 행사장 (공주, 부여) 공연인원: 150명 관람인원: 500명	27 용대기놀이 시연
학생과 부모가 함께 서산의 문화재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행사와 문화공연 개최	일시: 5. 8 장소: 서산문화원 대상: 학생, 서산시민 내용: 향토자료관 관람, 전통문화체험, 문화공연 인원: 200명	28 신나는 전통문화체험
지역의 저명한 문화예술 전문가를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서산의 문학과와 문학을 배우는 1박 2일 문학기행 개최	일시: 10~11월 장소: 홍성보령,장수 명예교사: 유용주 대상: 중,고등학생 인원: 60명	29 지역명예교사사업
서산의 문화재와 문화를 청소년의 시각으로 비라보고 정리하여 학교에 배포	문화책자발간 발행부수: 500부	30 청소년을 위한 문화책자발간
어른들에게 전승되어 오던 서산박첨지놀이를 청소년이 직접 배워 시연하여 학생들에게 공연	일시: 10~11월	31 청소년 박첨지놀이
매주 금요일 서산문화원 다도실을 개방하여 누구나 방문하여 전통차를 마시고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일시: 4~6월 장소: 서산문화원 다도실	32 차마시는 날 운영

서산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33 다문화전문강사 파견	일시: 6월 장소: 서산노인대학 인원: 120명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연
34 양렬공 정인경선생 학술발표	일시: 11. 4 장소: 서산문화원 인원: 150명	양렬공 정인경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35 기능보강사업	일시: 2월 장소: 서산문화원 구입물품: 책상, 의자, 사물함	문화원 기자재를 구입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서산문화원



1. 단오한마당
2. 가족문화유적답사
- 3,4,6. 문화학교
5. 문화탐방

서천문화원

서천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문화교육 프로그램	일시 : 2010.1월~ 12월 장소 : 다목적실 참석인원 : 2,000여명	문화프로그램으로 문화향수를 조금이나마 해소할수 있도록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킬트, 서예, 성독, 한시동아리, 시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2 제12회 기벌포	대보름제 일시 : 2010. 2. 27. 장소 : 서천문화원 참석인원 : 1,000여명	질매다리 체험행사, 길놀이, 창작 및 전통연 날리기대회, 전통놀이 한마당, 뿔날이대회, 대보름 전통 체험프로그램(부럼, 액마기체험, 연만들기) 투호 및 인절미 떡치기, 보름음식나누기,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함.
3 제37회 청소년문예백일장 및 제10회 신석초백일장	일시 : 2010. 9. 07. 장소 : 서천문화원 참석인원 : 200여명	신석초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37회 그리기, 붓글씨 및 제10회 신석초백일장을 연계하여 초·중·고·고등부 를 대상으로 개최하여 심사후 추후 상장과 상품을 수여함.
4 문화가족유적답사	일시 : 2010. 5. 22 장소 : 안면도꽃박람회 참석인원 : 80여명	서천군민과 회원가족들을 대상으로 고창 일대 유적지를 찾아 그지역의 역사와 옛 선인들의 생활상을 돌아봄으로 선인들의 지혜와 삶을 느낄수 있었음.
5 학술지 발간	발행일 : 6. 30 발행부수 : 300부	2009년도 신석초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논문을 취합하여 학술지 발간
6 임동범 초대전	일시 : 2010. 12월 중 장소 : 문예의전당 참여인원 : 500여명	서천군 출신 작가 초대전 공모하여 "임동범 개인초대전" 40여 작품을 전시하여 작품속의 작가 이야기를 감상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다음 초대전을 기대하는 서천의 미술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자 함
7 전시프로그램운영	일시 : 2010년 12. 4~6. 장소 : 서천문화원 참석 : 1,000여명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이며 서천군내의 문화시설이 전무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서천문화원에서는 문화원 특성화 사업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수를 참여와 소통의 공간으로 마련하였음.
8 제10회 기벌포 예술제	일시 : 2010. 12. 6~10 장소 : 문예의전당, 서천문화원 참여인원 : 1,000여명	다양한 전시, 공연, 문학의 밤, 학술세미나, 가족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서천의 문화예술인들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고유문화개발사업으로 우리지역 출신인 신광하의 문집인 "진택집" 을 문부문과 시부문으로 나누어 번역사업을 계획하고 우선 문부문의 번역을 의뢰하였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자료집을 집대성하여 학술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일시 : 2010.01.-12. 장소 : 서천문화원 부수 : 20 부	9 학술연구사업 "진택집 번역 사업" 자료집
서천지역의 근대건축물의 분포 현황조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발표회를 통하여 서천군민의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보존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발행일 : 12. 15 발행부수 : 300부	10 향토민속발굴사업 "근대 건축물 분포현황 조사"
장항공공도서관 위탁사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용, 열람,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설치하여 활용공간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기간 : 2010년~2011년 장소 : 장항공공도서관	11 장항공공도서관



1. 이취임 기념사진
2. 유적답사
3. 기벌포 대보름제
4. 대보름

성환문화원

성환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세시풍속유희놀이	일자 : 2. 24 장소 : 본원 참석인원 : 100명	민속놀이를 통한 화합 단결 및 민속놀이계승
2 노인교양강좌	일자 : 3. 3 ~ 5. 26 장소 : 성환노인대학 참석인원 : 매 60명	건강한 노인생활 및 레크레이션 강좌
3 컴퓨터교실 「1, 2, 3, 4, 5, 6」 [문화학교프로그램]	일자 : 1차-3. 8~3. 26 2차-4. 5~4. 23 3차-5. 3~5. 26 4차-6. 7~6. 25 5차-10.11~10. 29 6차-11.15~12. 3(매주 월~금요일) 장소 : 본원 참석인원 : 매 20명	인터넷 한글2007
4 서예교실 [문화학교프로그램]	일자 : 7. 26 ~ 8. 18 (매주 월~금요일) 장소 : 본원 참석인원 : 30명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 궁체지도
5 여성취미교실	일자:1차-4. 13 ~ 5. 18 2차-6. 15 ~ 7. 20 3차-10. 12 ~ 11. 16 장소 : 본원 참석인원 : 매 60명	생활꽃꽂이 지도
6 문화사랑방 (지역문화홍보관운영)	일자 : 3. 8 장소 : 성환문화원 방법:문화사랑방 운영	천안 관련 각종 역사, 문화 자료를 알기 쉽게 디지털 검색, 열람케 함.
7 제20회 내고장문화유적 답사	일자 : 4.2 / 10.12/11.29 장소 :백제문화권일원 참석인원 : 매 40명	유적지 답사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와 애항심을 함양시킴
8 사이버향토 문화원관리	일자 : 연중 http://sunghwan.cult21.or.kr	홈페이지운영으로 지역 정보 및 문화활동 홍보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고려시대에 행해졌던 도량제를 재현하여 지역민들에게 역사관과 향토사 정체성을 확립시킴	일자 : 10. 20 장소 : 봉선홍경사사적 갈비 앞 참석인원 : 500명	제2회 봉선홍경사지 아파트구신 도량제 9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내고장자랑에 관한 글짓기 공모, 시상	일자 : 10. 30 장소 : 남서울대학교 참석인원 : 350명	제27회 내고장자랑 글짓기 10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공모, 시상	일자 : 10. 30 장소 : 남서울대학교 참석인원 : 300명	제20회 애항의식고취 그림그리기 11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경로효친에 관한 서예공모, 시상	일자 : 10. 30 장소 : 남서울대학교 참석인원 : 50명	제12회 경로효친 회화대회 12
글짓기,그림,회화대회 입상작품집 발간	발행 : 11. 23 발행부수 : 500부 260작품(국판칼라)	입상작품집 발간 13
내고장 출신의 미술작가의 작품을 전시	*일자: 12월 중 *장소:성환읍사무소 *관람인원 : 600명	제10회 향토작가 초대전 14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정서함양 기회마련	*일자 : 11 ~ 12월 *장소 : 관내학교 *참석인원 : 1,200명	청소년음악회 15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에 관한 강의	*일자 : 11 ~ 12월 *장소 : 관내학교 *참석인원 : 800명	청소년 문화강연회 16

성환문화원

아우내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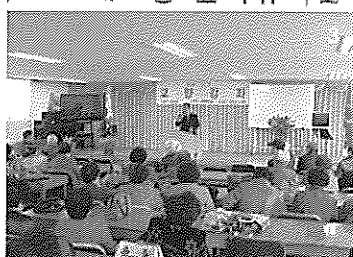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7 천안의구비설화 (입장면편)발간	발행 : 12월중 발행부수 : 2,000부 (4*6배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소멸되어가는 농촌지역의 전통문화 중 전설, 설화의 조사, 보존으로 문화적 정체성 확보에 기여
18 향토문화지 (국역 윤초기원)발간	발행 : 12월중 발행부수 : 1,000부 (신국판)	우리고장의 향토사를 조사,정리하여 발간



1. 제2회 봉선홍경사지아미타구 신도량제
2. 내고장 문화유적답사
3. 노인 교양강좌
4. 제2회 경로,효친 원호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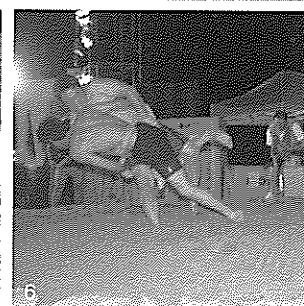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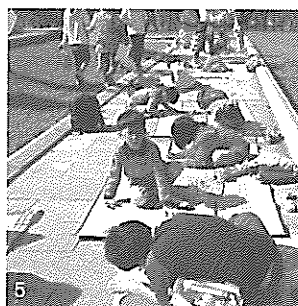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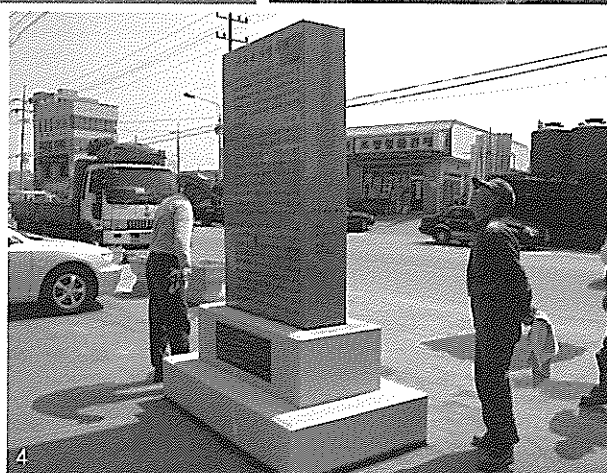
20회 내고장 문화유적답사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음력 5월 5일 단오절 시기에 맞추어 단오제례 및 지역문화공연과 민속놀이 경연대회 시행	민속놀이 경연대회 일시 : 10. 6. 10 09시 장소 : 아우내장터 내 참석 : 2,000명	단오절 민속놀이 경연대회 1
60회가 넘는 전통 깊은 민속씨름대회로 노래자랑과 씨름대회 개최	일시 : 10. 8. 28 16시 장소 : 가전리 씨름장 참석 : 500명	백전씨름대회 2
청소년들의 애국사상 고취와 유관순열사를 통한 나라사랑 정신계승과 더불어 창작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대회. 매년 유관순열사 추모일에 맞춰 개최	일시 : 10. 9. 28 10시 장소 : 유관순기념관 내 광장 참석 : 천안시 초·중·고학생 200여명	백일장 및 사생대회 3
지역의 역사적 위인의 일대기를 쉽고 빠른 이해를 위해 만화책으로 발간. 2009-김시민장군만화책 2010-조병옥박사만화책	발행일 : 10. 9. 15 발행부수 : 1,200권	향토민속발굴 만화책발간 사업 4
아우내지역 지명 유래의 확립과 외부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제작일 : 2010. 3 위치 : 아우내문화원 광장 내	아우내 지명유래비 제작 5
사이버문화원을 통한 문화재 영상촬영 및 자료 보존 활동 시행하였고 문화소외계층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문화학교 운영 및 문화유적답사를 통한 문화활동전개 지원	일시 : 2010 대상 : 지역민 및 관할지역 문화소외계층과 연회원	문화활동사업 6

아우내문화원

연기문화원



1. 단오절 민속놀이 경연대회
2. 만화책발간
3. 문화탐방
4. 지명유래비 제작
5. 백일장및사생대회
6. 백전씨름대회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새해맞이 특별공연을 통한 군민의 화합단결의 자리 마련	일시 : 01. 05. 10시 30분 장소 : 연기군민회관 대강당 참여인원 : 400명 대상 : 연기군민	2010 새해맞이 특별공연	1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윷놀이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인의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일시 : 02. 20. 12시 장소 : 연기군민회관 소강당 참여인원 : 50명 대상 : 문화가족	대보름맞이 윷놀이대회	2
제례(역대왕 및 충렬) 군민의 안녕과 번영 기원	일시 : 04. 15. 11시 장소 : 비암사 참여인원 : 300명 대상 : 일반인	백제대제	3
개인택시조합과 결연하여 연기군내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문화유적답사	일시 : 04. 27. 9시 장소 : 예산일원 참여인원 : 150명 대상 : 연기군내 65세 어르신	경로효친의 달 행사	4
전통방식에 따른 우리 고유의 성년식을 지역대학생들과 실시함으로써 문화원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	일시 : 05. 20. 10시 장소 : 연기군민회관 대강당 참여인원 : 10명 대상 : 성남고등학교	성년의 날 행사	5
8개읍면 대상으로 읍면장 및 학교장 추천을 받아 효자효부 및 효행학생을 선출하여 표창	일시 : 05. 20. 10시 30분 장소 : 연기군민회관 대강당 수상인원 : 7명 대상 : 연기군민	효자효부 표창	6
연기군내 65세 이상 어르신 동아리별로 발표의 장 마련	일시 : 05. 20. 11시 장소 : 연기군민회관 대강당 참가팀 : 5팀 참여인원 : 70명 대상 : 연기군내 65세 노인	어르신 동아리 발표회	7
연기군으로 전교한 선생님들과 함께 연기군내 문화유적답사	일시 : 05. 26. 14시 장소 : 연기군내(비암사, 전의초수) 참여인원 : 30명 대상 : 연기군 전교한 선생님	문화유적답사	8

연기문화원

연기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9 대전실버경연대회	일시 : 06. 10. 14시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 참여인원 : 12명 대상 : 65세이상 노인	전국 65세이상 어르신들 동아리 경연대회(장려상 수상)
10 제9회 수원화성 주부국악제 참가	일시 : 06. 12. 10시 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참여인원 : 4명 대상 : 주부	민요부문에 출전하여 으뜸버금상 수상
11 2010세계대백제전 답사	일시 : 09. 28. 9시 장소 : 부여, 공주 참여인원 : 40명 대상 : 문화원 임원	문화원 임원들과 함께 부여, 공주일원 답사
12 2010 세계대백제전 풍물경연대회 참가	일시 : 10. 03. 10시 장소 : 부여 청소년수련원 참여인원 : 15명 대상 : 연기문화원 풍물단	풍물부문에 출전하여 장려상 수상
13 문화원의 날 행사 (2010 대한민국 문화원상 수상)	일시 : 10. 08. 14시 장소 : 서울 동직문화원 참여인원 : 40명 대상 : 전국 문화원 회원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문화인이 한자리에 모여 행사를 가지고자 함
14 연기대접제	일시 : 10. 22. 10시 장소 : 서면 연기대접공원 참여인원 : 100명 대상 : 연기군민	우리나라 7대첩 중 하나이며, 국난극복의 충신을 기르는 제례
15 2010 청소년 웅변대회	일시 : 10. 22. 11시 장소 : 서면 연기대접공원 발표학생 : 3명 대상 : 연기군 중고 학생	충효의 본고장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자 웅변대회 개최
16 제3회 충남예술제	일시 : 10. 22. 13시 장소 : 논산 참여인원 : 30명 대상 : 문화가족	충남도내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남의 문화예술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창작의욕 진작 및 향토고유문화창달의 계기마련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연기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기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의 기회제공	기간 : 8월 장소 : 연기군민회관 소강당 참여인원 : 70명 대상 : 연기군 초중고 학생	제2기 내고장 강산 역사이야기 17
아마추어 청소년들의 발표의 장	일시 : 12. 01. 14시 장소 : 조치원여고 체육관 참여인원 : 300명 대상 : 조치원여고학생, 일반인	아마추어 예술가 발표대회 18
연기소리봉사단이 일년동안 길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발표의 장	일시 : 12. 02. 14시 장소 : 진동면 방주의 집 참여인원 : 150명 대상 : 연기군민	연기소리봉사단 발표회 19
연기군내 판소리 발표의 장	일시 : 12. 08. 14시 장소 : 조치원신흥 대강당 참가팀 : 4팀 대상 : 연기군내 동아리	퓨전판소리 공연 20
아마추어와 프로가 함께 공연의 장 마련	일시 : 12. 09. 14시 장소 : 연기군민회관 대강당 참여인원 : 300명 대상 : 연기군민	국악한마당 21
꿈나무들과 인간문화재 함께 하는 가야금 공연	일시 : 12. 14. 14시 장소 : 연기문화예술회관 참여인원 : 800명 대상 : 연기군민	인간문화재 강정숙선생님과 함께 하는 가야금 공연 22
예향연기의 맥을 잇는 순수서예인들의 뜻을 같이 하여 주옥같은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	일시 : 12. 17. 11시 장소 : 연기군민회관 전시실 참여인원 : 100명 대상 : 연기군내 서예인	연맥서화전시회 23
연기군내 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기의 문화예술 발전방안 모색코자 함	일시 : 12. 17. 18시 장소 : 수정웨딩홀 참여인원 : 150명 대상 : 연기군 출향, 재향인	출향, 재향 문화예술인의 밤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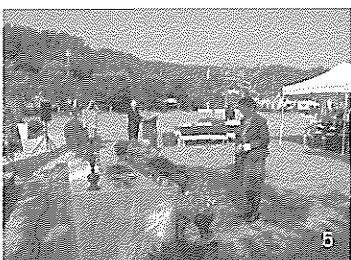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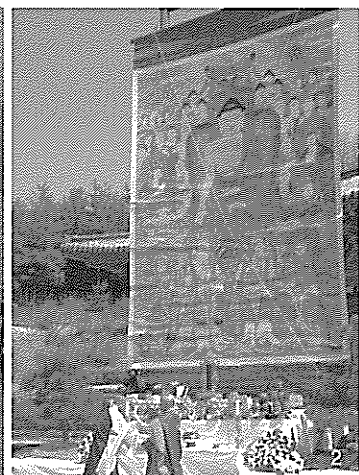
연기문화원

연기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25 연기군민 생활문화 강좌	기간 : 3 ~ 12월 장소 : 연기군민회관 대강당 횟수 : 10회 대상 : 연기군민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연기군민들에게 정보지식 습득과 교양지식 제공
26 제3기 연기문화해설사	일시 : 7월 ~ 10월 장소 : 연기문화원, 충남도내 참석 : 20명 대상 : 연기군민	연기군내 문화유적 및 역사 교육
27 영화상영 및 특별공연	기간 : 7월 ~ 12월 장소 : 연기군내 참석 : 1,000명 공연횟수 : 6회 대상 : 연기군민	연기군내 읍면을 돌며 문화에 소외되어 살고 있는 분들을 방문하여 영화상영을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일깨워줌
28 전통놀이 교육	기간 : 6월 ~ 12월 장소 : 연기관내 참석 : 80명 대상 : 연기군민	우리 옛날 양반놀이 전문강사 보급 교육 및 실습
29 소리장구와 구전동요 교육	기간 : 7월 ~ 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참석 : 30명 대상 : 연기군민 어르신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소리장구와 구전동요를 교육
30 찾아가는 가야금 교실	기간 : 3월 ~ 12월 장소 : 연기군내 초중고 학교 참여인원 : 80명 대상 : 연기군내 초중고 학생	연기군내 초중고 학교를 찾아가는 가야금 교육
31 독후감 공모	기간 : 9 ~ 11월 참가수 : 109작품 대상 : 연기군 초중고 학생	연기군내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위인전을 읽고 독후감 공모
32 판소리 및 가야금교실	기간 : 1월 ~ 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민요교실 참석 : 30명 대상 : 연기군민	서양음악에 젖어 있는 세대들에게 우리악기를 다룰 수 있는 기회 및 우리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매주 월~금요일까지 웃다리 풍물놀이 및 난타 교육	기간 : 1월 ~ 12월 장소 : 연기군민회관 풍물교실 참여인원 : 50명 강좌수 : 2과목 대상 : 일반인	33 풍물교육 및 연습
매주 화요일 경기민요 매주 목요일 남도민요 노래가락 및 편소리 교육	기간 : 1월 ~ 12월 장소 : 연기군민회관 풍물교실 참여인원 : 30명 강좌수 : 2과목 참석 : 30명	34 국악단 교육 및 연습
향토사료조사 연구활동 및 내고장 향토문화교육	기간 : 1월 ~ 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향토사료실 참여인원 : 30명	35 향토사연구활동
주부들의 교양증진 및 취미활동 (다도, 노래교실)	기간 : 1월 ~ 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민요교실 참여인원 : 80명 강좌수 : 2과목 대상 : 일반인	36 주부교양강좌
각종 고서적 및 월간지 주간지를 구입하여 연기군민이 문화원을 방문시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도록 운영	기간 : 1월 ~ 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향토사료실 대상 : 연기군민	37 독서실 운영
다양한 문화 강좌를 교육할 영어, 일어, 중국어, 서예, 민화, 사군자, 청소년판소리, 요가, 스포츠댄스, 통기타, 청소년요리	기간 : 1월 ~ 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내 참여인원 : 300명 강좌수 : 11과목 대상 : 문화가족	38 문화학교 운영
연기소식지를 발간, 배부하여 문화원을 홍보함	기간 : 1월, 4월, 7월, 10월 참여횟수 : 4회 발간부수 : 12,000부	39 연기소식지 발간

연기문화원



1. 문화원상
2. 백제대제
3. 도원문화제
4. 문화해설사 답사
5. 연기대첩제 한화
6. 신년교례회 및 새해맞이 공연

예산문화원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매해 신년 1월1일 7시를 전후하여 예당호 일출과 떡국을 나누며 예산군과 예산군민의 한해의 무운강령함을 기원하는 행사.	매해 신년 예당호 조각공원에서 신년 해맞이를 통한 예산군과 군민들의 무운강령함을 기원하는 행사.	2010 경인년 “예당호 해맞이”	1
예산군내 기관 단체인사 및 출향인사가 참여 하여 새해를 맞아 예산군의 발전을 위한 덕담과 환소의 장 마련.	매해 신년 첫째 화요일 진행	2010 경인년 예산군 신년교례회	2
사진동아리 예담 전시지원연주 동아리 여섯줄 공연지원 그룹사운드 락소리대 공연지원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을 통한 연주회등 예산군민의 공연문화 향유 제공.	아미추어문화 동아리지원사업	3
2010년 예산군의 전반에 걸친 문화 소식지 “예산문화43호” 발간.	향토사 및 문화계 소식지 발간 사업	향토문화관련 서적 발간	4
매년 10월경 예산군 대흥면 소재 임존성에서 백제의 부흥을 위해 마지막 가지 항거하였던 부흥군의 혼을 기리는 위령제 및 군민누구나 참여하는 임존성 성지 순례 행사.	백제 부흥군의 마지막 항거하였던 임존성에서백제 부흥을 위해 마지막 가지 항거 하였던 백제 부흥군의 혼을 기리는위령제 및 임존성 성지 순례.	예산군 “대흥 임존성백제 부흥군위령제”	5
추사고택일원에서 추사선생님의 기일인 음력 10월10일을 양력으로 10월10일을 전,후하여 2일간 펼쳐지는 당일명제 당일 휘호대회 방식의 추사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 및 전국 청소년 휘호대회 개최와 서예관련 체험 및 순회전시회 개최	1.추사김정희선생 서세154주기 추모제례 2.제12회 전국 청소년휘호대회 3.제21회 전국휘호대회	추사김정희선생 추모전국휘호대회	6
서예강좌, 한국화강좌, 시조강좌 한학강좌, 어린이발레스쿨, 주부가요교실, 작장인밴드, 풍수지리교실, 오카리나교실	년중 상, 하반기 문화학교운영	문화학교 운영	7
예산의 인물사 발간	예산의 풍속 및 전통의 발굴을 통한 서적 편찬 보존 사업	향토민속발굴사업	8

예산문화원

예산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9 향토문화보존사업	세시풍속지원 및 전통문화 보존	대흥면 갈산리 장승제, 예산읍 간양리 덕방산 산신제, 신암면 조곡리 산신제, 대흥면 교촌리 행당제, 예산읍 공원산 민속제 내포제 시조보존 사업
10 문화가족 행사	매년 상·하반기 문화가족 문화탐방	문화 가족 문화탐방으로 상반기 새만금 방보제 및 대백제전 참관
11 호룡불 문화체험단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추사고택에서 호룡불 문화체험단 운영	예산의 추사고택에서 초등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중 2박3일간 머물며 추사선생님의 얼을 기리는 서예수업 및 고택 체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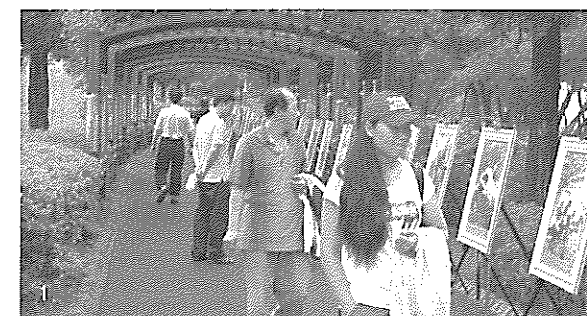
1. 백제부흥군위령제
2. 문화탐방
3. 사랑나눔콘서트
4. 꽃꽃이교실
5. 제2회추시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후회대회
6. 호룡불문화체험단

온양문화원

온양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2010년 민속놀이 경연대회	일시 : 2010. 2. 28 10:00 장소 :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참여인원 : 각 기관단체 및 아산시민 300여명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 경연을 통한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 전통 민속놀이 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
2 제2회 아산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일시 : 2010. 4. 4 10:00 장소 : 선도중학교 및 기미독립무인열매기념탑 참석인원 : 각 기관단체장, 학생들을 포함 500여명	학생과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 및 전문 극단의 현장감 있는 독립만세운동 퍼포먼스를 통하여 아산지역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됨
3 고향의 날 행사	일 시 : 2010년 9월 20일 장 소 :그랜드호텔 2층 갤러리홀 참 석 : 200명	많은 내빈과 향우회(회장정운택), 재인천아산시민회(회장 이상만) 회원 및 향우 200여명이 참석하여 고향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조선의 마지막황태자 이석씨의 공연과 이계준의 전통품바 각설이타령이 분위기를 더욱 즐겁게 조성.
4 제11회 아산청백리상 및 제12회 어린이맹사성상 시상식	일시 : 2010년 10월 11일 장소 : 온양문화원 3층 강당	온양온천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고불맹사성의 청백리 정신을 기리고자 시행하는 행사로 이번 시상에는 김명석(선비상), 최병정(소승상), 황관주(지킴이상), 장성준(지킴이상) 이상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어린이맹사성에는 조유진(충), 이수민(효), 이혜은(예), 전지현(의), 김재령(문) 이상 5명의 어린이가 선발되어 시상식 을 가짐
5 6.25사진전	일시 : 2010년 6월 16일~27일 장소 : 관내 학교 및 온양온천역광장	6.25전쟁당시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100여점을 순회하며 전시한다.전쟁사진 기획전시는 사전에 전시회 신청을 받아 16일 온양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도고온천초등학교, 아산중학교, 천도초등학교, 금곡초등학교등 5개교를 순회하며, 신정호국민 관광단지 및 온양온천역광장 주변에서 아산시민과 관광객들을 맞는다. 6.25전쟁사진 전시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당시의 사진을 통하여 6.25 전쟁의 참상을 바로 알리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6 제4회 맹정승 골든벨을 울려라	일시 : 2010년 10월 16일 장소 : 음봉중학교	온양온천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되는 행사로 사성관련문제 와 아산시 역사관련 문제가 함께 출제되어 학생들의 지역문화 바로알기에 큰 도움이 되었고, 학교와 학생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1,3. 6.25사진전
- 2. 고향의 날
- 4. 골든벨
- 5. 아산청백리상
- 6. 어린이맹사성상



청양문화원

청양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2010 신년 교례회	일시:1.5 오전11시 장소:아리랑뷔페 참석인원:250명 산년사 축사 상호교례 다과 및 오찬	새해를 맞아 군내 각 기관 각계각층을 망라한 인사들을 모시고 새해인사와 함께 지역사회의 단결을 다짐하는 신년하례식
2 문화학교	기간:1.4~1.29 장소:청양문화원 수료인원:102명 동계청소년문화학교 -미술교실 -폴아트목재공예교실 -벨리댄스교실 -중합공예교실 -어린이장기교실 -종이접기교실 (계6강좌) -영화상영(무료) 기간:7.26~8.20 장소:청양문화원 수료인원:113명 하계청소년문화학교 -어린이음악난타교실 -미술교실 -폴아트교실 -중합공예교실 -종이접기교실 -벨리댄스교실 (계6강좌) -영화상영(무료)	문화적 기반시설이 미약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 학기간중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함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유익한 방학을 보낼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 마련 수료식때 강좌별 발표회 시간을 가져 문화학교 수업기간동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참여 유도
3 칠갑산 장승문화 축제	일시:4.24 10:30~17:00 장소:칠갑산 장승공원일원 참석인원:16,000여명 분행사 -개막식 -칠갑산장승대제 -제막식 -장승명문식 -장승짜기시연 -마을장승제시연 -가족장승짜기 부대행사 -학생그리기대회 -가족허수아비창작공모전 -나만의 우표만들기 -소원성취기원문열기 -소지율리기 -윤금선무용단 초청공연 - "유정" 서머퍼포먼스 -청양문화원 국악팀공연 -영동포문화원공연 -가수 "김태곤" 공연 -마당극 "백수" 공연 -국악선동 "송소희" 공연 -미술공연, 풍물공연 -페이스페인팅 -가족싸주기, 사진전시회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한국제일의 장승문화 보존지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칠갑산을 연계한 관광문화 축제로 육성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유적지순례를 통해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체험하며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	제1차 일시:3.26 참여인원:31명 순례장소 광양시 문화유적지 -광양매화마을, 최첨판택세트장, 화엄사 외 제2차 일시:10.26 참여인원:38명 순례장소 경주시 문화유적지 -경주 양동마을 (유네스코지정)	문화회원 유적지 순례
	응모기간:6.7~6.25 총의선열추모 한글작품공모전 -특선(초등1, 중등1, 고등1) -佳作(초등1, 중등1) -입선(초등2, 중등2, 고등2) -장려(초등2, 중등2)	지역사회 교육
1차:남양초등학교 2차:정산초등학교 3차:수정초등학교	1차:6,16(65명) 2차:7,19(124명) 3차:7,21(37명) 충남권 문화유적지 및 현충(충의)시설순례를 통해 지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민족정기선양과 효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순례장소 서산매암삼존불,간월도 간월암,해미읍성 김좌진장군생가, 한용운선생사당	청소년 역사체험 순례
청양난우회	기간:2.28~3.1 장소:문화원 3층 제6회 청양군 난전시회	
청양무용회	기간:6월~12월 장소:문화원 3층 한국무용강좌 -제3회 충남문화예술제 공연	
음악씨름 한사랑	일시:7.24 장소: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한사랑 음악회	문화가족 씨름운영
청양향토사연구회	1차:6.11(16명) 2차:11.16(18명) 제1차 향토사연구위원 조사활동 -홍성:구백의총, 김좌진장군유적 -서산:해미읍성,간월도간월암 -당진:북지점장군 유적 제2차 향토사연구위원 조사활동 -청양:모덕사, 정혜사, 안심사 기타 유적지	

청양문화원

청양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문화가족 씨름운동	일시:8.20 장소:자연사박물관 이소도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문화학교 수료생
	일시:8.21 장소:관내 유적지 청양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청양문화유적지킴이
	기간:10.8 장소:문예회관 소공연장 색소폰 공연	청양군 색소폰모교지
	기간:10.20~10.22 장소:문화원전시실 제8회 청양서우회전	청양군 서우회
	기간:11.26~11.28 장소:문화원전시실 제16회 청양칠갑사진회 회원전	청양칠갑사진회
	일시:11월중 조상헌장당사	정산 풍수지리학회 청양학회
	일시:11.19 장소:문화원 3층 제8회 청양군 바둑대회	청양군 바둑협회
	기간:연중 장소:문화원 2층 국악교실(가야금, 창구, 민요)	국악교실
	기간:연중 장소:문화원 2층 풍물교실	청무풍물패
	기간:12.17~12.21 장소:문화원전시실 제3회 칠갑미술전	청양군 미술협회
	기간:연중 장소:정산면사무소 정산 풍물교실	정산 풍물동아리
	기간:연중 장소:정산면사무소 정산 서예교실	정산 서예동아리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출향.문화예술인 초청	일시:11.12 장소:문화원 2층 및 문화유적지 참여인원: 40명 내고장 문화일리기 -상초교래 -문화유적지 탐방 (상익사, 다락골줄무덤, 한용운생가)	애향운동 8
	일시:12월중 장소: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송년음악회 문화가족씨름공연 -국악교실 -청무풍물패 -청양무용회 -청양군색소폰모교지	송년음악회 및 문화가족 씨름공연 9
칠갑문화 20호	발행부수:1,000부 발행일:12월 향토민속발굴 내고장문화유산 교육자료 발간	발간사업 10
영화감상교실 운영 영화 및 음악감상을 통한 청소년들의 취미생활과 정서교육에 기여	기간:년중 자료열람실 (전국향토자료집 및 일반도서)운영	문화코너 운영 11
민속사료를 통하여 옛 선인들의 지혜와 당시의 생활방식등을 알수 있는 계기 마련	기간:년중 향토자료전시관 역사인물관, 문화재관, 영상실 생활문화관, 민속 및 종교관 운영	향토자료관 운영 12
각종 지역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지역문화 및 지역 정보센터로 운영함.	일시: 년중 홈페이지 주소: cheongyang.cul121.or.kr 문화소식 청양의 역사소개 축제/행사 참여마당 등	사이버문화원 운영 13

청양문화원



1. 문화가족씨름수업(청림서학회)
2. 문화학교수업(난타교실)
3. 부모님과 함께하는 문화체험도예제향
4. 제3회 충남문화예술제(한국무용부 공연)
5. 칠간산장승문화축제(서예퍼포먼스)
6. 청양군 난전시회

태안문화원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지역에서 전래되어 오던 당제를 전승 할 수 있도록 지원함. 태안지역의 현재 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의 당제 행사를 계승 지원하여 그 맥을 이 어갈 수 있도록 함	일시 : 음력 정월중 실시 장소 : 남면 당암리, 원정리, 신장리2구(산신제), 소원면 파도리, 고남면 누동리, 근흥면 신진도리 대상 : 각 마을주민	당제전승.보존	1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정월 보름 전날에 긴 장대를 마당 한복판에 세우고 새끼줄을 꼬아 세갈래로 지지해서 세워두었다가 머슴의 날인 음 2월 1일에 벗가릿대를 뉘인다. 이때 장대 끝에 매달아 두었던 곡식을 가지고 한해의 풍.흉을 점치는 의식으로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민속행사	일시 : 3. 16.(음2. 1) 장소 : 이원면 관리 1구 벗가릿대놀이 전수회관 참여인원 : 100여 명 대상 :기관장 및 마을주민	이원벗가릿대놀이	2
다양한 문화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원 강당을 이용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매주 자료집을 발행하고 영화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함	일시 : 5. 1~10. 16(12회) (매주 첫째 셋째주 토요일 오후3시) 장소 : 태안문화원 2층 강당 참여인원 : 500 여명 대상 : 태안군민	주말영화교실	3
항토민속문화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역문화정보를 사이버 상에서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함	일시 : 연중실시 장소 : 태안문화원 홈페이지	사이버문화원	4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풍경, 경험화 등 사생대회를 실시함	일시 : 10월 25일~11월 10일 접수 : 문화원 공모로 실시 참여인원 : 300여 명 대상 : 초.중학교	초.중미술실기대회	5
문예작품, 향토문화, 특별기고, 각종 문화예술계소식, 문학작품, 우리고장 문화소식 등을 수록한 책자발간	일시 : 원고모집 11. 30 마감 참여인원 : 10여 명 대상 : 태안군민 누구나	소성의향기16집발간	6
지역문화예술인 현황과 활동사례발표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관람,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토론회, 지역문화예술정책과 방향에 대한 강연, 친교의 시간 등을 실시	일시 : 12월 17일 장소 : 문화예술회관 참여인원 : 300여명 대상 : 태안예술인	태안군 문화예술인토론회	7
지역적, 사회적 여건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초청 또는 방문을 통한 무료 문화공연을 실시함	일시 : 연중실시(총3회) 장소 : 부대, 학교, 요양원 등 참여인원 : 200여명 대상 : 태안군내 소외계층	움직이는 문화공연	8

태안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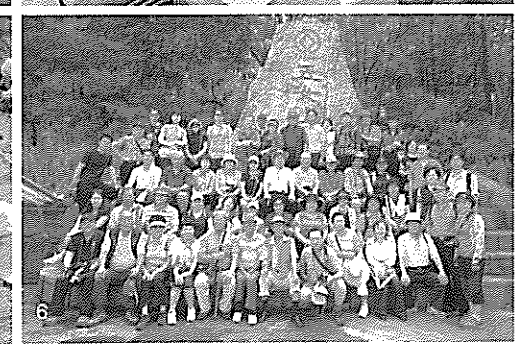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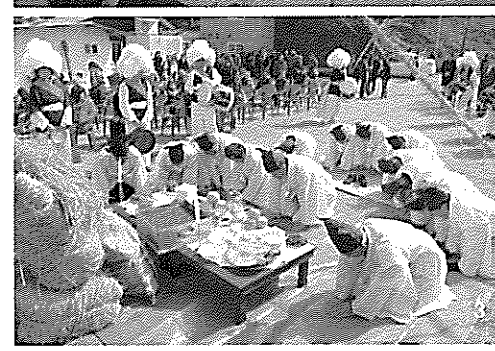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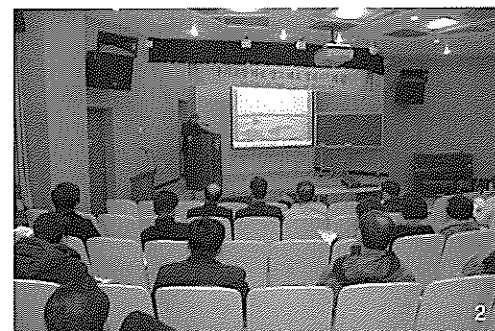
태안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9 지역문화교류사업	일시 : 미정 장소 : 태안군, 의왕시 대상 : 의왕문화원, 문화가족	의왕문화원과 자매결연 문화원으로 서로의 문화교류사업과 경기도권 답사
10 제2회 충남문화예술제	일시 : 10.20~24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참여인원 : 20여 명 대상 : 태안지역 예술인	충남지역문화예술인들의 문화교류를 위한 연합행사로 충남지역문화예술발 전을 위한 토론 및 발표
11 해외문화유적답사	일시 : 8.20~16 장소 : 백두산, 고구려유적지, 대련 등 참여인원 : 선착순 100여 명 대상 : 문화가족을 주축으로	중국답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기상을 재조명해보는 기회 마련과 동시 향토문화에 애착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태안 향토사연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12 2010 태안문화원 조대전	일시 : 6.18~23 장소 : 태안군문화예술회관 전시장 참여인원 : 300여 명 대상 :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인들의 교류와 지역주민들의 전시회에 대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 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13 제19회 소성백일장	일시 : 10월14~25일 장소 : 문화원 공모로 실시 참여인원 : 300여 명 대상 : 관내초·중·고등학생	태안문화원 계속 사업으로 태안군의 학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생 활문화를 주제로 지역문화와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자연과 생활문화 를 주제로 시와 산문을 학교별로 접수 하여 심사함
14 지역문화학교	일시 : 4월~11월 장소 : 문화원 참여인원 : 300명 대상 : 태안군민 누구나	서각, 유화, P.O.P, 목공예
15 어린이동요대회	일시 : 5. 2 14:00 장소 : 문화예술회관 참여인원 : 200명 대상 : 관내 초등학생	태안군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선을 실시한 후 본선 진출 대상으로 대회를 진행함
16 범군민 중앙대제	일시 : 2.9(음15) 10:00 장소 : 경이정 참여인원 : 1,000명 대상 : 태안군민	태안의 고유한 전통 민속 제례 의식으로 태안군 각급 기관장 및 지역주민들이 모여 국태민안 기원하는 대제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태안의 역사에 대한 하계의 고증을 통해 태안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표 및 토론	일시 : 12월 중 장소 : 문화예술회관 참여인원 : 100명 대상 : 일반인	17 제3회 태안의 역사문화학술발표회
소외지역 마을회관에 문화예술활동 (벽화그리기)	일시 : 9월~11월 장소 : 지역 마을회관 노인정 참여인원 : 200명 대상 : 지역 주민	18 지방문화원특성화사업 벽화그리기
전담인력배치를 통한 도서 분류 및 정리,기존서고의 분류도서를 새로 마련된 도서관으로 이전하여 정리함	일시 : 1월~12월 장소 : 문화원 도서관	19 향토도서관운영
50세 이상 실버대상으로 미술, 난타 교육을 실시함, 현재 공연단을 결성해 활발한 활동 중	일시 : 6월~11월 장소 : 문화원 강당 참여인원 : 400여 명 대상 : 50세 이상	20 어르신문화학교
생태프로그램을 구성해 8회 야외 수업	일시 : 9월~11월 장소 : 서태안 인근 숲 참여인원 : 160명 대상 : 미취학 아동, 학부모	21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족 단위 대상으로 테마여행 및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으로써 가족간의 대화와 체험을 통해 공감대형성과 신뢰감 회복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일시 : 5월~11월 장소 : 경기도 파주, 포천 참여인원 : 560명 대상 : 가족단위	22 바우처사업 (자연과함께하는 우리가족사랑만들기)
태안지역에서 10여 년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 서예, 사진 등을 예술단체에서 축적된 경험과 능력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연합 전시회를 개최함.	일시 : 12. 16~20 장소 :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대상 : 서예,그림,사진예술인	23 그림,글씨 그리고 사진전
태안의 역사, 지리, 문화 등을 총망라한 원고. (총 6권 13편)	일시 : 1월~12월 참여인원 : 50명	24 태안군지

태안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25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일시 : 6. 17 장소 : 천안삼거리공원 참여인원 : 50여 명 대상 : 태안군민	민속놀이의 계승 및 발전 시·군 간의 화합
26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 여행	일시 : 9. 4~10. 30 장소 : 태안군내 주요 명소 참여인원 : 500여명 대상 : 수도권 중심 국민 대상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휴 양지 태안을 홍보하게 위해 태안의 명소들을 수도권 중심의 국민 대상으로 모집하여 명사들과 함께 1일 투어를 실시하는 행사
27 산수향 마을 요리축제	일시 : 6. 18~23 장소 : 태안군 군민체육관 참여인원 : 3,000여명 대상 : 전국민	산수향 육쪽마을 축제 문화행사로 전 국민 화합의 장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다.
28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	일시 : 6. 12~27 장소 : 천리포수목원, 인면도자연휴양림, 만리포 해수욕장, 꽃지해수욕장 참여인원 : 2500여명 대상 : 전국민 일시 : 7. 24~31 장소 : 학암포해수욕장, 만리포해수욕장, 몽산포해수욕장, 신진대교 주차장 참여인원 : 2,500 여명 대상 : 전국민	2010 대충청방문의 해 태안군 방문의 해 태안군 방문의 달을 맞아 관내 주요 관광지 4개소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태안군 방문객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만들어 주는 행사
29 백화산성 시굴조사	일시 : 10월~12월 장소 : 백화산	백화산성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지표조사에서 제기된 축조연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태안군 역사문화자료의 정비 및 관광소재 개발.
30 향토민속발굴	일시 : 12. 31	태안군의 역사,문화,관광자료를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안내할 수 있는 지침서 발간
31 자연체험장조성 (보수,재정비)	일시 : 10. 8~12월 장소 : 근흥면 마금리 (냉금마을)	노후화된 자연재현시설을 정비하고 각종 재현도구를 제작하여 자연의 명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한다.



1. 움직이는문화공연-실버미술단
2. 우리고장바로알고바로알리기-태안의역사편
3. 이원벚거리대놀이

4. 2010주말영화-포스터
5. 제4회산수향육쪽마을축제-목공체험
6. 해외문화유적답사-고구려유적지백두산

홍성문화원

홍성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제9회 정월대보름 민속 한마당	일시 : 2.27(토) 11시 장소 : 홍주성일원(구)법원 · 검찰청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인원 : 800여명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민속을 알리기 위한 민속행사
2 전통관례 및 계례 재현 (전통성년식)	일시 : 5.17(월) 11시 장소 : 해전대학 야외무대, 대상 : 각 대학 성년자 청운대학교 신애관 참석인원 : 600여명	성인된 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지키고, 행해야 됨을 가르치는 자리로써 전통복식과 방법으로 성년식 재현.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고 사회적 책임감과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
3 제5회 여름전통문화학교	일시 : 7.19(월)~7.23(금) 5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대상 : 홍성관내 초등학교생 참석인원 : 40여명	우리고장 문화알기, 짚풀공예교실, 영화감상, 전통예절교실, 다도교실, 박공예교실, 야생화교실,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문화를 올바르게 배우고 익히는 교육 및 대화의 자리 마련
4 2010 홍성문화원 청소년 보호캠프	일시 : 8.11(수)~8.13(금) 3일간 장소 : 유관순기념관, 천안독립기념관, 임진각비행박물관, 민해기념관, 남한산성역사관, 덕산가야역사마을, 충의사, 윤봉길의사기념관 등 대상 : 홍성관내 중학생 주최 : 홍성보훈지청 참석인원 : 60여명	청소년 보호캠프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애국심 및 독립정신, 국가수호정신, 민주정신 함양 및 올바른 역사인식과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5 우리문화알아보기-1 "청주문화탐방"	일시 : 4.1(목) 8시 장소 : 청주고인쇄박물관, 신채호 영당, 고드미 마을 대상 : 홍성관내 초등학교생 참석인원 : 50여명	벽지 초등학교생 중심으로 도내 문화유적지를 탐방, 현장학습을 통해 문화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6 우리문화알아보기-2 "법주시문화탐방"	일시 : 5.15(토)8시 장소 : 청주 속리산 법주사, 상수허브랜드 대상 : 문화학교 수강생 및 가족 참석인원 : 40여명	문화학교 가족들과 도내 문화유적지를 탐방, 현장학습을 통해 문화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7 우리문화알아보기-3 "부여문화탐방"	일시 : 7.23(금) 9시 장소 : 부여백제역사문화관, 부여국립박물관, 부여연꽃축제장 대상 : 홍성관내초등학교생 참석인원 : 50여명	벽지 초등학교생 중심으로 도내 문화유적지를 탐방, 현장학습을 통해 문화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8 제1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일시 : 4.1(목)~10.31(금) 7개월간 대상 : 지역주민누구나 주관 : 홍성문화원	옛 홍성의 자연경관, 문화유적, 생활상, 발전상, 건조물, 골목 등 홍성과 관련된 모든 개인 소장사진 공모 실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제1회 홍성 옛사진 전시회	일시 : 11.25(수)~12.3(금) 9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참석인원 : 900여명	"제1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수상작 및 출품작 42점을 전시. 추억의 옛사진 전시회 통해 홍성군민들에게 애郷심을 심어주고, 옛것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홍성문화 167호, 168호 발간	발행일 : 연중 2회 (6월, 12월) 발행부수 : 각 2,000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 배포하여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함. 문화원 소식 및 정보도 수록하여 발행
제3회 홍성문화원 야생화 전시회	일시 : 4.15(목)~4.19(월) 5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주최 : 들꽃사랑 주관 : 홍성문화원 참석인원 : 600여명	쉽게 접할 수 없는 야생화들을 한자리에서 보여 볼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 마련. 새로운 식물에 대해 소개하고 알아가는 자리 제공
문화학교 강좌	일시 : 연중운영 장소 : 홍성문화원 대상 : 지역주민 강좌수 : 10개 참석인원 : 매회 각 20여명	한글서예교실, 도예교실, 다도교실, 국산도교실, 단청교실, 예쁜글씨POP교실, 요가교실, 노래교실, 색소폰교실, 풍수지리교실 등의 강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교육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회를 제공
홍성문화원의 찾아가는 영화관	일시 : 1.25(월), 2.22(월), 2.23(화), 3.29(월), 4.10(토), 4.26(월), 5.31(월), 6.3(목), 6.28(월), 7.26(월), 8.30(월), 9.27(월), 10.25(월), 11.29(월), 12.27(월) 14시 장소 : 장수원, 유원원, 구항법철한우축제, 홍성제일감리교회 부설노인대학 참석인원 : 각 50여명	영화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외시설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다양한 장르의 좋은 영화를 상영
주민과 함께하는 목요일영화	일시 : 매주 목요일 19시 장소 :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인원 : 평균 100여명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좋은 영화를 매주 선정하여 무료로 상영
홍성문화원 제5회 한여름 밤의 영화제	일시 : 8.8(월)~8.12(목) 4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인원 : 700여명	무더운 여름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한여름 밤의 영화 무료상영으로 더위해소 및 여가문화 제공
제11회 가족과 함께하는 거리영화제	일시 : 8.20(금) 20시30분 장소 : 광천하상주차장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인원 : 300여명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거리영화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가족과 함께 좋은 영화를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

홍성문화원

홍성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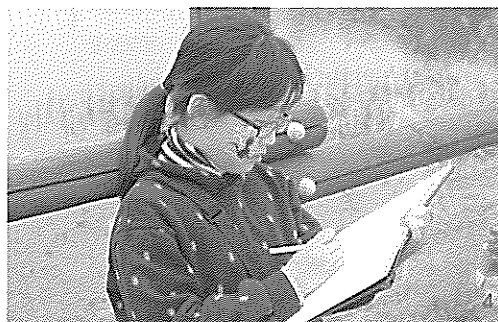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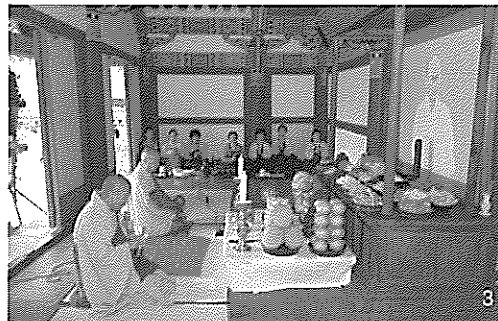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7 제15회 만해제 "만해 추모다례"	일시 : 9.11(토) 11시 장소 : 만해생가지 참석인원 : 100여명	만해제 행사를 함으로써 만해 한용운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르며 위업을 계승하는 계기 마련, 지역주민들에게 만해사상을 고취,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러운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교육적 효과를 얻고자 함
18 2010 향토사대중화사업 "홍성의 전설 그림지도만들기"	일시 : 4.3(토)~8.13(금) 4개월간 장소 : 홍성관내문화유적지 대상 : 홍성·금당초등학교 참석인원 : 30여명	홍성관내 문화유적지를 현장답사, 곳곳마다 재미난 전설도 알아가면서 그림지도 만들기 체험학습을 통해 홍성의 향토사 교육의 효과를 증진
19 2010 향토사대중화사업 "홍성의 전설 그림지도 만들기 작품전시회"	일시 : 9.14(화)~9.30(목) 17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1층 현관 로비 참여인원 : 1,000여명	홍성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후 학생들이 직접 그린 전설그림지도 작품전시 및 제작한 달력 무료 배포
20 2010 향토사대중화사업 "홍성의 전설 도전골든벨"	일시 : 10.23(토) 10시 장소 : 홍주초등학교 강당 대상 : 홍성관내 초등학교생(5~6학년) 참여인원 : 100여명	홍성의 전설 도전골든벨을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홍성의 향토사를 알아볼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및 전통문화를 보전하려는 애향심과 향토사 자치에 대한 흥미 유발
21 2010 지방문화원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민속공예교실"	일시 : 4.27(화)~8.10(화) 3개월간 장소 : 장수원, 유일원 대상 : 어르신 참석인원 : 60여명	박공예와 단청그리기, 손글씨 등을 활용한 민속공예품 및 소품을 만들어 전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증대, 생활의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함
22 2010 지방문화원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민속공예교실 작품전시회"	일시 : 10.18(월)~10.20(수) 3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참여인원 : 300여명	장수원, 유일원 어르신들이 직접 단청그리기와 예쁜 글씨 등을 활용한 다양한 문양과 색깔로 만든 박공예작품을 전시
23 2010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농촌민속공예학교"	일시 : 4.27(화)부터 30회실시 장소 : 고암마을회관, 거북마을회관 대상 : 농촌주민들 참석인원 : 60여명	농촌주민들을 주 대상으로 짚풀공예, 박공예, 명아주공예작품을 만들어 잊혀져가는 농촌지역의 옛 민속공예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
24 2010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농촌민속공예학교 작품전시회"	일시 : 11.15(월)~11.17(수) 3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야외 원두막 참여인원 : 300여명	"농촌민속공예학교"에서 농촌주민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짚풀공예, 박공예, 명아주공예작품을 전시, 지역주민들에게도 농촌지역의 옛 민속공예문화를 널리 알리고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박공예·짚풀공예작품 만들기, 야생화 가꾸기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 고유의 농경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하여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교육기회 제공.	일시 : 7.19(월)~7.21(수) 3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내, 홍성문화원 야생화하우스 대상 : 홍성관내 청소년 참석인원 : 80여명	2010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내포농경문화체험"
"내포농경문화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든 박공예작품, 짚풀공예작품, 야생화작품을 가족, 이웃과 함께 보고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회 마련	일시 : 7.27(화) 10시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참석인원 : 150여명	2010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내포농경문화체험 작품전시회"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그동안 배운 기량을 발표하는 자리 마련. 작품전시회 및 시연, 축하초청공연을 함으로써 가족, 이웃들과 소통·화합하는 자리 제공	일시 : 5.1(토) 14시 장소 :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2층 전시실 대상 : 문화학교 수강생 및 주민 참석인원 : 300여명	문화학교 상반기 학습발표회
문화가족 및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양과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감상을 위한 작은 공간 제공. 일반회원들에게는 도서관의 모든 도서 및 자료(DVD, CD) 열람과 대출 제공.(연중 운영)	일시 : 5.1(토) 14시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음악감상실, 향토도서관 대상 : 지역주민 및 문화원 회원 참석인원 : 300여명	음악감상실 및 도서관 개장
회합과 홍성의 문화발전을 위한 홍성관내 각급 기관·단체장 상호인사의 자리	일시 : 1.4(월) 15시 장소 : 홍성군청대강당 대상 : 홍성관내 각기관·단체장 참석인원:200여명	신년교례회
문화원 사업에 관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일시 : 3.11(목) 14시 장소 :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참석인원 : 50여명	제51차 홍성문화원 정기총회
추억의 옛사진 전시를 통해 홍성군민들에게 애향심을 심어주고, 옛것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일시 : 4.14(수) 9시 장소 : 서부초등학교 체육관 대상 : 홍성군읍·면주민 참석인원 : 200여명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옛사진 전시회
2010 홍성내포축제 행사 퍼포먼스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전통혼례식 거행	일시 : 9.11(토) 14시 30분 장소 : 홍성전통시장 장터마당 참석인원 : 200여명	시집·장가는 날 "전통혼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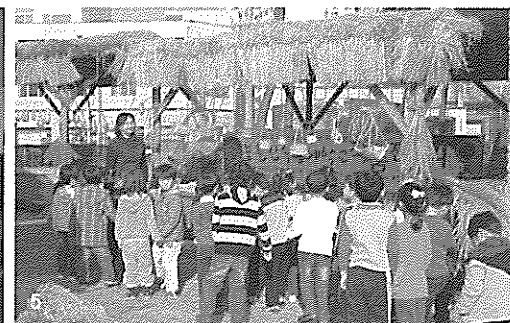
홍성문화원

홍성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33 문화학교 담양문화탐방	일시 : 7.8(목) 8시 장소 : 담양소쇄원, 죽녹원 대상 : 문화학교수강생 및 가족 참석인원 : 30여명	문화학교 수강생 및 가족들과 문화유적지를 탐방. 현장학습을 통해 문화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34 제5회 여름전통문화학교 참가학생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	일시 : 7.27(화) 10시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참석인원:150여명	여름전통문화학교에 참가한 학생들 수료증 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든 박공예, 짚풀공예, 아생화작품을 가족,이웃과 함께 보고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회 마련
35 제1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심사	일시 : 11.11(목) 10시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참석인원 : 10여명 (심사위원포함)	"제1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에 접수된 145점의 사진에 대해서 6명의 심사위원이 역사성, 가치성 등에 의하여 심사 및 수상작 발표
36 제1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시상식	일시 : 11.12(금) 11시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참석인원 : 10여명 (수상자포함)	"제1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심사발표 결과 각 수상자들에게 상금 및 상장 수여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 입선 10명)
37 홍성문화원과 함께하는 "2010 남아공 월드컵 8강기원 거리응원"	일시 : 6.26(토) 20시 장소 : 홍주성일원(구)법원 · 검찰청 참석인원 : 800여명	대한민국의 남아공 월드컵 8강기원 거리응원전 자리 마련. 관내 주민들에게 사물놀이공연, 청소년 응원단 및 가수초청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성숙한 거리응원문화 조성
38 명인 명창과 함께하는 한옥과 우리가락의 만남	일시 : 9.10(금) 20시 장소 : 옥암리 은송정사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인원 : 150여명	명인 명창을 초청, 공연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고유 전통음악을 감상할 수 기회 제공 및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39 프로젝트 시나위 동네방네 음악회	일시 : 9.13(월) 19시 장소 : 옥암리 은송정사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 홍성문화원 참석인원 : 250여명	북권기금후원 문화나눔 실천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무료공연의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와 다양한 음악감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
40 고려대학교 전통문화 전수 체험활동 참가 "짚풀공예작품 만들기"	일시 : 10.6(수) 13시 장소 : 고려대학교 민주광장 대상 : 고려대학교생 주관 : 고려대학교 정경대 참석인원 : 50여명	"고려대학교 대안문화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짚풀공예작품을 전시, 판매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르신들의 장인문화를 전수하는 시간으로써 직접 배우고 체험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1. 문화학교강좌-요가
2. 홍성문화원의찾아가는영화관
3. 만해제추모다례
4. 홍성의 전설 그림지도만들기
5. 농촌민속공예학교 작품전시회
6. 우리문화알아보기(청주문화탐방)
7. 시집장가 날 전통혼례식



충청남도 문화원 홈페이지 안내

(가나다순)

충남사이버문화원 : <http://www.cult21.or.kr>

공주문화원 : <http://gongju.cult21.or.kr>

금산문화원 : <http://geumsan.cult21.or.kr>

논산문화원 : <http://nonsan.cult21.or.kr>

당진문화원 : <http://dangjin.cult21.or.kr>

대천문화원 : <http://daecheon.cult21.or.kr>

부여문화원 : <http://buyeo.cult21.or.kr>

서산문화원 : <http://seosan.cult21.or.kr>

서천문화원 : <http://seocheon.cult21.or.kr>

성환문화원 : <http://sunghwan.cult21.or.kr>

아우내문화원 : <http://aunae.cult21.or.kr>

예산문화원 : <http://yesan.cult21.or.kr>

온양문화원 : <http://onyang.cult21.or.kr>

연기문화원 : <http://jochiwon.cult21.or.kr>

청양문화원 : <http://cheongyang.cult21.or.kr>

태안문화원 : <http://taean.cult21.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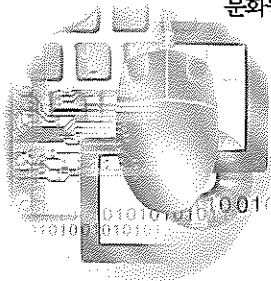
홍성문화원 : <http://hongseong.cult21.or.kr>

충청남도 사이버문화원 E-book 자료관 구축

문화원 발간도서, 홍보책자, 업무책자, 행사사진, 동영상 등 E-book 자료관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사이버문화원 및 도내문화원 홈페이지 하단 배너 링크”



2010충청남도내 문화원현황

문화원명	소재지	창립일	원사총면적(평)	원 장	사무국장	직원	전화번호	팩스번호
충남도지회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0-6	67. 2. 20		지회장 정정희	정제상	김현숙 김정현 오미형	T. 354-2367 357-2367 F. 356-3850	
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54. 12. 14	650	나태주	현대수	김민영 양문숙	T. 852-9005 F. 856-6746	
금산문화원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8	67. 11. 18	364	김호택	안용산	전병만 석현숙	T. 754-2724 F. 754-6611	
논산문화원	논산시 내동 279-4	57. 11. 14	20	류제협	이준창	전현희 박슬기	T. 732-2385 730-4632 F. 732-2394	
당진문화원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0-6	58. 3. 5	341	정정희	정제상	김현숙 김정현 오미형	T. 354-2367 357-2367 F. 356-3850	
대천문화원	보령시 동대동 983-16	62. 2. 4	287	임기석	송하순	김영희	T. 934-3061 F. 936-3071	
부여문화원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2	54. 3. 1	125	윤준웅	김인권	이미영 박혜숙	T. 835-3318 F. 833-3318	
서산문화원	서산시 읍내동 516	57. 6. 15	570	이준호	김영철	최윤경 강현숙 이용배	T. 669-5050 F. 669-4567	
서천문화원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62	65. 1. 26	300	백혜승	박종훈	최신희	T. 953-0123 F. 953-0133	
성환문화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449-66	63. 5. 10	56	송용삼	신광식	김정선	T. 581-2101 F. 582-1725	
아우내문화원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172	58. 4. 20	251	김준기	이영현	김희영 성미소	T. 564-1022 553-1032 F. 563-1021	
예산문화원	예산군 예산읍 대화리 247-11	55. 10. 15	344	김시운	박세진	김상희 박주형	T. 333-2441 335-2441 F. 334-4330	
온양문화원	아산시 온천2동 216-4	57. 3. 20	298	김시경	박순동	허미화 김윤성 이명숙	T. 545-2222 F. 542-4444	
연기문화원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1-1	64. 10. 14	603	임영이	길미숙	이원재 민선혜 곽희임 이진세	T. 865-2411 865-2412 F. 864-0870	
청양문화원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2-5	55. 4. 17	286	정재권	임두순	복은주 차승원 송미애	T. 943-4774 F. 944-1030	
태안문화원	태안군 태안읍 남문3리 53-11	90. 5. 5	241	김한국	정지수	김유미 이하나 최사미	T. 674-2192 674-1192 F. 675-6968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89-4	65. 1. 26	605	전용택	전용식	강창식 정선영 임현경	T. 632-3613 632-3612 F. 633-1199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발행일자 : 2010. 12.

발행인 : 정정희

기획 : 윤준웅, 임영이

편집인 : 정제상, 김정현

발행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0-6

Tel. 041) 354-2367, 357-2367

Fax. 041) 356-3850

충남문화 제14호는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